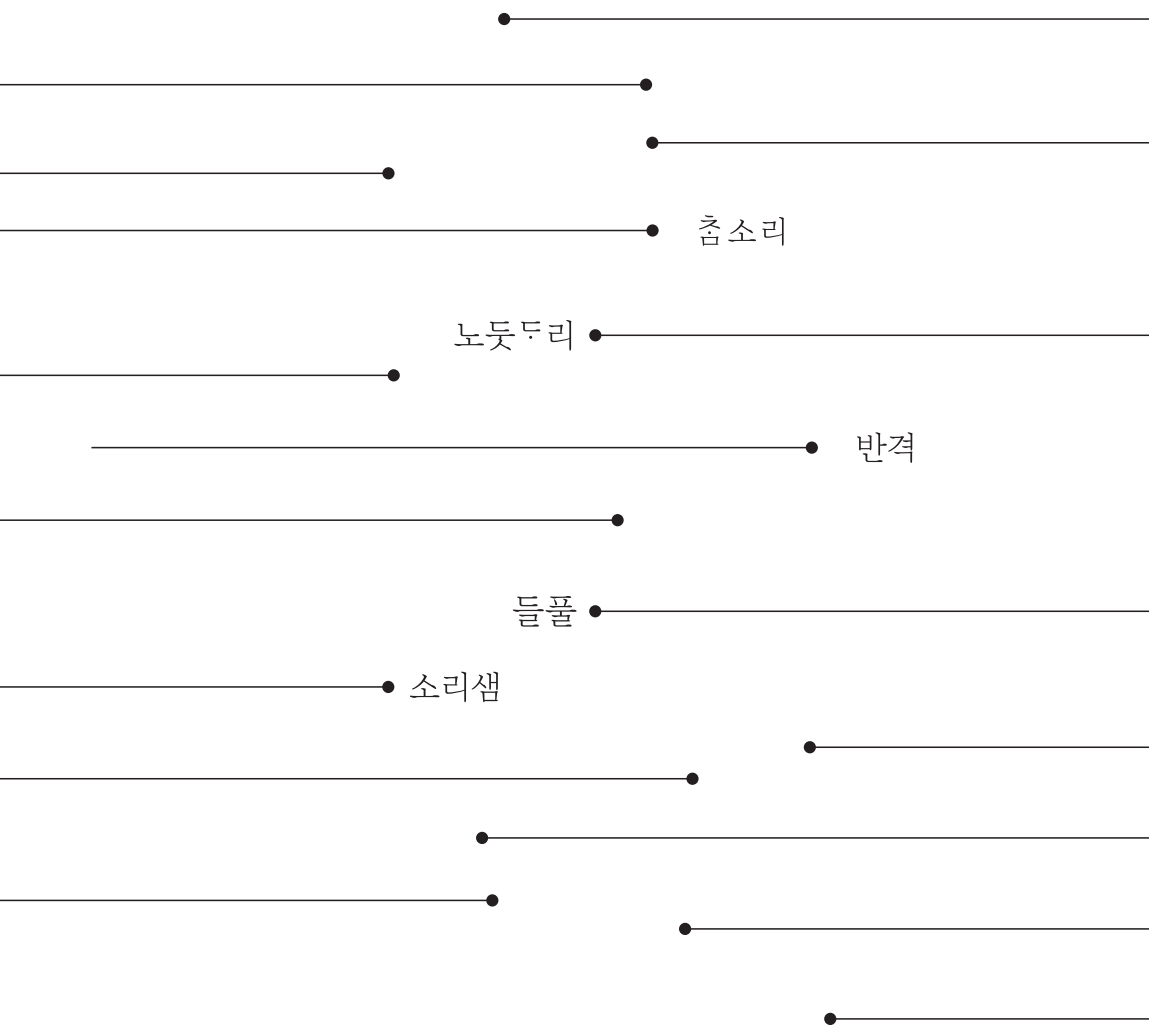


문화도시부평 기록사업

음악일기 : 희망의 노래



문화도시부평 기록사업

『음악일기: 희망의 노래』를 내놓으며

부평, 넓게 인천지역은 100여년 전부터 노동의 도시, ‘일하는 사람들’의 도시였습니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근현대화 시기를 거치며,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과 애환, 다양한 감정과 일상이 녹아 있는 곳입니다. 이들은 1980년대 한국 사회의 성장과 민주화 과정에서 함께 울고 웃고, 싸우고 좌절하고, 다시 희망을 찾으며 한국사회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노래를 선택하고 거리에서, 공장에서 함께 부르며, 주변에 전달하는 매개자의 역할도 해왔습니다. 또 함께 부른 그 노래들은 다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었습니다. 저마다 스스로 만들어온 역사가 모여 도도하게 흐르는 인천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하여 이러한 이야기가 빠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진행형이기도 한 이야기가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미 20년이 훌쩍 지난 옛일이기도 한 탓에 다들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이들의 소중한 기억들이 사라지거나 왜곡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일하는 사람들’의 노래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 2024년 [음악일기: 희망의 노래]가 기획되었습니다.

우선, 면담을 진행하기 전에 가물가물, 긴가민가한 기억들을 끄집어내고 정리하고자 당시 함께 활동했던 주역들을 모아 집담회를 진행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노래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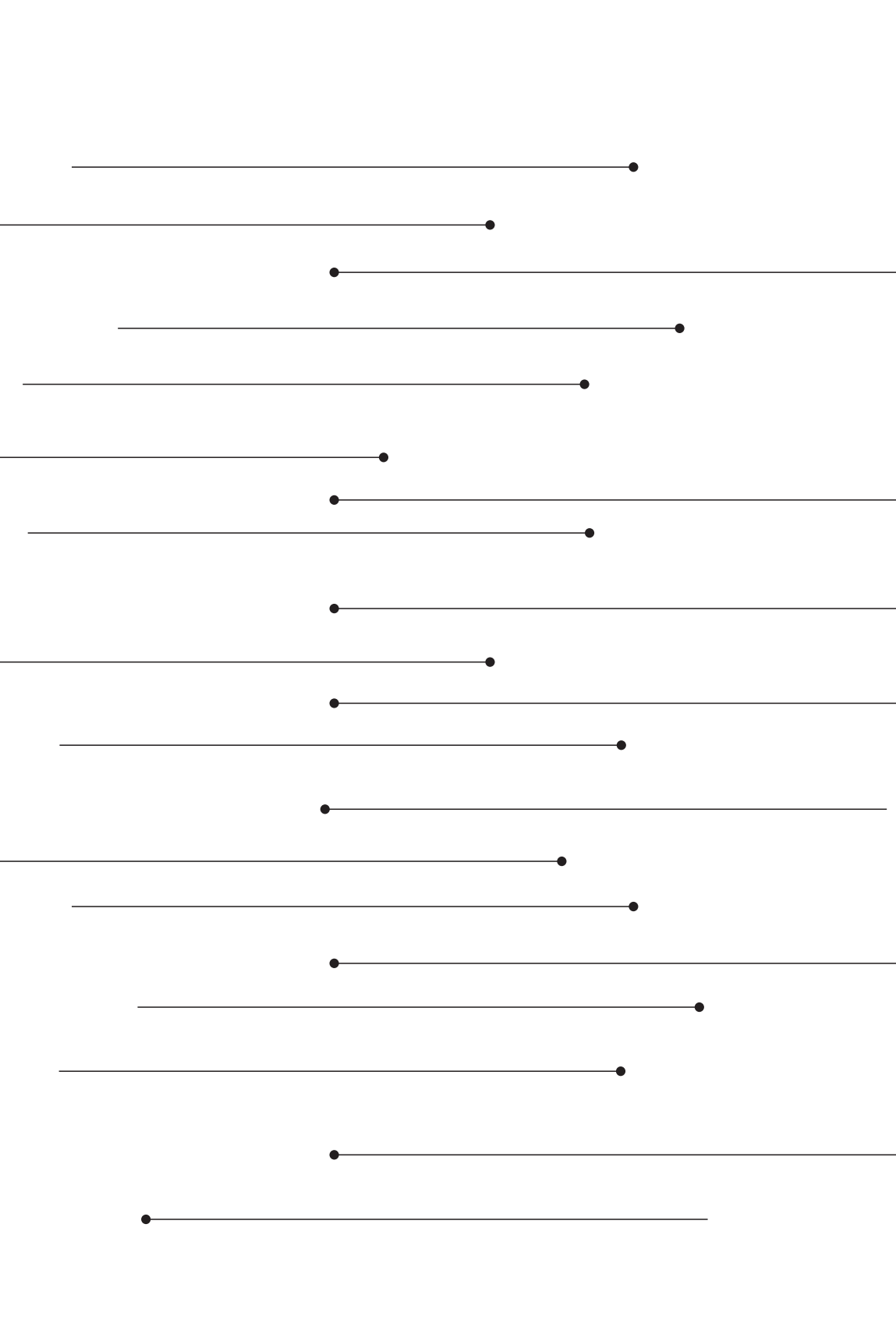
활동을 한 분들과 노래패를 결성하는데 역할을 한 문화부장들을 초대했습니다. 연락을 해보니 안타깝게도 타지역으로 이주해 연락이 닿지 않거나 당일 시간이 맞지 않아 중요한 몇몇 분의 참석이 불발되기도 했습니다. 역시 한 번에 완성되기는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2024년 8월 5일 (월), 대우자동차 춤소리(김창곤, 변정섭), 대우중공업 노릇드리(허창구, 이주현, 오병철), 아남정공 소리샘(황귀영), 그리고 영창악기 문화부장(백승수), 아남정공 문화부장(백광애) 등 여덟 분이 집담회에 참석해 함께 기억을 꿰맞추는 자리를 가졌고, 이들의 기억과 추천 등을 토대로 6명의 구술자를 선정하였으며, 9월 한 달 동안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내놓습니다. 여건과 상황에 따른 어려움이 많아 여러 모로 너무 부족하지만,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뜨겁고 소중했던 시대를 함께 살아낸 수십 명 중 단 6명뿐이지만, 올해 부평문화재단의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단위들이 이것을 계기로 기록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이어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과 귀한 시간 내주신 면담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11월 기획 및 진행 책임 **이은진** 삼가 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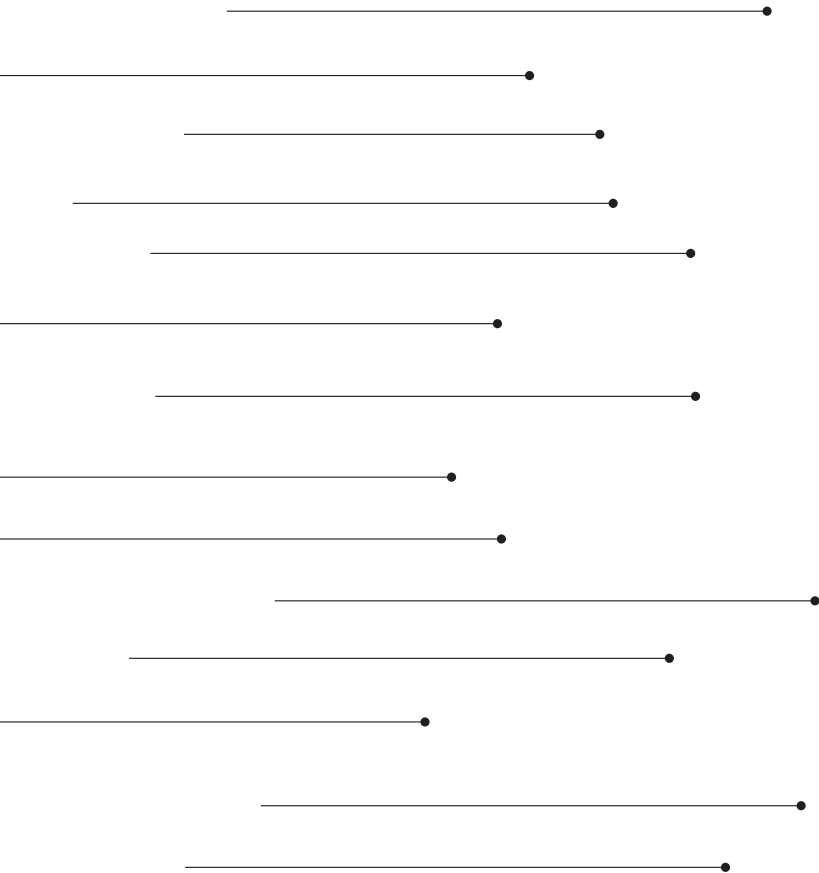
문화도시부평 기록사업

음악일기 : 희망의 노래

변정섭	6
대우자동차 노래패 ‘춤소리’	
오병철	44
대우중공업 노래패 ‘노뚝두리’	
손동혁	82
노래패 강사	
황귀영	118
아남정공 노래패 ‘소리샘’	
손상희	158
영창악기 노래패 ‘들풀’	
이한수	202
인천지역 기타반 ‘반격’	

변정섭

부평 대우자동차 노래패 춤소리 활동





면담 일시	2024년 9월 27일 금요일 16:00-17:40
면담 장소	부평 생활문화센터 2층 스튜디오
주요 이력	학력 관악고등학교 이화여대 미용최고경영자과정 1년 수료 주요 경력 1988년 대우자동차 입사 1989년 반주패 만들어서 2주 교육 받고 회사 노조에서 반주활동 시작 이후 김일섭과 다른 여러 명이 노래까지 하는 노래/반주 완전체로 활동 대우자동차노동조합 문화부장 활동 인문연 노래 테입 제작과 공연 참여 1995년 대우자동차 퇴사 후 1년 미용사 활동 후 미용실 창업 미용사 노동교육 진행하면서 미용사노조 설립 미용실 4대 프랜차이즈 노동법 미준수 고발
핵심어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참소리, 인천민중문화운동연합, 반주패, 노래패, 문화부장, 김일섭, 노동해방

* 대우자동차 (현재 한국 GM)

196~70년대 자동차산업을 열어간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 신진자동차에서 대우자동차로 대우그룹 계열사로 부평에 자리잡은 사업장이며 현재 한국GM(제너럴모터스)의 대표 사업장이며 본사임.

변정섭 녹취문

구술채록 시작

면담자 집단 구술채록에 이어서 이번에는 개별 구술채록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날짜가 9월 27일이고요.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에서 활동하신 변정섭 선생님을 모시고 살아온 애기와 노래패 활동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출생과 성장과정

면담자 일단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언제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

변정섭 65년 파주 임진강에서 태어났습니다. 장파리라는 곳. 원래는 경상도분인데 ‘자식 농사가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 살면 농사가 안 되니까 가장 먼 곳으로 가라.’ 장파리라는 곳이 휴전선 바로 앞이거든요. 거기까지 와서 형을 낳고 나를 낳고 자식 농사에 성공하게 된 거죠. 아버지 어머니가. 누나 두 분이 있고요. 옛날 사람들은 누나들은 애로 안 치니까 남자애가 나와야 애를 낳은 거니까. 형하고 나를 낳을 때까지 누나들이 줄줄이 있었죠.

면답자 몇 남 몇 녀 중에 몇 째신 거예요?

변정섭 원래 6명이었는데 2명은 먼저 가고. 일로 와서 우리 둘을 건진 거죠. 형이랑 나랑. 막내.

면답자 부모님은 농사 지으셨어요?

변정섭 아니요. 아버지가 손재주가 좋아서 미군 부대 목수도 하고 고물 고철 수집. 옛날에는 전쟁 끝나고 군인들하고 부대장을 잘 설득하면 그 지역 땅에 묻혀 있는 전사자들 파내고 무기 꺼내서 탱크도 갖고 오고 하는 고철업을 하셨어요. 특수 고철업이죠. 그래서 우리 집에는 철 탐지기도 있었고.

면답자 평생 그 일을 하셨어요?

변정섭 돌아가실 때까지 고물상을 했죠. 서울로 왔죠. 가리봉. 초등학교 2학년 때 가리봉에 와서 아버지가 고물상 차리고. 가리봉에서는 저걸 했었잖아요? 공단이니까 공단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주면, 거기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거저 주는 방식이었죠. 쓰레기 갖다가 매립해 버리고 고물상 해서 팔고 해서 고물상을 했었죠. 아버지가.

면답자 초·중·고등학교는 가리봉에서 다니셨어요?

변정섭 네. 영등포 관악고등학교 나왔고요. 인문계는 나왔는데 공부는 잘 못했고. 아버지의 손재주를 물려받아서 라디오도 만들고, 카세트도 만들고, 이런 거를 취미 삼

아서 군대는 통신정비병으로 갔죠. 통신정비병으로 가서 보니까는 일요일 날, 토요일 날은 머리 깎는 사람은 그늘에서 편히 머리 깎는데, 나머지 병사들은 풀 뽑으러 가거나 이래야 되니까 잔머리를 굴려서 누나가 미용실을 해서 머리를 깎을 줄 안다고 하고 머리 깎는 걸로 토요일 일요일은 그늘에서 좀 놀았죠.

면답자 84년 정도에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바로 군대에 가셨나요? 아니면.

변정섭 아니요. 삼성전자 들어갔어요. 삼성전자. 거기도 100대 1 솔찮게 좋은 곳이라고 했는데. 잔업, 철야, 조출, 점심시간 30분도 연장, 특근 그런 걸 다 겪어봤어요. 6개월을. 그러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6개월 댕기고 때려치웠어요. 남들은 못 들어가서 안달인 곳을 때려치우고. 아버지가 고물상 하시던 거를 접고 나이가 있으시고, 암에 걸리면서 문방구를 조그맣게 안산에서 했었어요. 아버지도 돌볼 겸 문방구를 잠깐 하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군대를 갔죠. 원래는 군대 면제였는데 군대에서 실사를 나왔는데 ‘그거 엄마 괜찮던데’ 이 말 한마디에 저도 군대를 갔죠.

면답자 청소년기에는 어떤 청소년이셨어요?

변정섭 학교에서 있는 둥 마는 둥 안 보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키가 작아서 애들한테 맞았던, 태권도부에 들어

갔는데 고3 때까지 태권도 후보 선수. 잘은 못하니까.
군대 가서도 태권도 선수 생활을 계속했었죠. 그때부터 키도 크고 정상적으로 안 두들겨 맞는 청소년이었죠.

면담자 악기를 되게 많이 다루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변정섭 고1 때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니까는 피아노도 치고, 기타도 치길래 어깨 너머로 배우고.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 보컬 그룹이 있었어요. 대대장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제대하는 사람이 ‘베이스 기타를 칠 사람?’ 하길래 ‘저요!’ 했죠. 그런데 베이스 기타를 칠 줄은 몰랐어요. 몰랐는데 악보를 보니까 스케일대로 안 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오디션 갔는데 악보대로 열심히 치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켜줬죠. 군대에서 베이스로 들어갔다가 기타치고, 건반 치고, 드럼 치고, 이렇게 하다가 30개월 동안 밴드 생활도 했었죠. 계속.

면담자 고등학교 때 학원을 다니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변정섭 아니죠. 동네에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치면 그 시절엔 지나가면서 형아들이 가르쳐주고 그랬던 시절이라.

면담자 집에 기타가 있긴 하셨어요?

변정섭 그것도 재미난 애깃거리가 있는데 반지하에 제 방이 있었는데 우리 누나 잠바 옷에 곰팡이 묻은 돈이 있더

라고요. 그래서 누나한테 거꾸로 주면서 ‘이거 열심히 모은 거야. 누나! 나 기타 하나만 사줘.’ 그래서 우리 형이 2만 원을 뺏 뜯고, 3만 원을 누나한테 쥐가지고 우리 누나가 사다 주더라고요. 기타를. 동생이 기타 치겠다니까 나이 차이가 여덟 살 차이 나니까 어릴 때 거진 엄마가 키우듯이 우리 누나가 키웠어요. 그래서 기타를 여러 개. 아버지가 공장에서 또 2개를 얻어 와가지고 갑자기 기타가 많아졌죠. 통기타.

면담자 그때는 주로 어떤 노래를?

변정섭 뽕짝이죠. ♪판따다 판판 따다라따라 따다 판판. 근데 나는 뭔가 이상했는지 삼성전자 댕길 때요. 거기가 아주대학이 있잖아요? 대학교가 있고 출근하려면 서점이 있는데 자꾸 인문서적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대학도 못 간 놈이 맑스 레닌, 이런 책 혼자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거예요. 남들이 안 보는 책을 자꾸 혼자 보게 됐던 기억이 있어요.

면담자 84년이면 통기타 치는 분들은 양희은이나 김민기나 이런…….

변정섭 우리 아버지가 그런 세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일단 해줘야 기타 치는 걸 뭐라고 안 하니까 그전에 4, 50년대 노래. 소야곡이니 뭐니 그때 음악을 먼저 해주고 나는 김수철이나 신중현 이런 락을 더

좋아하게 됐죠. 실제로 김민기 노래 같은 거는 재미는 없었어요. 음악이 너무 단순하고요. 저는 레드 제플린 이런 록 음악이 더 좋았고. 신중현 같은 거. 그다음에 우리 제가 살던 파주가 다 미군이니까 전파사에서 나오는 게 다 컨트리 음악이에요. 컨트리 음악이나 락 음악을 더 좋아했지.

면답자 교회에서는 CCM도 연주하고 그러셨던 거예요?

변정섭 가스펠을 치기는 하는데 록 버전으로 많이 하다가 어른들한테 많이 혼났어요.

면답자 레드 제플린이나 이런 음악을 좋아할 때는 친구들이랑 같이 좋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 존재를?

변정섭 라디오. 제가 라디오를 만들고, 라디오를 주파수를 변경하면 테레비에다가도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집 테레비 밑에서 욕도 해보기도 하고 무전기를 집 안에서 높이 하면 개인 방송국이 되는 거예요. 혼자 턴테이블로 음악도 틀고 라디오처럼 혼자 해보기도 했었어요. 요즘은 유튜버라고 그러겠지만 예전에는 햄이죠. 무선. 그거 만들어서 혼자 놀기도 하고 돈은 제가 없어서 턴테이블만 가지고 나머지는 본체는 직접 만들고 그렇게 썼죠.

면답자 청소년기에 음악 틀어주는 다방이나 이런 데 가기도

하셨어요? 혹시?

변정섭 나이트클럽을, 제가 늙어 보여가지고, 영등포에 ‘광장’이라는 나이트클럽이 있었고. 그 광장은 오래된 거고. ‘원투쓰리’라는 클럽은 새 거였는데. 원투쓰리는 LP를 틀어주는 곳이고, 광장은 진짜 밴드가 나오는 곳인데. 진짜 밴드인데, 콜라값만 내면 입장 가능한 곳. 테이블 없이 서서 구경해야 되는. 그래서 저는 가가지고 다른 애들은 술 먹고 여자 꼬시는 그쪽으로 공략했는데 저는 맨 앞에 가서 기타 치시는 분, 요즘은 어렌지라고 그러죠. 그거 보고 와서 집에 와서 또 하고. 큰돈 안 들고 갈 수 있고 제가 좀 늙어 보여 가지고. 그런데 들어갈 수 있었던 게 그때가 우리가 그 복장 자율화가 됐어요. 고2 때. 복장 자율화, 머리 자율화. 그러다 보니까 길고 좀 늙어 보이니까 대학생인 줄 알고 안 잡더라고요.

대우자동차 입사와 활동 시작

면답자 그럼 군대 갔다 와서 바로…….

변정섭 네. 대우자동차 들어갔죠. 88년 1월에 제대를 해서 5월에 뽑았는데. 데모를 계속하니까 가을인가 직업훈련원에 들어가서 있다가 졸업하고 데모 기간 동안 놀다가

우여곡절 끝에 들어갔죠. 대우자동차를.

면담자 88년에 대우자동차에 들어가실 때는 서류 보고 면접 보고 들어가신 거네요?

변정섭 그죠.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 하면 소개자. 소개해 준 분이 직원 중에 ‘내가 이 사람은, 애는 괜찮아 착해.’ 이런 식으로 우리 형 친구가 보증을 서주고 해서 들어갔죠. 그분은 조합 활동 전혀 하지 않는 성격 이고. 나는 평상시에 이상한 책들을 자꾸 보다 보니까. 근데 또 고등학교 친구가 운동권 서적을 만드는 그 회사에 다녔어요. 되게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무튼 운동권 서적을 만드는 그 회사 다녔던 게 내 동창 인데 그 친구가 내가 대우자동차 갔다니까 공짜로 책을 열심히 주더라고요. 저는 라인이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는 라인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서 보내고 만들어서 보내고 하는 거라, 손재주가 빨라, 손만 빠르면 빨리 보내고 내가 실 수 있었기 때문에 책 볼 시간이 꽤나 많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주는 책 열심히 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돈 내고 보래. 그러다 보니까 간부들이 ‘재하는 꼬락서니 보니 꽤 괜찮겠네.’ 근데 또 이제 기타 치는 거 보니까 ‘어! 괜찮네’ 해가지고 처음에는 저하고 신승욱이라고 해서 같은 조합원 중에 저보다 형 나이 많으신 분인데 그 형이 기타를 치고, 저는 건반을 치고

노동조합에서 2주간 전문업체 인천민중문화운동연합회 인문연에다가 2주간 교육을 시켜버렸어요. 아침 9시 출근, 퇴근 5시. 2주간 집중적으로 노동가요 반주법을 배우고 3천 명 앞에서 처음에 딱 하는데 물론 군대에서 20~300명 앞에서 연주하는 늘 했던 사람이지만, 천명 단위가 넘고 2~3천 명 되니까 아휴 진짜 거기다 스피커도 뽕뽕 하고 하니까 엄청 겁나긴 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뭐 그냥 별거 아니더라고요.

면답자 대우자동차에 5년 정도 다니셨죠?

변정섭 94년. 94년 정도까지 95년? 95년인가? 94~5년.

면답자 대우자동차에는 들어가셨을 때 이미 노동조합이 있는 상태였어요?

변정섭 당연히 있었죠.

면답자 그 노동조합은 언제 생겼어요?

변정섭 저는 모르죠. 있었으니까. 노동조합이 있었는데 들어갈 때 어용노조라고 들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어용노조지만 어찌 됐든 파업하는 것도 흥내는 내고 해야 되니까 다들 이쪽 파 있고, 저쪽 파 있고. 그중에 또 하나는 깡패 파도 있었고. 어리니까 저야 시킨 대로만 하는 거죠. 그냥 반주해라 그러면 반주하고. 그래서 해서 둘이서만 계속 반주패로만 쓰다가 그다음에 이인구 위원장인가 그분이 들어서면서 완벽하게 민주노조라고 했

었죠. 그게 90년도인지 91~2년인지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다음 해가 나랑 입사 동기라는 녀석이 위원장이 되면서 그 XX들도 약간 사꾸라 같은 녀석이어 가지고 그 사람 가고 김일섭이라는 사람이 우리 노래패 노래하던 친구가 위원장도 했었고. 제 기억으로는 거기까지.

면담자 그분이 이제 민주노조?

변정섭 김일섭은 완벽하게. 지금도 김일섭은 창원에서 사회운동을 하고 있죠.

면담자 그럼 노동조합 활동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변정섭 저요? 입사하자마자 거진 그냥 잡혀가다시피 해서 반주자가 된 거라니까요. 88년에 입사하고 89년 봄에 야유회 가잖아요. 단체. 회사서 단체 여행. 야유회 갈 때 내 돈으로 앰프 이만한 거 하나 들고, 기타 하나 들고



야유회

그때는 반주기라는 개념도 없고 그렇죠. 제가 끌고 갔어요. 가평에 거기 섬 있잖아요. 남이섬 간 게 기억이 나요. 이제 40~50명, 30~40명인가? 그 정도 되는 인원인데 먹고 놀고, 먹고 놀고 노래 부르는 게 다잖아요. 근데 내가 오부리라는 걸 가능하니까 즉석 반주가 가능한 사람이라 즉석 반주를 하니까는 ‘오! 잘하네?’ 이렇게 되면서 ‘기타 실력이 있네?’ 그래서 그게 이제 노조에 소문이 나서 그래서 8, 9년에 저를 발탁했을 거예요. 그거 끝나고 바로 반주자 모집이 돼서 나는 건반, 신승욱이는 기타. 기타 좀 잘 못 치기는 했는데 그냥 그렇게 저렇게 연습을 했죠.

면답자 회사에서 노동자로 계실 때는 부서를 계속 옮겨 다니셨어요? 아니면 한 군데 계셨어요?

변정섭 저는 두 군데. 엔진부에 있다가 트럭 부서로. 트럭 부서에서 퇴사를 했죠.

면답자 당시에 노동조합에서는 직책을 맡으셨나요?

변정섭 처음에는 노래패만 하다가 반주만 하다가 대의원하고 그 다음에 문화부장을 하고 그리고 때려쳤죠.

면답자 문화부장은 몇 년 동안 하셨어요?

변정섭 한 2년 했나요? 그렇죠. 높은 거죠. 단순해 가지고 빠르게 직함을 얻었던 거죠. 노래패의 비중이 커가지고 제가 장구도 배우고 다 했기 때문에 장구는 또 인천대 가

서 배웠거든요. 개인적으로.

면담자 문화부장 하실 때 노조의 체계는 어땠어요?

변정섭 그때는 되게 좋았어요. 제가 문화부장 할 때는 정의부장도 뽕뽕한 사람이었고 위원장이 있고 정의부장도 나랑 친한 성갑인가? 성갑이라고 동갑내기가 있는데 다들 바른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 저는 그런 게 더 소중하거든요. 바른 마음 갖고 있지 않으면서 바른 짓 한다고 떠드는 게 싫어서 교회도 안 나갔거든요.

면담자 회사에 노동자가 몇 명이었어요? 88년도 쯤……

변정섭 만 명. 제가 있을 때는 계속 만 명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많이 줄거나 늘지도 않고 계속 1만 명 정도. 다른 거 다 기억 안 나는데 정의 항의할 때 나오는 인원이 2~3천 명이니까 주간 부서에 하면 주간 부서 2-3천 명. 야간에는 늘 식당에서 했거든요. 식당에서 했던 기억 나는데. 식당에서도 딱 차면 2천 명 딱딱 차니까 그러면 대충 만 명까지는, 참가는 안 하니까 대충 만 명으로 기억이 나요.

면담자 대부분은 남성 노동자들이셨던 거죠?

변정섭 그렇죠. 거의 남자고 여자분들은 몇 명 없었어요.

노래패 창립

- 면담자 노래패는 처음에 2명이 만드신 거예요? 89년도에?
- 변정섭 그러니까 인문연의 스승이 2명. 장마담이라는 장혜영 씨하고 김 선생님은 기타. 그분이 저를 건반을 가르쳐 줬어요. 분명히 강의료도 드렸는데 몽둥이로 등짝도 맞기도 하고. 그 시절에는 이렇게 여자 한 분, 남자가 3명이니까 3남 1녀라고 그래서 다른 노래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진짜 이렇게 4명이서 팀웍을 이뤄서 하기도 했었어.
- 면담자 그때는 노조 분은 두 분이고? 노조 밖에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노래.
- 변정섭 스승이죠.
- 면담자 그러면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노래패라고 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었나요?
- 변정섭 그러니까 둘이는 반주패. 반주패인데 너무 자주 만나는 거예요. 그냥 만나서 연습하고 노는 거죠. 활동할 때는 우리 둘만 활동해야죠.
- 면담자 노래는 누가 불렀어요?
- 변정섭 안 불렀죠. 노래패는 한 2년 정도 지나서 김일섭이가 오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을 모집을 했던 것 같아요.
- 면담자 집단구술 채록 때도 특이하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

는데,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의 노래패에는 반주팀과 노래패로 분리돼 있었다고 그랬는데 선배님은 반주팀에 서만 활동하신 거예요?

변정섭 제가 노래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러면 연습할 노래를 반주팀도 내가 가르치고, 노래팀도 제가 교육하고. 그 스승들이 계속 올 수는 없으니까 회사 안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화음 악보도 내가 따로 만들어서 내가 노래도 지도하고 그러니까 제가 다 하기는 했어요, 그냥.

면답자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보면 88년에 입사를 하셔서…….

변정섭 89년에 전문교육. 전문 교육을 2주간 받고. 봄이요. 그 때부터 바로 실전에 투입이 됐죠. 데모할 때 반주자로.

면답자 그때는 노래는 안 하셨어요?

변정섭 노래는 다 간부들이 했잖아요? 노동가요를 쟁의부장이 나 이런 사람들이 다 하니까 굳이 가수는 필요 없었죠.

면답자 반주팀에 변화가 있었나요? 나중에?

변정섭 예. 그다음에 드럼하고 베이스 기타가 들어왔어요. 영만이라고. 드럼치는 앤데. 개는 노동 쪽에 개념이 없는 그냥 일반 음악하는 걸 좋아하는 애. 김영만이라고 키 작고 그 친구가 드럼을 맡았고. 베이스 기타는 대학을 나왔는데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전문대 출신이니 까 입사가 가능했는지 모르겠네요. 그 친구는 여기 인

천대. 인천전문대 졸업. 전문대 출신이고 베이스 기타를 야간업소에서 치던 경력이 있어서 이제 뭉쳤죠. 4명이. 김태우. 반주자는 4명으로 딱 이렇게 됐어요.

면답자 그 팀 이름이 뭐였어요?

변정섭 우리요? 참소리. 참소리는 처음에 우리 반주반이 2명이 발탁이 돼서 그 스승님하고 4명이서 산꼭대기에서 막걸리 먹으면서 참소리라는 이름을 지었죠. 그분들은 늘 스승이었어. 스승으로서 우리는 늘 만났어요. 그 인문연 사무실. 사무실에서는 우리가 편하게 갈 수 있고 그분들이 회사 들어오려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실에 자주 갔죠. 그래야 음악적인 테크닉을 하나라도 더 배우니까.

면답자 노조에서 노래 부르는 분들을 모집하기 시작한 건 언제였을까요? 89년부터 가을부터?

변정섭 그때 김일섭이가 들어오면서 다른 사람들도 들어온 것 같아요. 쫓겨온 거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제 조선소에서 대우조선소에 근무하던 사람이 일로 왔어요. 대우자동차로. 그 양반은 그때도 노조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참소리의 멤버들

면담자 89년에 처음에 멤버였던 분은 몇 분 정도 됐을까요? 노래하셨던 분들은?

변정섭 노래가 처음에 3명, 4명 됐다가 8명까지도 늘었다가 꾸준히 한 사람은 한 3명에서 5명?

면담자 혹시 그분들 성함을 기억하실 수 있으세요?

변정섭 ‘4섭’이가 있었어요. 정섭이, 일섭이, 원섭이, 그다음에 원섭이 또 분명히 사섭이었는데? 김일섭이고, 박원섭. 그다음에 이름 기억나는 게 박은복도 기억나고,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아무튼. 원섭이는 그냥 맨날 원섭이 형. 저는 다 성을 안 붙이고 다 형. 제가 최고 막내였고 다 형님들이라 형! 형! 하면서 그냥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면담자 특징이나 차이 같은 게 있으셨어요? 노래패 활동하셨던 분들.

변정섭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지식을 갖고 활동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날라리로 같이 하는 사람을 구분을 했거든요. 마음속으로. 아무튼 몇 분 정도는 크게 운동권에 대한 지식 없이 그냥 데모하는 걸로 해서 같이 활동하는 걸로 하신 분이 있고. 제가 지금 얘기했던 분들은 그래도 간부급이 될 만큼 전문적인 공

부도 좀 하고 그렇게 되신 분들 같아요.

면답자 참소리라고 했을 때는 반주팀하고 노래팀을 같이 아울러서 말씀하신 거죠?

변정섭 예. 원래 그렇게 한 거예요. 자꾸 반주반, 노래반 그렇게 했는데. 제가 다 책임졌기 때문에 연습은 일주일에 한 번 다 같이 모여서 연습하는 거죠.

면답자 그러면 선생님이 참소리를 만들 때부터 회사 나올 때까지는 늘 노래패 대표셨던 거예요?

변정섭 아니요. 저는 막내라서 나이 드신 분 한 분, 그분을 따로 회장님으로 불렀었어. 노래도 잘 못하기는 하는데 나이 먹은 걸로 회장님을 시켰어요. 실제로 뭔가 안에서 결정하거나 회장처럼 해야 하는 건 저랑 일섭 씨랑 둘이서 하고 나머지는 그냥 회장, 총무. 실제로 편곡도 해야 하고, 교육도 해야 하고, 외부 활동도 제가 다 담당을 해야 됐고.

면답자 그럼 대의원은 몇 년부터 하셨던 거예요?

변정섭 대의원을 언제 했는지. 90 한 1-2년에 했겠죠? 노래패 딱 하고 나니까 ‘야! 너가 대의원 해라’ 해가지고 얼떨결에.

면답자 그다음에 문화부장을?

변정섭 네. 네.

참소리의 활동들

면담자 참소리는 89년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이어졌나요?

변정섭 지금 유튜브를 보니까요. 지금도 있더라고요. 3년 전인가 4년 전에도 유튜브에서 봤어요. 반주패는 안 보이고요. 우리는 반주패라고 안 하고 반주반, 노래반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죠.

면담자 반주반, 노래반. 숫자가 변동이 있었나요?

변정섭 반주 쪽은 없었고요. 노래하시는 분은 한 명 왔다가 가기도 하고. 왜냐하면 주간, 야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뽑아놓고 주간반일 때 맞으면 참석하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거죠.

면담자 주로 어떤 노래를 부르셨어요?

변정섭 노래 책 있잖아요? 상, 하로 돼 있는 거 그거를 달달달 달 했죠.

면담자 그러면 레파토리가 100곡이 넘으셨어요?

변정섭 50곡 이상은 됐겠죠?

면담자 매주 연습한다고 하면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변정섭 공장 안에 우리 연습실이 있었어요. 특히나 반주반은 죽자 살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문 지식이 필요한 거라 노래반보다는 많이 모인 것 같아요. 하루는 더 했겠죠. 다른 노래하시는 분보다. ‘이거 할 거야.’ 그러면 세

선도 맞춰야 되잖아요? ‘짠! 짠!’ 딱 끊었다가 ‘짜자자 잔’ 나가려면 노래하는 분은 그냥 와서 그냥 부르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맞춰야 되니까. 세션을 맞춰놔야 되기 때문에. ‘야 여기 여기서, 여기서, 끊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 도돌이로 이렇게 돌아가서 땅 끝낼 거야.’ 그렇게 하려면 한 번은 더 만나야죠.

면답자 반주반하고 노래반이랑 언제 만났는지 기억은 나세요?

변정섭 기억을 못하죠. 저녁에 무조건 퇴근해서 했을 거예요. 5시 퇴근이니까 남들은 잔업할 때 우리는 한 번은 잔업을 못 했죠.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잔업을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면답자 반주반 같은 경우는 잔업을 두 번 포기하신 거네요?

변정섭 그렇게 돼야 되죠. 다른 사람보다는 아무튼 잔업을 포기해야죠.

면답자 연습할 때마다 다른 노래를 배우셨어요?



참소리노래연습

변정섭 가장 많이 부르는 거를 중점적으로 쪽 훑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면담자 어떤 노래들이었을까요?

변정섭 철의 노동자에서부터 임진곡. 빠른 버전 느린 버전 해가지고 뭐. 그거에다가 또 ♪우리 마누라는 땡 띠리링~ 뭐 그런 것들. 생활 가요 같은 노동가요. 그런 거. 쪽 훑을 거. 한 20분. 해봐야 20분 하는 코스면 5곡이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번 하면 안 맞으니까 여러 번 하다 보면 한 2시간 하게 되죠. 나가면 뒷풀이해야죠. 저기 지하에도 있었어요. 노동자들이 모이는 술집. 무슨 쫄인가 있었어요. 대우자동차 안쪽 골목 쪽으로 가면 지하에 있었어요. 거기 가서 마시고 떠들고 그러면 저는 늘 기타가 갖고 다녔으니까 이쪽 테이블에서 노래 하면 그쪽 테이블 맞춰주고 저기서 하면 ‘야! 그다음에 저쪽 불러봐!’ 해가지고 그 술집 자체가 노동가요 부르는 거였죠. 그러니까 저는 늘 간 것 같아요. 그냥 다 아는 사람이고 노동가요면 다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술값을 내본 기억이 안 나요.

면담자 연습을 회사에 있는 공간에서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변정섭 한 2년 제가 문화부장 하면서 악기를 샀어요. 스피커하고 건반하고 드럼하고 싹 하고 나서 회사에다 요구해

서 연습실을 공연할 만한 크기 50명 이상 들어가는 공연 자리가 있을 수 있는 그걸 해서 회사에 있는 폐자재로 무대도 만들고 해서 연습실로 썼죠.

면답자 89년부터 90년대 초반까지는 인문연으로 가셨어요.

변정섭 예. 갔었죠. 동암역에서 십정동 쪽으로 오다 보면 그쪽에 중간쯤에 있었어요. 드럼하고, 베이스는 2년 뒤에 들어온 거니까 노래하고 저하고 둘이 하고. 기껏 해봐야 다섯 명 정도가 움직였었죠. 노래와 반주가 되는 때까지는 한 2년 이상 걸렸으니까.

면답자 왜 2년 걸렸어요?

변정섭 안 해주잖아요. 돈. 저 악기 사는 돈도. 제가 악기를 그때 기억으로는 건반을 겁 없이 사서 그때 350만 원짜리를 샀거든요.

면답자 노조의 형편이 되니까 그때 인원을 충원하신 거군요.

변정섭 악기하고 앰프를 계속 대여를 해서 쓰니까 ‘아예 우리가 사자!’ 해가지고 악기에 대해서 좀 아니까 낙원상가가서 앰프하고 베이스 기타하고 드럼하고 싹 세트로 다 샀죠.

면답자 가장 많이 행사와 집회 때 불렀던 노래를 10곡에서 20곡 정도 뽑으신다면?

변정섭 철의 노동자, 임진곡(임을위한행진곡의 줄임말), 그다음에 투쟁가.

면담자 투쟁가 중에서?

변정섭 투쟁가들이 너무 많은데

면담자 파업가? 노동조합가?

변정섭 그죠. 노동조합가?

면담자 그다음에 혹시 무노동 무임금을

변정섭 네. 그것도 많이 불렀죠.

면담자 단결 투쟁가. 당연히 많이 하셨을 거고. 연대 투쟁가도 가끔 하셨나요?

변정섭 연대 투쟁가를 많이는 안 한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다른 데 나갔을 때 외부 행사 때.

면담자 생활가요는 ‘포장마차’ 같은 노래 많이 하셨나요?

변정섭 그렇죠. 포장마차도 하고. 저는 제가 혼자 솔로로 부르라고 할 때는 제가 목에다 하모니카를 걸고 노래를 할 줄 알기 때문에. ♪가세 가세 내 조국 해방의 땅. 그거를 기타하고 하모니카하고 노래를 하면 그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느린 노래는 여럿이서 부르면 아우, 이게 화음도 안 맞으니까 짜증이 나요.

면담자 노래패에서 노래를 잘하는 분하고 못하는 분이 섞여있었던 건가요?

변정섭 다 섞여 있죠.

면담자 누가 노래를 잘하셨어요?

변정섭 일섭이가 최고 잘하죠. 김일섭이는 지금도 잘하고요.

지금도 창원에서 길거리 공연을 해요.

면답자 내부적으로 공연을 해야 되는 행사? 그런 건 언제였을까요? 파업할 때? 아니면 어떤 때였을까요?

변정섭 대부분 파업할 때는 내부 공연도 아니죠. 하라니까 하는 거고 집회할 때 노래패가 몇 곡 부르고 나면 풍물패가 나와서 풍물 공연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면답자 어디서 했어요?

변정섭 광장이요. 광장은 동문 아니 서문 들어가자마자 있는 곳을 광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면답자 문화부장 때는 앰프 설치부터 다 하셨던 거 아닌가요?

변정섭 제가 직접 했죠. 정밀 악기라 아무나 못하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1년쯤 해서 서로서로 도와주고 앰프 쫓고 하는 거는 각자 마이크도 하나씩 쥔기 때문에 제가 안 갖고 땡겼어요. 이제는 마이크는 네가 알아서 꺼. 단자에다가 누구누구 이름을 붙여가지고 각자 알아서 자기 거는 자기가 하기로.

면답자 파업 때 말고는 회사 노조에서 공연을 언제 하셨어요?

변정섭 제가 문화부장하고 나서 노동가요제를 개최 했거든요. 2~3년 정도에 회사 대강당 빌려서 했던 거는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때 제가 쓴 게 1800만 원으로 기억을 해요. 1800만 원을 그날 다 쓴 건 아니고요. 1년 예산 1800만 원이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탄 데 안 쓰고

안 쓰고 하다가 그때 좀 많이 썼죠.

면담자 노조에서 문화제는 계속 이어졌나요?

변정섭 그러고는 제가 그만둬가지고 이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있었으면 주구장창했을 텐데.

노동문화에 대한 고민

면담자 문화부장으로서 문화제를 만든 이유는 뭐였을까요?

변정섭 노동자라는 계층이 어떻게 살아가야 좋은 건지 저는 기타를 치면서 일반 음악도 해보고 해봤지만 제가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탄파라. 술집, 이런 걸 싫어했거든요. 공장 다니면서 술 한 잔을 먹어도 노래를 하더라도 퇴폐적이지 않은 제가 기독교 쪽에서 넘어온 그런 마음이 있어서 선한 노동자 문화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림도 돈 많은 사람만 그리는 건 아니니까. 그림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근데 많이 접해줘야만 되지 접하지 않으면 그런 문화를 모르잖아요. 월급 탔다고 술집에 가서 돈 많이 쓰고 그런 게 아니라 각자 취미 생활을 많이 할 수 있게. 노동조합에서 문화부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문화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게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면답자 선생님이 문화부장 하실 때 참소리 말고 풍물패가 있었나요?

변정섭 풍물패도 있고, 춤패도 있었고.

면답자 춤패는 이름이 뭐였어요?

변정섭 아, 기억이.

면답자 숫자는 몇 명 정도?

변정섭 한 20명 이상 됐었죠. 풍물패는 엄청 많았죠. 원래부터 있었잖아요. 풍물패는 그전부터도 있었죠. 입사를 해 보니까 데모하면 북 들고 나가고 장구 팽과리하고 그렁기 때문에 늘 있었고. 제가 했던 것 중에 문화부장할 때 했던 게 대천해수욕장을 문화패를 몽땅 다 거느리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한 50명 정도. 노래패, 풍물패, 춤패 해가지고 싸그리 다 가서 단합대회를 한 기억이 나요.

면답자 춤패는 몇 명 정도 있었어요?

변정섭 한 다섯 명에서 여덟 명 정도가?

면답자 이름은 기억나세요?

변정섭 제가 춤은 잘 몰라서. 풍물패의 김성갑 이외에는 제가 뭐 잘 기억을 못하죠.

면답자 춤패는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변정섭 없죠.

면답자 노조에서 파업 때 공연한다고 하면 따로 준비를 하셨

어요? 노래패에서?

변정섭 네.

면담자 어떻게?

변정섭 콘티를 짜야죠. 이번 주제, 파업 내용이 뭔지, 그걸 말하고, 떠들고, 말할 거 있으면 하고, 연작으로 부를 거는 메들리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노래를 하죠.

면담자 노릇다리처럼 단독 공연하지는 않으셨죠?

변정섭 그렇죠. 제가 경험이 적었던 거죠. 뭐.

면담자 노조 문화부장 할 때 노래패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있었나요?

변정섭 일단 재정 지원이라는 건 없고요. 패를 운영하는 운영비는 따로 지급을 안 하죠. 각자 회비를 내서. 그런데 큰 행사할 때는 노조에서 돈을 내고 몸은 가고. 돈 없는 노조들은 자기 돈 들여서도 활동을 하잖아요.

면담자 80년대 후반부터 노동운동이 활발해지면서 투쟁하는 노동자, 선진 노동자 이런 개념들이 들어왔잖아요. 선생님도 자기 인식이나 정체성이나 지향을 가지고 계셨던 건가요?

변정섭 그렇죠. 저의 양심의 출발점은 기독교였고 마음속에 ‘바른 생활’이라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술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제가 대우자동차를 때려친 이유도 그거였거

든요. 이렇게 이상한 술집에 그 간부들을 끌고 가가지고 그거 보고 나니까 딱 정내미가 떨어져가지고 제가 때려친 이유인데. 재미나게 소소하게 요즘 말로 하면 소소한 행복을 찾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크게 노동자 계급이 어찌니 저찌니 그런 거는 정의당이나 그런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치고, 내가 할 일은 모든 사람들이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거를 만들어주는 거. 그런 거에 더 소중하다고.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사는데 재미있어야 된다.

면담자 선생님은 노동 해방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변정섭 기독교적으로 ‘정직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한 만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다 안 따지더라도 남자 여자 구분하지 말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걸 가장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일했는데 지금도 화가 나는 게 그거예요. 대기업에서도 노조에서도 같은 라인에서 일을 하는데 재는 다른 회사니까 월급 적게 주고, 자기는 월급 더 많이 받고. 대기업 노조에서도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는 그걸로 말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제가 대우자동차 때려치고 나서 미용으로 가서 딱 첫 번째로 한 일이 미용사 노동조합을 만들었거든요. 그때 ‘시다’라는 그 이름을 버리고 ‘스텝’이라는 그것도 좀 별로이긴 한데. 수습사원이어야 되는데 용

어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찌 됐든 4대 보험 다 이루어졌거든요. 우리 미용 쪽도.

면담자 노래패 활동, 참소리 활동하실 때 연대 활동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바깥의 활동들은?

변정섭 우리 노조에 연대 부서가 있잖아요? 거기서 ‘어디 회사에서 지원 좀 해달라더라’ 그러면 ‘그래 가자’ 해서 달려가는 거죠.

면담자 앰프랑 들고? 그런 공연을 1년에, 전체적으로 몇 번 정도 하셨던 기억이 있으세요?

변정섭 1년이면 대여섯번은 나가죠. 특히나 부평 쪽의 사업장들은 대부분 할 때 앰프는 설치돼 있으니깐 가볍게 건반 들고 기타만 들고 가도 되고. 그냥 생목소리로 노래를 해줘도 되는 사업장들도 있으니깐 그렇게 가기도 하고. 옛날 우리 애들 엄마가 기독교병원 노조에, 마누라니까 가서 대신 해주기도 하고.

면담자 91년 92년이면 전노협이 결성된 뒤인데 인천 전노협 아니면 서울에서 전체 연대 집회가 있을 때도 참여하셨던 기억이 혹시 있으세요? 노래패로?

변정섭 노래패로? 제가 최고 크게 무대로 간 게 연대 노천극장에서 했던 건데요. 노동자 신문 주최 노동가요제인가? 그때는 개인적으로 반주자로 참여를 하고 노래패는 노래를 갖는지 아무튼.

면답자 인천 연합집회에서 이렇게 노래하거나 그랬던 기억은 없으세요?

변정섭 제가 기억이 참 안 좋아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그게 뭔 집회였는지 그냥 따라가서 무조건 했던 것 같아요. 그 때 부평역에서 할 때 당연히 우리가 갔죠. 그리고 서울도 단체로 가긴 했는데. 그게 내가 주관한 건 아니고 그냥 가자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 생각 비우고 살아서 그냥 가기는 많이 간 것 같아요. 여기 회사 다닐 때 5~6년 다닐 때 잔업을 해본 기억이 없어서.

면답자 91년, 92년, 93년 이 당시에 인천에서 활동했던 다른 노동조합의 노래패나 문화패가 혹시 기억나는 데가 있으세요?

변정섭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연합? 그랬기 때문에 그게 무슨 연합인지도 모르고 그냥 끼겨 섰던 기억밖에 안 나요. 저는.

면답자 노래패에서 세미나는 안 하셨어요? 소위 학습은 안 하셨어요?

변정섭 그런 건 안 했어요. 노래에 대한 그런 교육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책을 읽고 혼자 했지 그걸 앉아서 ‘토론해 봅시다.’ 이렇게까지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노래패 활동에 대한 평가

면담자 노래패 활동할 때 뭐가 좋으셨어요?

변정섭 저요? 일단 음악을 계속할 수 있다라는 것과 남한테 정의로운 거를 하는 거다라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남들이 보면 못하게 하는데 나는 월급을 깎여가면서도 내 할 일은 한다.

면담자 집에도 악기가 있었어요?

변정섭 많았죠. 고1 때부터 기타를 쳐서 군대에 있을 때도 기타를 쳤었고 기타 못 친 기간은 군대에서 훈련병 시절에만 못 해봤죠. 자대 배치 받으니까 기타가 있길래 겁없이 ‘쳐봐도 되냐?’고 해서 치라고 하니까 잘 치니까 계속 치게 해줬고.

면담자 노래패 활동은 잘 되는 편이었나요?

변정섭 엄청 재미나게 잘 돌아갔던 것 같아요.

면담자 어떤 게 재미있으셨어요?

변정섭 일단 노래를 만들기도 하는 것도 교육을 했거든요. ‘노래를 만들어보자. 우리’ 가사만 써봐. 가사 쓰고 작곡하는 방법은 내가 가르쳐 줄게. 작곡을 한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악보를 몰라도 된다. 악보 모르는 세계 최고 기타리스트들 많다. 그렇게 해서 노래를 엉터리로라도 몇 개라도 만들고 개사하는 거는 하도 많이 했

던 거라 노래 개사하는 거야 노동가요가 없던 시절에는. 우리 형이 나 때문에 지역 노조를 하는 바람에 형한테도 노래 개사하는 거, 노동가요 이것도 가르쳐주고 했었죠.

면답자 어려운 점은?

변정섭 모르니까요. 활동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나이는 어리고 그래서 음악이 좋아서 했던 건데 음악도 불만이라면 왜 노동가요는 쟁의가만 노동가요라고 하지 ‘헤비메탈 노동가요는 있으면 안 되나?’ 그런 불만은 있었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런 팀이 있더라고요. 전문팀이. 천지인! 네. 천지인 노래열사의 그거 따라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내 실력으로는 그런 가사도 못 쓰겠고 그렇게 전문적인 메탈 음악을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아쉬웠어요. 왜 나는 못 외우지? 진짜 공부를 못해. 기타를 50년을 쳤는데도 외우는 악보가 없어요.

면답자 전문적인 실력의 부족 같은 게 제일 아쉬우셨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셨을까요?

변정섭 다른 분들은 노래를 잘 부르고 싶다는 건 김일섭이 하나였고. 나머지들은 고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드럼도 ‘이렇게 이렇게 쳐라’ 그러면 ‘네’ 하고. 그냥 똑딱똑딱 따라 쳐주고. 베이스 기타도 술집에

서 음악하던 친구라서 ‘아니야. 그거 리듬 약간만 좀 살려줘’ 그러면 ‘알았어’ 하고.

면답자 활동하셨던 5년을 단시간에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노래때 활동을 하면서 느끼고, 깨닫고, 배운 점이 있으신다면 뭘까요?

변정섭 뭔가를 이렇게 꾸려나가서 전문적으로 해본 그 경험. 제가 이렇게 어리긴 하지만 어찌 됐든 팀을 이끌어 보고 해보니까 사회생활하면서 미용을 하면서도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이화여대 평생교육원 수료하고 교수도 해보고 많이 방송을 찍기도 했는데 안 떴다 그러더라고요. 남한테 우물쭈물하지 않는 걸 배운 것 같아요.

면답자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변정섭 굳이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면답자 노래 가사를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거나, 도덕적인 삶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영향도 있었나 싶어가지고요.

변정섭 ‘잘린 손가락’ 들으면 가슴 아프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가리봉 공단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주물공장 가 보면 진짜 그 시절에는 보이지도 않았잖아요. 공장 안이. 주물이 팍 불꽃 튀고 까만 연기.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그런 거 보면 제가 교육을 많이 받지는 않았어도

내가 열심히 해서 벌어먹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세상. 그런 거를 많이 원했어요. 지금도 손님한테 비싸게 못 받아. 내가 한 만큼 있잖아요. 제가 커트를 3분이면 깎거든요. 3분 만에 깎고 어떻게 2만 원을 받아요?

면담자 노래패 활동하면서 엄청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없으신 거예요?

변정섭 매일 그날이 그날이라서. 딱 한 가지 기분 좋았던 건 평생에 아마 단독 콘서트 한 사람 없을 거잖아요? 저는 했어요. 대우자동차 댕길 때 토요일인가? 최도은이도 공연하는 날인데. 하필이면 그날 내 공연 날짜랑 겹쳐서 최도은이 공연이 망쳤어요. 그날 ‘몇 명 왔냐?’ 그러니까 최도은이 5명인가 왔대. 그게 자작곡 발표한 첫 번째이면서 마지막이에요. 교회 있잖아요? 백마교회인가? 거기 대우자동차에서 쪽 올라오면 있던 그 교회. 목사님한테 석유 한 통 사주고. 대관료. 그때가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 작곡했던 거를 썼던 거잖아요. 그때는 노동가요라는 개념 없이 내 마음으로 쓴 거잖아요. 여기서 왜 사느냐 묻길래 이렇게 말하지요. 이러면서 주절주절했던 것들을 밴드로 해가지고 했던 거. 저는 일반인 중에 그래도 단독 콘서트 해본 한 사람이지 않을까? 그날 구경 온 사람이 한 50명 정도고요. 반주자만 왔으니까 제가 건반 치면서 노래를 했기 때문에 단독

콘서트였죠. 1시간 정도 했을걸요. 창작곡하고, 노동가요하고 섞었죠. 그래도 창작곡을 5곡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으로는.

면답자 개인적으로 특히 좋아했던 노동가요가 있으세요?

변정섭 가세 가세 내 조국...(노래 ‘끝내살리라’의 첫부분)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Em(이마이너)로 시작을 하고요. 국악풍의 노래를 좋아해요. 은자동아 금자동아 그런 노래도 좋아하고. 노래 제목 떠오르면 기타 코드는 다 떠올라요.

면답자 노동운동도 하셨고. 노동자 문화운동도 하셨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노동자들의 노래패 활동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드세요?

변정섭 일단 집회 활동이 가장 중요하고요. 실질적으로는. 노동자 노래패가 해야 할 일이 그 투쟁할 때 그 공연을 담아내야 되고. 자기들 생활이 깨끗해야 남들한테 활동이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많이 주문을 했죠. 생활할 때 회사 생활할 때도 그렇고 나쁜 짓 하지 마라. 제발 좀. 음담패설도 하지 마라. 가능한 한. 미용사다 보니까 남자들 만나면 너무 힘든 게 그거예요. 접속사, 접두사 빼고 나면 다 욕인 거. 그래서 대화하기가 힘들어서 제발 그런 거 하지 말고 얹전히 잘 살자. 제가 늘 주장하는 게 그거죠.

면담자 노동조합 활동을 중단하시고 나서도 지역에 있는 분들과 관계를 맺고 사신 것 같던데.

변정섭 예. 지금까지도. 중간 중간에 기타 공장 파업하고 이전 거부하고 할 때도 꾸준히 가서 머리도 깎아준 기억도 나고 천성인 것 같아요. 대우자동차 때려 치고 김창곤 이랑 여기 성당에서 데모할 때도 우리 직원들 데려다가 머리를 깎아줬거든요. 앞에서 쪽 데모하고 우리는 앞에서 머리 깎고. 한 명 깎으면 다른 분.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머리 깎는 거니까 와서 맨날 계속 데모를 같이 해줄 수는 없고 그럼 내가 할 일 하자. 그래서 우리 직원들 데려다가 머리도 깎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안 끊어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왔다리갔다리 해서. 그리고 지금도 버스킹을 해요. 미용사 악기 취미 모임이라고 네이버 밴드인데, 그 친구들이랑 한 달에 한 번씩 요양원 가서 머리 깎아주고 공연해주고. 전국 경기도 어디로 갔다가. 저쪽 동두천도 갔다가 이런 식으로.

면담자 지금도 계속 사람들과 연결하고, 음악하고 하시는 모습이 참 좋네요... 그럼, 이것으로 변정섭님과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병철

대우중공업 노래패 ‘노뚝다리’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면담 일시	2024년 9월 30일 월요일 19:00-20:40
면담 장소	부평 생활문화센터 2층 스튜디오
주요 이력	학력 충남 기계공고 졸업 주요 경력 대우중공업 입사(1985년) 노뚝다리 노래패 시작(1989년) 대우중공업 노동조합 쟁의부장 대우종합기계 지회 조직국장
핵심어	대우중공업, 노동조합, 노래패, 노뚝다리, 노동가요, 최도은, 손동혁, 정기공연, 철의 노동자, 김기욱

*** 대우중공업**

대우그룹의 중공업 부문 계열사로 인천 동구 소재. 1930년대 일제에 의해 조선기계제작소로 설립됨. 1970년대 대우에서 인수해 대우중공업으로 계속 공장 가동을 하다가, 2013년 분할 매각되어 해체 됨.

오병철 녹취문

구술채록 시작

면담자 오늘은 대우중공업 노동자 노래패 노뚝다리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병철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9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오병철 예. 예. 시작합니다.

가족 관계와 성장과정

면담자 일단 언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오병철 태어난 건 충청남도 금산군.

면담자 몇 년도에?

오병철 66년 1월 25일 그렇게 되죠. 생년월일은.

면담자 가족들은 어떻게 되세요?

오병철 가족은 삼남 삼녀. 큰 누님이 정확히 나이는 아마 75세는 넘은 것 같은데, 제가 넷째. 내 밑으로도 둘 더 있고 그래요.

면담자 부모님은 뭘 하셨을까요?

오병철 부모님은 그냥 농사지으셨죠. 19년도에 아버지 돌아

가시고, 22년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런데 두 분 다
그냥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셨죠.

면담자 금산 토박이?

오병철 그렇죠. 토박이.

면담자 부모님은 벼농사하셨어요?

오병철 그렇죠. 벼농사도 하고 금산 인삼을 많이 하니까 인삼
농사 많이 지고.

면담자 그럼 어렸을 때 많이 도와드리고 그러셨겠네요?

오병철 도와주는 것보다 끌려가서 일했지요, 뭐. 하기 싫은 거.
(웃으며 물 한 모금 마신다.)

면담자 그럼 선생님은 초, 중, 고등학교 다 금산에서 나오시고
요?

오병철 중학교까지는 금산서 다니고, 고등학교는 대전에 있는
기계공업고등학교 거기 나오고.

면담자 그러다가 올라오셔서 노동자가 되셨는데 청소년기에
는 어떤 청소년이셨어요?

오병철 좀 놀기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공부는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시험 볼 때만 벼락치기 한 일주일 있다가 그때
공부하고, 그렇다고 막 이렇게 꺾렁꺾렁 그런 쪽에 완
전 불량은 아니지만 약간 그러고 다녔던 것 같기도 하
고.

면담자 그때도 음악을 듣고 하셨어요?

오병철 아니요. 음악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라디오밖에 없으니까 사실 아버지가 항상 국군의 방송을 들으셨어요. 옛날에 국군의 방송 많이 했잖아요? 군가 나오고 어려서 국군의 방송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면답자 중고등학교 때 서클이나 이런 걸 하지는 않으셨구요?

오병철 예. 예. 그런 서클 활동은 한 번도 안 하고.

입사와 대우중공업 회사 상황

면답자 고등학교 졸업해서 바로 올라오서 가지고 처음 입사한 게 대우 중공업이었던 거죠? 85년에 입사하실 때 어떠셨어요? 기대를 많이 품고 가신 건가요? 어떻게 대우에 입사하시게 된 거예요?

오병철 저는 이런 회사가 있는 것도 몰랐었고, 그때가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여기 와서 면접을 본 거거든요? 집에서 놀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선생한테서. 물어 물어서 면접 보라고. 그래서 얼떨결에 올라가서 면접 본 거예요. 내가 막 찾아다닌 것도 아니고 얼떨결에 면접 봐서 그냥 돼갖고 ‘다니자!’ 하고. (작은 소리로 웃는다.)

면답자 그러면 그전에는 취업도 할 준비를 안 하고 계셨어요?

오병철 아! 그렇죠. 특별하게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떻게 되겠지? 뭐!’ 그랬었고, 그 당시 때는 시험 보고 그런 거 없었으니까. 아마 학교 생활기록부하고 성적 그런 거 떼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뭐 가족관계증명서? 그 정도? 그 당시 때도 6명인가 면접을 봤는데, 3명은 안 되고 3명은 되고

면답자 그 당시에 대우중공업 이 회사가 월급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

오병철 임금은 그때는 뭐 상, 중, 하는 잘 모르겠고 그냥 옆에 있는 회사보다 많지는 않았어요. 중소기업들하고 임금이 비슷비슷했어요.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면답자 지난번에 인터뷰하실 때 노동조합은 그 당시에 어용 노동조합이 있었어요.

오병철 그렇죠. 그 당시에도 노동조합은 한국기계 때부터 초창기부터 있던 노동조합이었나 봐요. 그래서 노동조합 이랑 회사랑 역사가 거의 비슷해요. 저는 노동조합이 있는지도 몰랐지만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면답자 처음에는 노동조합 활동은 딱히 하지 않으셨던 거죠?

오병철 그렇죠. 특별히 노동조합 활동은 안 했죠. 그냥 회사만 왔다 갔다 하는 일반 조합원인거죠.

기타반에서 시작한 노래패

면담자 소위 민주노조 쪽이랑 가까워진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오병철 그 계기가 처음에 노래패 들어오면서부터 그렇게 사실 가까워진 거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친구가 ‘기타 동아리 만들자!’ 그래서 또 ‘너 기타 좋아하잖아?’ 그래서 ‘아! 그래. 기타 동아리 좋아!’ 그래서 그렇게 결성된 게 이 노래패였던 거죠

면담자 풍물패에서 2명이 파견돼 가지고.

오병철 예. 우리는 처음엔 몰랐죠. 처음에는 그렇게 파견된 건 모르고 나중에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라고 안 거죠. 처음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기타반에서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노래도 배우면서 기타도 치자!’ 그러면서 노래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면담자 노래패 쪽으로 파견되신 분이 누구셨어요?

오병철 그때 정래영이라는 친구하고 이석건 친구하고. (물 한 모금 마시며) 이석건 친구는 나갔고, 정래영 친구는 계속 남아 있었고. 풍물패, 노래패, 대노회(대우중공업노동자회) 다 했었죠.

면담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선생님한테 누가 와서 이렇게 작업을 하셨어요?

오병철 정래영이라는 친구가.

면담자 90년에 6개월 동안 준비해가지고 창단했다고 하던데
그때부터 같이 시작하신 거예요?

오병철 그렇죠. 초창기 멤버부터. 사실 그때는 민주라는 거 그런 걸 잘 몰랐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편하고 좋은 사람들 정도로. 그 당시에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저는 크게 관심이 없었죠. 그런 쪽으로. 처음에는 그냥 편안하게 동아리 활동처럼 편안하게 기타 배우고 노래나 배우고 그 정도로 생각하고 시작을 했던 거죠. 처음에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사가 시사적인 문제들도 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이제 좀 배워보자. 학습을 좀 해보자. 역사를 공부하면서, 역사도 노동조합의 역사가 됐고 농민 농민항쟁부터 해서 역사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하고는 틀리게 받아들이고. ‘아! 이런 역사가 있었나?’ 깊게는 공부 안 했지만 ‘이런 게 있었네. 저런 게 있었네.’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나도 모르게 서서히 녹아났던 것 같아요. 사실 잘된 거일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래패에서 활동한 멤버들

면담자 그럼 처음에 여덟 분이 누구셨을까요? 일단 정래영, 이석건 그다음에 선생님.

오병철 이주현은 아니고. 김철수 그리고 김기욱.

면담자 강원덕, 금종서 씨는 아닌가요?

오병철 좀 늦게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허창구. 윤 뭐지?

면담자 조창원 최은정 씨도 늦게 들어온 거죠?

오병철 그렇죠. 늦게 들어왔어요. 그거보다 조창원, 최영주는 늦게 들어오고 (계속 노뚝다리 백서를 뒤적거리며) 여기 이제 1대 회장 김철수. 아! 윤재근 윤재근!!

면담자 아~ 윤재근. 여기서 지금 김철수, 윤재근, 오병철, 김기욱, 허창구, 정래영, 이석건. 그렇게 8분?

오병철 예. 그 정도.

면담자 그럼 이분들은 나머지 여섯 분을 이렇게 꼬신 거예요?

오병철 사실 그 철수 형 같은 경우는 아마 대노회 했었나? 아마 그랬던 거고요. 김기욱 씨나 이런 분들은 활동을 했던 분들이고. 근데 처음부터 저기도 누구야? 신, 신기영이라고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그냥 몇 개월 하다가 그만뒀어. 안 맞는다고

면담자 그렇게 해서 8분이 창단을 하셨는데, 이 6명은 다 정래영 씨하고 이석건 씨가 작업을 해 가지고?

오병철 그렇다고 봐야죠

면담자 처음에는 기타만 치고 노래만 부르셨던 거? 가볍게?

오병철 처음부터 기타를 배운 적이 거의 없어요. 조금만 하고는 거의 노래 가르치고 처음부터 시사적인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면담자 멤버들 한 분 한 분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오병철 철수 형은 60년생인가? 61년생인가 그래요. 이 형님이 61년생이라 퇴직하셨고, 이 형님도 성격 조용조용하시고 노래할 때 음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저음만 잘하시는 분이시고. 윤재근. 재근이 형은 노래도 잘하시고, 말도 잘하시고. 재근이 형이 우리 노래패 할 때 부평공단 쪽에 사무장 하시는 분하고 연애를 했어요. 그래서 파업할 때 그쪽 몇 번 가서 노래도 부르고 이제 기억이 나요. (웃으며) 아마 회사 이름 얘기하면 다 알 텐데 좀 오래됐고, 기억은 못 하겠고요. 회사 이름은. 기욱(고 김기욱)이 형은 그동안 쪽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사실 어찌 보면 나중에는 인천뿐만 아니라 우리 노래패에서도 이분이 꼭 잡고 가는 그런, 흐트러지면 잡아주고 흐트러지면 잡아주고 그런 역할을 많이 했던 분이시고요. 최현종? 이 형님도 놀기 좋아하고. (웃으며) 이빨 세고, 말발 세고, 하여튼 고집도 있고. 창구형은 뭐든

지 열심히 하는 사람!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뭘 해도. 빈틈없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조금 이
렇게 옆으로 새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 용납 안 되는
사람. (웃으며) 바른 생활 사나이. 주현이 형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죠. 그냥 열심히 하고. 우리 강원덕님은, 이
형도 노래는 내가 볼 때 윤재근하고 강원덕하고 노래
제일 잘하는데, 아마 강원덕 형이 좀 더 노래를 잘하는,
김광석 노래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시고요. 이 형은
독창 부분이 좀 많았죠. 인철이 형은 이제 지르는 노래,
아주 파워 있는 노래 있잖아요? 그냥 그런 노래를 좋아
했고, 좀 잘했던 거고. 원덕이 형은 그냥 그 발라드. 조
창원 씨는 그렇게 오래 안 했던 것 같아요. 금중서도 그
몇 년 했나? 늦게 그 친구도 늦게 오래 하긴 했어요. 울
동패 하다가 노래패 들어와서…….

면답자 그분들 말고 혹시 또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오병철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양순부라는 친구도 있어요. 양
순부라는 친구는 회사를 운동부로 들어왔다가 육상을
엄청나게 잘했던 친구예요. 이 친구는 몇 개월 안 했지.
악기는 허창구, 창구 형이 거의 기타 대고 하면 반주하
면서 거의 옆에서 반주만 해주고 그런 역할을 많이 했
죠.

면답자 나중에 보니까 다 노조에서 활동들을 다 하셨더라고

요?

오병철 예. 허창구는 문화부장을 했었고, 이주현도 조직부장, 조직실장까지 해서 조직국장이 했었고, 강원덕은 홍보국장, 김기욱은 복지국장 그렇게 주요 요직들을 많이 맡고 있었죠. 현장 실무를 담당했던 분들이죠. 다.

면담자 지속이 된 문화패는 2개였나요? 풍물패하고 노래패?

오병철 그렇죠. 노동조합 활동 속에서 운영되는 문화패는 사실 2개밖에 없었다고 봐야죠.

노래패 연습 과정

면담자 처음에는 연습을 이제 일꾼 교회에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오병철 예. 예. 예.

면담자 거기가 이제 인문연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이 됐던 건가요?

오병철 그전에 활동했던 정래영이나 이런 친구들이 그쪽하고 계속 연관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쉽게 빌렸던 것 같아요.

면담자 그 당시 위치가?

오병철 우리 회사랑 가깝잖아요. 걸어갑니다. 걸어서 10분이면 가니까.

- 면답자 거기 가면 강사분이 기다리고 계셨던 건가요?
- 오병철 거의 뭐 동시에 갔나 그랬던 것 같아요. 시간 맞춰 오니까.
- 면답자 같이 노래 부르고 연습은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 오병철 가면은 반갑게 인사하고 처음에 몸 풀기. 몸부터 풀고 몸 풀고 입 풀고. (직접 입을 푸는 소리를 내시면서) 안 돼! 안 되네요! 안 되는데요? 이제 안 떨어지는데? 입 이? 안 떨어지네요. 오래 안 떨어졌잖아요? 입 털고 ‘아! 에! 이! 오! 우!’ 연습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배웠던 노래 한 번 부르고, 이제 오늘 부를 노래 강사 한 번 부르고 한 소절 거의 한 소리를 따라하기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 면답자 최도는 씨가 처음에는 건반 치면서? 아니면?
- 오병철 건반을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거의 기타로 많이 했죠. 건반을 안 하고.
- 면답자 그러면 보통 연습하면 2시간 정도 하셨나요?
- 오병철 한 1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연습은 그 정도 하고 또 전체로 따지면 한 2시간 정도?
- 면답자 그럼 나머지 1시간은?
- 오병철 이제 이것저것 정세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다음에는 뭘 하자 그렇기도 하고.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시사 얘기

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철학책 책 같은 거 하나 가져와서 ‘책을 다 읽고 오자!’ 그래서 책을 사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노래패의 활동

면답자 처음에는 활동이 많지 않았다가 차츰차츰 활동이 많아지는 식이었던 거잖아요? (노뚝다리 백서를 같이 보면서) 결성을 하고 처음부터 인천에 있는 집회나 전국노동자대회 가셨는데 기억들이 나시나요?

오병철 전노협 노래패를 참가했을 때가 아마 연세대에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연세대에서 그때 단병호 위원장님 전노협 위원장이었죠? 전노협 위원장이면서, 수배 생활하실 때 그때였던 것 같아요. 실내에서 문화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웅성웅성대니까 뭐가 막 들려요. 오신다고! 그때 난리 난 적이 있는데 단병호 위원장님 멋있게 입장할 때 우리가 신나게 전노협 진군가라고 불렀던 기억이 가장 기억에 남긴 해요. 노래패 활동하면서.

면답자 연습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셨죠?

오병철 예. 일주일에 한 번

면답자 언제부터 노조 사무실로 들어오셨어요?

오병철 우리가 대우중공업 문선대 활동을 했잖아요? 92년부터
는 안에서 했을 것 같아요.

면답자 그러면 이런 활동들을 할 때는 어쨌든 노래패에서 회
의를 해서 결정을 하신 거죠?

오병철 그렇죠. 예.

면답자 그러면 결정해서 안 한 경우도 있었나요?

오병철 거의 안 하는 경우가 없던 것 같아요. 어디서 들어오면
거의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데 당
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분위기가 그래서.

면답자 불이익도 불이익이지만 야근이나 철야를 못하면 수입
이 차이가 생기는 건 아셨잖아요?

오병철 아! 그렇죠. 제가 88년부터 같이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많이 싸우기는 했죠. 임금 차이가
많이 나니까 다른 옆 사람들하고 차이 나고 비교되고
그러니까. 근데 그냥 몰라. 그때는 왜 무슨 저기로 했
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크게 웃으며)
40%대까지는 아니고 그 당시에 잔업 수당만 안 한 거
니까.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일 있으면 못 하는 거죠.
평일 때는 거의 다 하죠. 이제 노래패 강습 날만 안 하
고 토요일 일요일도 어디 가야 된다 그러면 빠지는 거
고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예 안 하지 않고
이때는 잔업을 하루에 3시간씩 할 때거든요? 그럼 우

리가 그때 8시에 출근해서 5시 반에 끝나요. 아니다 5시. 5시에 끝나 3시간 더 잔업을 하면 저녁시간 30분. 3시간 더 하면 8시 반. 8시 반에 퇴근 시간이었던 것 같아. 그렇게 퇴근하고.

면담자 노래는 어떤 노래 주로 많이 부르셨어요?

오병철 그때는 거의 투쟁가 쪽을 많이 했던 것 같아.

면담자 투쟁가 중에 기억나는 노래 제목들이 있으신가요?

오병철 단결 투쟁가는 당연히 배웠던 거 같고. 그 사랑한다 현대중공업. (제목을 말하고 한 소절 부르며) ‘사랑한다 현대중공업’. 그때 한참 골리앗 투쟁하고 그럴 때라 그런 노래들 노래는 많이 배우긴 했는데 딱 물어보니까 딱 생각나는 건 없네요.

면담자 그럼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가 뭐세요?

오병철 아! 단결투쟁가하고 철의 노동자죠. 아무래도.

면담자 그래요? 파업가나 노동조합가는 덜 불렀나요?

오병철 파업가도 무조건 파업하면 부르는 거니까 그건. 동지가 그런 거. 투쟁 투쟁하면서는 거의 다 비슷비슷 했던 것 같아요. 불나비 같은 거 하고 진짜 노동자 2, 3? 진짜 노동자 2, 3가 맞나? 그 노래 많이 했죠. 무노동 무임금으로 자본가에게 그 노래도 많이 했지. (멋쩍게 웃으며 책을 만지면서) 우리는 막 뒤져야 돼. 노래들 보면 막 뒤져야 돼. 기억도 안 나요. 포장마차도.

면답자 꽃다지 노래도 좀 부르셨나요? 전화 카드 한 장이나?

오병철 예. 꽃다지 노래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면답자 노래 부르면서 율동도 하고 그러셨어요?

오병철 율동은 거의 안 했죠. 그냥 이렇게 노래만. 옛날에는 전국 노동자대회면 전국적으로 경연대회식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천지역 노래패, 풍물패, 율동패가 모여서 같이 연습하고 해서 올라가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멋있게 군무도 좀 하고, 뭉쳤다 멀어졌다도 하고. 그런 걸 좀 해서 한번 올라가고 몇 번 그랬던 것 같아 인천 팀에서.

면답자 학습은 초창기에 하셨다고 했는데, 시간이 흐른 뒤에는 학습은 별로 안 하셨나요?

오병철 학습은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책을 읽어오자 해서 그런 것들은 꾸준히 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노래패하고 인천지역 노동자 노래패 ‘철의 노동자’를 만들면서 그 속에서도 학습들도 진행을 하고.

면답자 선생님이 사무국장이셨죠? 철의 노동자?

오병철 아니요. 저는 첫 해 대표 한 번 했었고. 우리 노뚝다리에서 말아야 된다고 그래갖고. 철의 노동자 대표가 아니라 그때는 인천지역 노동자 노래패 연합에 그렇게 만들었다. 철의 노동자가 아니라 인천지역 노동자 노래패 연합에서 신광기업이라는 회사도 있고 몇 개 회

사가 있었어요. 노래패들이. 그래서 그 노래패들을 노래선언 한창 활동할 때 결합을 해서 좀 운영했죠. 한 3~4년 정도.

면담자 몇 년부터 몇 년 정도까지 하셨어요? 인천지역 노동자 노래패 연합?

오병철 이게 노래선언이 생기고 진행을 했으니까 아마 92년도나 93년도에 했을 것 같은데? 93년도부터 했을 것 같거든요. 인천지역 임투전진대회 이런 데 가서 했던 것 같고 기억 잘 안 나네. 갑자기. 철의 노동자 만들기 전까지는 쪽 했던 것 같아.

면담자 철의 노동자가 몇 년부터인데요?

오병철 95년부터 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냥 만나기만 하죠. 이름만 있고 사실 활동 못 하고.

면담자 그러면 외부 강사가 최도은 씨에서 손동혁 씨로 바뀐 건 언제예요?

오병철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동혁이로 바뀐 게 동혁이가 대학교도 2학년 때나 그 정도에 우리랑 합류했던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면 개가 2학년 때면 85, 87. 어? 초반기에 금방 합류하긴 했네. 좀 하다가. 그러니까 노래선언! 노래선언 할 때는 그러면 한 91년도부터 그러면 동혁이가 했네. 노래선언하고서 동혁이가 들어왔나? 만들고서 들어왔나? 처음에는 둘이 같이 들어오다가 한동

안 같이 들어오다가 아마 노래선언 개소식하고 나서부터는 동행했던 것 같아요. 92년도 정도부터? 91년도부터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최도은 씨가 1년 정도 주축을 했었고, 그 다음에 동혁이가 맡아서 했던 거 같아요.

면담자 재밌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총회를 늘 하셨어요? 누가 하자고 하신 거예요? 총회를 해서 평가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는 누가 다 주도하셨나요? 다 김기욱 씨가 하신 건가요?

오병철 나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잠시 생각하고) 누구라고 딱히 말하기가 좀 그런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무조건 총회 하면 무조건 가서 평가하고 계획 잡고 하여튼. 항상 자료를 만들어서 회의를 했어요. 총무가 이렇게 기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총무가 기록을 하고 이때 보면 최현종 씨가 그런 것들을 좀 잘했어요. 쓰고 하는 것들을. 강원덕 씨도 홍보부 사람들 그런 것도 잘하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면담자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료가 좀 얇아져요. (백서를 뒤적이며) 하반기에는 97년 이때부터는 총회 자료가 엄청 짧아져요.

오병철 네. 짧네요. (백서를 보면서) 아마 이걸 하기 싫고 하기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할 일이 많은 거보다 그

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 ‘야 총회 맨날 해서 뭐 하나? 똑같은 얘기 똑같은 건데?’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면답자 실제로 이 연보를 보면 95년 이후가 훨씬 일이 많긴 해요. 공연도 훨씬 많이 다니시고 여기 보면 여기 몇 줄인데(백서의 한 페이지를 가리키며) 95년부터는 되게 많아져서 되게 힘드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오병철 정말 우리 때는 거의 매주 어디 갔던 것 같기도 하고 많이 가긴 했어요.

면답자 이렇게 푹푹 뭉칠 수 있는 비결이 있었나요?

오병철 그땐 안 가면 죽음이라. (웃으며) 진짜 안 가면, 안 가면 몰라도 그때는 그냥 가야 돼.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가야 돼.

면답자 충실한, 투철한 노조 활동가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오병철 근데 우리가 이때 그전부터 같은 평가를 많이 했던 것들이 ‘야! 우리가 왜 활동을 하나?’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야! 우리 같은 삶을 우리 밑에 우리 아들 자식까지 이렇게 물려주지 말자!’ ‘우리가 좀 더 좀 열심히 해보자!’ 그런 것들이 항상 으샤으샤 했던 계기 같아요. 살면서 계속 노래패 활동하면서 내가 왜 하고 있지? 그때 평가라든가 되새길 때 항상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내가 활동을 왜 하고 있었는지. 한 번 되새길 때 그러면 ‘앞으로 내가 어른이 됐을 때 우리 자식은 나같이 우리처럼 이게 억압받으면서 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좀 자유롭게 살고 일한 만큼 받아 받고 그렇게 살게, 우리가 앞에서 사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면담자 그런 부분들이 스스로 다짐이 잘 안 되면 나가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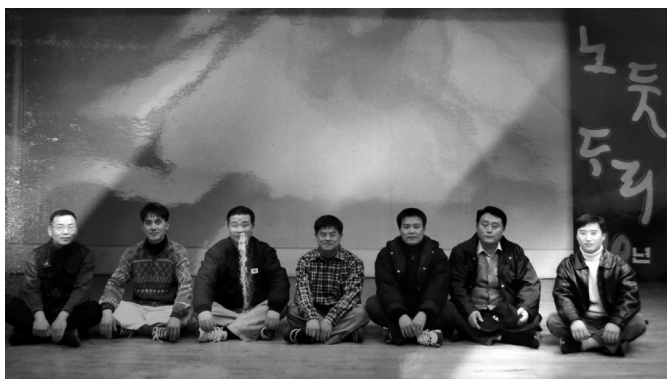
오병철 그렇죠. 그런 다짐이 안 되면 나가기도 하고. 사실 힘드니까. 근데 전노협 때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나 보면은 뭔가 긴장도 많이 하고 긴장 엄청 해야 되잖아! 가면 막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그 대회장 들어가려면 산 넘어가든지, 고생도 하고 들어가고. ‘여기야!’ 그러면 갑자기 뛰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활동했던 게 무섭긴 하지만 지나보니까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민주노총 합법화되고 그러면서부터는 풀어놓으니까 사람이 더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활동은 편하기는 했는데 그런 긴장감들이 없으니까 느슨해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게.

면담자 언젠가부터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맞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으셨어요?

오병철 그 맞아가게 된 계기들이 총회, 총회 가서 치열하게 붙고 그러면서 좀 맞아가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면담자 여기 보면 이제 원덕 씨가 ‘노뚫다리를 10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은 뭘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생님 말씀하셨네요. ‘다 한 번씩은 그만두고 싶어 했는데 그만두면 내 삶이 남들에게 부끄러운 삶이 될 거라는 두려움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닐까?’라고 길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오병철 그렇죠. 좀 중요했죠. 활동에. 나도 몰라요. 언제 중요했는지. 사실 그냥 살면서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까도 그 말씀드렸잖아요. 내 활동이 우리 그 자식들한테만 큼은 건강하게 살게 하고 싶다.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노뚫다리10주년공연

노래패와 노동조합 활동을 겸하다

면담자 그럼 노동자이기도 하지만 노동운동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활동을 하셨어요?

오병철 노동운동가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쟁의 부장은 그냥 앞에서 이끌고 뭔가를 사람을 규합하고 그런 걸 해야 되겠다고 내가 노동운동가라고 하고 활동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운동을 한다고 생각한 적은 거의 없어요. 주위에서 해달라는 부탁도 있었고, 노래하면서 그런 열정들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무나 시키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시키면 열심히 하고 그래서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노동조합이라는 데는 안 들어가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노래패 활동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활동할 것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더라도, 노래패 활동할 때도 그냥 뭐 할 건 다 하는데, 또 어찌 하다 보니까 총회에서 ‘야 이번만큼은 이제 무조건 요청하면 다 들어가자!’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내부적으로. 노동조합에서 역할을 주면 가서 충실하게 하자. 서로 빠지 말고. 또 그렇게 결정이 돼서 저한테 쟁의부장 제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쟁의부장을 했죠. 쟁의부장하고 조직국장하고 그렇게.

면담자 가장 힘든 역할 아닌가요?

오병철 힘든 역할이긴 하죠. (웃으며) 사실 쟁의부장 때는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사회만 보고 사람만 규합하면 되는데, 조직국장은 전체를 통솔하고 계획을 짜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힘들긴 했죠.

면담자 총회 자료나 이런 거 봐도 일이 너무 많고 겹직하고 이러니까 노래패에 집중하기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고. 결혼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회사에서 노동자들의 분위기도 바뀌고 그러면서 노동조합에 대한 열의 같은 것도 서서히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노래패 활동하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기억이 나시나요?

오병철 와이프하고 금전적인 문제 그런 거 싸우는 거 하고 (한참 생각하더니) 그런 문제가 있던 것 같은데 회사 생활 하면서는 별로 안 힘든 것 같아. 왜냐하면 회사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아예 안 건들잖아요. ‘재는 아예 그런 애!’ 하고, 대부분 부서 이동도 많이들 시키는데 저는 부서 이동을 거의 안 했어요. 받는 데가 없어서. 제가 일도 되게 열심히 하는데 재는 사상적으로 안 좋은 애라고 소문이 나갔고, 전혀 그렇지 않은데 물들일까 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야! 그냥 물드는 데만 물들게 해!’ 회사

정책인지 그런 것도 있어 갖고 부서 이동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노래패 시작하면서는 찍혀서 산 업차량 본부에서 엔진 사업본부로 한번 쫓겨났었고, 그리고는 한 자리에서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면답자 활동을 보면 처음에는 내부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다가 나중에는 연대 활동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오병철 아무래도 우리만 하다가 아까 말했듯이 인천지역 노래 패연합도 만들고 철의 노동자를 만들면서 다른 사업장들이 같은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파업 터지면 ‘당연히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바로 조퇴 먹고 바로 나가고 이제 우리도 하니까 우리가 하면 옆에서도 같이 조퇴 맞고 나오고 그런 것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면답자 회사에서는 노조 행사나 임단투 말고는 딱히 할 일이 없었나요?

오병철 그렇죠. 회사는 특별히 그거 말고는 노래패 활동이 조합원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죠.

면답자 오히려 밖에 활동이 더 많으셨던 건가요?

오병철 그렇죠. 훨씬 밖에 활동이 많았죠. 그 당시 때는 강사를 통한다든지 그렇게 연결돼서 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노조랑은 아무 상관없는 저기니까.

면답자 지역의 전노협이나 민주노총과는 관계가 어땠어요?

오병철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던데요. 그냥 무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면담자 연대 행사에 갈 때는 출연료를 받고 가거나 그런 건 아니었죠?

오병철 예. 출연료를 받은 사람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면담자 노래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노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나요?

오병철 산업재해 공연하면 산재에 대한 걸 했으면 좋겠다고 받은 적이 있는 것 같던데, 특별하게 요청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고민해서 거기에 맞는 그 대회에 맞는 노래들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고민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떤 노래 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건 저희가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집회에서 기획단 있잖아요? 기획단에서 그 기준에 맞는 노래나 배치해서 짜면 저희가 그 노래 갖고 연습하고 어디 가서 우리만 부르는 그런 데면 우리가 고민해서 노래를 설정을 하고, 문선대 같은 경우는 직접 기획단이 있으면 기획단에서 짠 거대로 저희들이 가서 같이 노래하고 그 정도죠. 저희가 노래를 선택한 건 아니고.

면담자 너무 많이 불러서 너무 혹사당한다는 느낌은 없으셨어요?

오병철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런 느낌은 별로 못 받았던 것 같아. 뭐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면답자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가 92년도에 부인회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95년도에는 부녀회를 만들고?

오병철 예. 그러니까 가족과의 유대관계 때문에 총회 갈 때 꼭 가족하고 같이 가고 그랬죠. 총회를 가면 그때부터 같이 다닐 것 같아. 그냥 따라온 것 같아. 좋아해서 따라온 것보다는 남편이 가자니까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애들도 한참 어릴 때라 애들끼리 잘 놀고 그래서 분위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 인간이 나쁜 짓은 안 하네. 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인지를 했던 거죠.

면답자 나중에 공연도 같이 하셨잖아요?

오병철 ‘가족’이라는 공연을 해갔고.

노릇다리의 정기공연

면답자 공연 얘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공연은 매번 주제를 잡으셨던 거잖아요? 그럼 총회가 먼저였나요? 아니면 공연이 먼저였나요?

오병철 총회가 먼저죠.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처음에 공연을 하게 된 계기가 ‘너무 이제 이런 활동만 하니까 너무 식

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도 발표도 하고 잡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손동혁 강사가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억을 해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나 그리고 노뚝다리’라는 맞나? 제목이? ‘나 그리고 노뚝다리’ 그렇게 해서 인천대학교 인문관에서 처음에 했고요. 그다음부터 한번만 하면 되겠어?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그걸 윤재근 씨, 윤재근, 정래영 이렇게. 공연하면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준비한 것 같은데요. 공연 때 되면 계속 모이고. 주제 같이 잡고 누가 기획안 써오고 하고 그런 거 하고.

면답자 첫 해에는 연출을 손동혁 씨가 했네요? 두 번째도 연출은 손동혁 씨가 하고? 선곡도 하고, 스태프들도 있고

오병철 강사가 도움을 많이 줬죠. 사실 연출은 거의 손동혁 강사가 했죠.

면답자 제목들이 재밌긴 해요. 역할 바꾸기, 가족, 서른 즈음에. 이런 게. 이기주의도 있었죠. 공연하면 조합원들이 주로 보러 왔겠네요?

오병철 조합원도 있었지만 사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힘내라고 많이 와주셨죠.

면답자 항상 티켓을 파셨어요?

오병철 네. 티켓을 팔았죠. 지역의 단체나 지역에 있는 노동조합 간부님들 그 조합원들 많이 힘을 실었던 것 같아요.

많은은 왔던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많이 온 건지.(두 손을 모으고 쑥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우리가 몇 명 왔다고는 안 적혀 있구나? 한 500명은 왔나? 500명까지는 안 온 것 같은데.

면답자 그러니까 1, 2, 3, 4, 5, 6회 공연이 다 기억나지는 않으시겠지만 기억나는 공연 순간들이 있으세요?

오병철 생각나는 건 아마 역할 바꾸기인가? 역할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연극처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역할 바꾸기에서 그때 역할이 약간 싸가지 없는, (웃으며) 버릇없는 역할을 해서 그때 좀 사람들에게 안 좋게 느껴졌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고거 생각나고. (잠시 기억을 더듬으며) 그래도 주위에서 이제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음악 하시는 분들, 뭐 하시는 분들 하고 거의 무료로 와서 해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면답자 공연하면 1시간 반 정도 하셨나요?

오병철 한 1시간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1시간 반은 아니?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

면답자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오병철 예. 저희들은 좀 그런 쪽으로 어차피 우리 사는 얘기니까 우리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울기까지는 안 한 것 같은데. 힘들다고 ‘아휴,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이랬던 것 같은데? 공단 여기 거기다가 붙이고 다니고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 포스터 붙으러 다니고?

노래패 활동에 대한 소회와 활동 중단

면담자 노래패 활동을 통해서 어떤 걸 느끼셨어요?

오병철 사실 제가 입사하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했기 때문에,
안 하고 하고의 느낌은 차이 얘기를 하기는 곤란하
는 한데 (자세를 고쳐 앉으며 잠시 생각하더니) 저도
살면서 긍정적으로 사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크
게 바뀌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한데, 그 활동하고 안 하고
는 내가 생각을 많이 하고 안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생
각을 안 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조합 노래패 활
동을 하고 나서부터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어떻게 좀 잘 살아야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
던 것 같긴 해요. 그런 거 차이지 깊이 생각하고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면담자 잘 산다는 건 어떤 거였을까요? 그 당시에 생각하셨던
거는?

오병철 잘 산다는 건 (잠시 생각하시며) 잘 산다 잘 산다 갑자기
그렇게 정리하려니까 되게 어려운데요? 말이 머릿

속에 뭐가 있는데 말로는 안 나오기는 하네요. 마음속에 있는데 그게.

면답자 그럼 노래를 부르고 집회에서 연대하고 이러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오병철 잘 사는 것보다는 올바르게 사는 거 아니었나? ‘내가 좀 힘들지만 올바르게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정의감이 많이 있었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끔 분노도 느끼긴 했지만 정의감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아직 잘하고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애들한테 뭐 물려줄 그 세상에 대해서 내가 좀 열심히 살고 있다!’ 그런 정의감?

면답자 김기욱 씨가 몇 년 도에 돌아가신 거죠?

오병철 2002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면답자 그 다음에는 노래 활동이 좀 흐지부지해져버렸나요?

오병철 거의 그렇죠. 그 형 돌아가시고 나서는 흐지부지됐다고 봐야죠. 10주년 공연이 저희한테 마지막 공연이고.

면답자 김기욱 씨 살아있을 때도 공연을 더 안 했네요? 왜요?

오병철 그때 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지쳐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도 기욱이 형도 아플 때거든요. 또 저희들이 노동조합 활동 간부들 하고 있고, 그럴 때기도 하고 아마 그래서 안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노래패 활동이 좀 더 뜸해진 게 CD라고 그러나? 음악 CD 나



노뚝다리10주년

오면서 들 하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노래패 역할이 크게 중요시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사실 반주도 없었잖아요? 반주도 없어서 옆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노래패가 필요했던 것 같기는 하고, 그래서 했던 것 같고. 어느 순간부터 노래 CD가 나왔잖아요. 노래 복사된 CD가 나오면서 보급되고 나면서 그때부터 CD 틀면 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노래패 활동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저희도 그때 오래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나이도 먹고, 일정 부분 말 그대로 노동조합 활동하면서 다들 간부들 역할을 맡기도 하고, 겹치면서 그리고 김기욱 동지도 많이 아프기도 하고, 어찌 보면 김기욱 동지가 옆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줄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자

연스럽게 활동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간부를 맡으면 간부 활동을 해야 하니까 주된 목적이 노래만 하는 목적은 아닌 거잖아요? 사실 노래를 하면서 그렇게 돌아갔던 것 같아요. 문화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조합 활동도 같이 겸해 나중에는 겸하게 되는 거죠.

면답자 노조 행사나 연대 활동은 계속 하셨을 텐데 그때는 총회를 해서 이제 우리 그만하자 이렇게 정리하거나 그러지 않으셨던 건가요?

오병철 그러지는 않았죠. 원래 우리가 노래패 처음 할 때는 ‘야! 환갑 때까지만 하자!’ 그랬었는데 일찍 깨지긴 했고, 사실 기욱이 형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마 철의 노동자 중심으로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우리만 하면 사실 인원수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노동 문화제도 참가했었고, 이제 그렇게 철의 노동자 이름으로 그렇게 활동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아마 노뚝다리 자체적으로는 거의 활동 안 했던 것 같아요.

면답자 활동을 쭉 하면서 노래패 활동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노동 운동이나 아니면 노동자 문화 운동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노뚝다리가 어떤 역할을 했다?

오병철 (잠시 생각하고) 노뚝다리가 역할을…….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살짝 웃으며)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주위에서 잘 했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저
 희가 체계적으로 했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체계적으로
 했는지도. 근데 이런 자료나 보니까 나름대로 정리도
 했고 보면 한 것 같긴 한데, 저는 지난번에 사실 그렇
 게 활동하면서는 잘 못 느꼈어요. 그런 것들을 그냥 뭐
 열심히만 하자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잘했는지 못 했
 는지 평가는 사실 주위에서 해주는 것 같아요. 내가 하
 는 게 아니라, 주위에서 해주는 것 같고. 노뚱다리가 보
 면 나름대로 열심히는 했던 것 같아요. 하는 동안만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너무 안 하다
 보니까 그때에 비하면 완전 놓고 있는 거죠. 완전히. 아
 무것도 안 하고 그냥 뒷집 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사실 미안하기는 한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
 기도 하고. 나이 드신 분들 활동하다가 손 놓고 있는 거
 보면 사실 한심했었거든요? (웃으며) 근데 제가 이제
 그 나이 먹고 손 놓고 있는 거 보니까 아, 좀 (살짝 민망
 한 웃음으로) 그런 감정이 겹치긴 해요. 그래서 누가 뭐
 라 그러면 절대 대꾸 안하죠. ‘아! 미안해!’ 그러고 마는
 데, 2014년? 그 정도께 제가 당에 걸렸었어요. 노동조
 합 활동하면서 그 안에만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을
 안 하고 노동조합 일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활동이

좀 뜸하고, 조합원들 많이 만나서 저녁 때 되면 술도 먹어야 되고,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면서 당뇨가 와갔고. 사실 그때부터는 슬슬 손을 놔던 것 같아요. 제가.

면담자 연대 활동하러 많이 가셨잖아요? 인천의 노동운동 아니면 인천의 노동자 문화운동이 다른 지역이랑 다르다는 어떤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오병철 사실 다른 지역은 안 갔고 전국노동자대회 때밖에 안 보죠. 그래서 저는 별로 많이 못 느꼈어요. 그냥 같이 모여서 떼창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 말 들어보면 많이 느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걸 잘 못 느꼈어요.

면담자 그럼 선생님이 노뚝다리로 활동했던 시간은 인생에서 어떤 시간이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세요?

오병철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참 보람된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 당시에 정말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기도 했었어요. 힘들기도 하고 많이 그만두려고도 했었고, 그랬는데 어찌 됐건 김기욱이라는 동지가 많이 잡아줬기 때문에 쪽 살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조합원들한테 인정도 받고 노동조합 활동하면서 노동조합 간부까지도 하고, 활동 때문에 어찌 보면 조금은 주위에서 인정받고 지금도 인정받기는 하는데 지

금 활동을 안 하니까 인정받는 게 부담스럽긴 해요. 지금 활동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옛날에 했던 거 옛날에 했던 거고 지금 활동을 해야 진짜 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미안함 그런 게 좀 있죠.

면담자 네, 일단 오늘 이정도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오병철 고생했습니다. 어렵네요... 하하.

손동혁

노래패 강사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면담 일시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15:40-17:20
면담 장소	부평 생활문화센터 2층 스튜디오
주요 이력	학력 인하대학교 전자공학과 중퇴 인하대 문화경영학 전공 박사 수료 주요 경력 1995-1996 문화예술생산자연합 기획국장 1997-2001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 대표 2002-2006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인천지회(인천 민예총) 사무처장 2007-2011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초대 소장 2010-2012 한국영상미디어센터협의회(현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초대 대표 2010-2015 사회적기업 자바르떼 이사 2012-2021 (사)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이사 2012-2023 (재)인천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정책협력실장, 문화공간본부장 등) 2024-현재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 2023-2024 인하대학교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 겸임교수
핵심어	노동조합, 노래패, 노래선언, 노동가요, 투쟁가, 강습, 노동자 문화패, 최도은

손동혁 녹취문

구술채록 시작

면담자 인천 부평 노동가요 구술채록 사업을 오늘 시작할 거고요. 손동혁 님의 구술채록을 9월 12일 오후 3시 39분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가족 관계와 성장과정

면담자 일단 언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손동혁 1969년 철원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말로는 68년이라고요. 당시에는 보통 길면 1년 있다가 애가 태어났다고 등록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홍역 때문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면담자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손동혁 남동생이 하나 있고, 여동생이 있고, 연년생 누나가 있었고. 그랬죠. 연년생 누나가 아까 얘기한 대로 홍역으로 죽었어요.

면담자 부모님은 뭐 하셨어요?

손동혁 아버님은 제가 태어났을 때는 미군 부대에서 운전사로 일을 했고, 철원 쪽에. 어머님은 그 당시 다 그랬듯이

외할머니가 전쟁 때 북한에서 피난 오신 분이어서 외할머니 밑에서 시골에서 자랐고, 아버님은 그 당시에 운전하셨습니다. 아버님도 전쟁 때 고아가 되셔서 부모님을 다 잃어버리셔서 입양이 되셔서 손 씨가 됐다고 들었어요. 원래는 천 씨였는데. 당시만 해도 먹고 살 기술을 배우시겠다고 나이를 올려서 입대를 했대요. 군대에 가면 그래도 밥도 주고, 기술도 배울 수 있고. (웃음) 그렇게 들었어요.

면담자 철원에서 언제까지 사신 거예요?

손동혁 철원은 하도 어릴 때 살아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고 국민학교를 같은 강원도인데 화천군에서 다녔어요. 국민학교 이전 5살 정도까지 철원에 산 것 같고, 화천군에 사내면 사창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기자부대로 기억하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서 국민학교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인천으로 왔어요. 아! 국민학교 거기서 안 나왔구나. 국민학교는 서울 연희국민학교를 졸업했구요. 아버님이 운전을 하시니까 군대를 나오신 이후에도 생계를 운전으로 유지하셨습니다. 트럭 운전도 하셨다가 택시 운전도 하셨다가 그래서 이사를 자주 다녔어요. 6학년 2학기 때 전학을 와서 국민학교 졸업은 연희초등학교고, 중학교 입학은 그 근처에 있는 한성중학교로 해서, 근데 계속 어머니

이 살고, 할머니 외할머니가 살고 계셨던 강원도 화천군 거기서 들락날락한 거죠. 국민학교를 한 4개 다닌 것 같은데 양양에서도 다니고 많이 혼란스러웠죠.

면담자 중, 고등학교 때는 어떤 음악 들으셨어요?

손동혁 처음엔 다 라디오였고, 라디오는 주로 AFKN, 왜냐하면 거기가 FM이 안 나와요. 군사지역이어서 그리고 당시에 AM 라디오는 대부분 음악을 틀어주는 게 아니고 잡다한 여러 가지 요즘 말로 토크를 한다고 해야 되나? 이런 거였고 유일하게 잡음이 있어도 전파가 거기까지 온 게 AFKN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알아듣지만 음악이 나오니 AFKN을 주로 들었고, 미군 부대 흔적도 있고 군부대도 있고 카세트 레코드가 꽤 있었어요. 그때 들었던 테이프들이 기억나는 게 ‘Pat Boone(팻 분)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리고 중학교 때 ‘산울림 1집’이 나왔어요. 근데 산울림 음악을 들으면 선생님들이 뺏어갔어요. 인천에 와서는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혼자 떨어져서 자취를 하면서 알바를 해서 조그만 전축을 샀어요. 그리고 백판을 사서 음악을 듣기 시작했어요. 인천도 FM이 잘 안 잡혔어요. 군사 지역이어서 살던 곳이 전파가 오는 게 잘 안 되던 동네였어. 그래서 백판을 사서 음반을 듣기 시작했고, 그 시기에 지내면서 한 게 음악 듣고 검정고시 준

비하고 학원 다니고 이거밖에 없었던 같아요.

면담자 제일 많이 들었던 음반은 뭐예요?

손동혁 제일 많이 들은 거는 락 메탈 이쪽 음반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특징하게 그냥 밴드로 좋아해서 자주 들었던 레드 제플린(Led Zeppelin)?

면담자 기타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지 않으셨어요?

손동혁 중학교 때 기타 쳤어요. 포크(Folk). 중학교 3학년 때 정도의 기타를 옆집 형이 가르쳐줘서 그때 처음으로 기타를 쳤던 것 같아요. 대학 다닐 때까지 기타를 끼고 다녔던 거 같아요. 그냥 취미로.

대학교 입학과 학생운동 참여

면담자 대학에 가셨잖아요. 어떻게 운동권이 되셨는지?

손동혁 대학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여간 지금 동아리라고 그러는 서클을 20개 들었어요. 연극반부터 해서 타임즈 읽는 ‘타임 반’ 하여간 20개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인하민속극회’라고 탈반이 있었어요. 거기가 제일 잘해주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서클에 갈 시간이 없도록 잘해주더라고. 알고 보니 그게 운동하는 동아리더라고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다예요.

면답자 대학 때는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손동혁 사실 인하대 탈반을 다닌 거죠. 인하대 전자공학과보다는. 당시에 탈반이 하는 모든 것. 당시에 탈반이라는 곳이 하던 게 메인이어야 되는데 별다른 일이 없을 때 늘 하던 거는 탈춤 연습, 악기 연습, 전수, 이런 걸 늘 했고, 이 탈춤 연습이라는 게 일주일에 한 2시간 해서 되는 일이 아니어서 수업 듣기보다는 혼자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었고 그리고 어쩌다 87년에 대학을 가서 당시에는 전국이 그랬던 것 같아요. 3월 개강 후에 며칠 지나자마자 서울 및 인천 경기는 당연하고, 전국이 다 계속 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하던 시절이니까, 시위가 6·29 선언 전까지는 거의 매일이었던 것 같아요. 안 하는 날이 더 적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언젠가 어머니가 저에게 왜 그러고 다녔냐 그래서 농담처럼 사실은 진담도 있는 건데요. 부모님들이 옛날에 그런 얘기하잖아요. 사람 많은 편에 서라고. 그때는 그쪽이 사람이 많은 편이었어요.(웃음) 그렇게 87년에 대학 들어간 학생스럽게 지냈어요.

면답자 동아리 활동을 오래 하다 보면 뭔가 역할을 맡게 되잖아요.

손동혁 당시만 해도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목표했던 것들이 노동현장으로 들어가자. 당시에 이제 대학생들은 고학

력자라고 안 받아주던 시절인데 위장 취업을 하는 것들이 일종의 목표였고, 그러려니 했는데 우연치 않은 계기로 얼굴이 다 공개된 거예요. 마당극 하는데 만장을 들었어요. (웃음) 급하다고 어떤 선배가 만장을 들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들었는데 1학년 때 그게 경로를 바꾼 거죠. 바로 바깥으로 나왔어요.

면담자 몇 년부터요

손동혁 87년 그리고 나서 88년, 89년이 되고, 89년쯤에 이러저러한 혼란을 겪고 90년에 군대를 갔다가 91년에 나와서 12월에. 92년부터네.

면담자 졸업은?

손동혁 못 했죠.

면담자 92년부터 어디로 가셨어요?

손동혁 그때 92년에 처음으로 단체 활동을 한 게 ‘노래선언’이었어요.

노래선언 결성과 현장 활동

면담자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노래선언’은?

손동혁 당시에 인천민중문화운동연합이 노래 분과로 있었던 ‘산하’의 멤버들이 있었고, 제 기억에 한 1990년 91년

이쯤부터 내부에 어떤 변화와 이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노동운동의 전체적인 흐름하고 맞닿아 있을 거고, 그런 변화들 과정에서 산하에서 활동하던 최도은 선배가 별도의 노래 단체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고. 인하대에서였나? 어디선가 우연히 만났어요. 알고 지내다가 제안을 받았고, 90? 91년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91년인 것 같아요. 소집 해제를 한 후 92년도에 노래선언이란 단체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단체 활동을 시작했죠.

면답자 학교는 포기하신 거예요?

손동혁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녀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뭘 다녀? (웃음)

면답자 노래선언에는 누가 있었어요?

손동혁 노래선언에 있었던 친구들은 주로 어디 친구들이었냐면 인하대의 출정 출신들. 인하대가 독특한 동아리 형태가 있었어요. 90년 초반부터였을 것 같은데 인하대 ‘문화예술운동연합’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대학에서도 쪽 만들어졌다가 다른 데는 다 없어졌어요. 근데 인하대에만 남아 있었어요. 예전의 동아리연합회하고 다른 게 이 ‘문화예술운동연합’이라는 데가 운동성이 강한 동아리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고 연합체로 단대 학생회 단위의 동아리들이 여기에도 가입돼 있었어요. 인하대

안에서는 운동을 하는 학생들 동아리들한테는 굉장히 다른 틀이었고 그게 주는 활동력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노래를 하던 동아리가 출정으로 기억하고 그 출정에 가장 활동력 있게 초기에 만들고 했던 친구들이 노래선언에 같이 들어왔고 지금도 활동하는 친구는 기타치는 고명원, 당시에 고명원의 선배들 이렇게랑 숙대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건 아마 최도은 선배가 숙대일걸? 그중에 기억나는 게 고명원의 부인 이소라. 저랑 탈반에 같이 있던 김영택이라는 친구가 같이 참여했고, 그렇게 몇몇이 노래선언이라는 활동을 했죠. 노래선언 활동은 주로 테잎을 하나, 둘? 이 정도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전에 인천 민중문화운동연합의 산하나 이 시기만 해도 주로 테잎을 만들고 노래를 보급하는 주 활동이었다면 노래선언 시기의 활동은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강습을 하는 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 현장 투쟁을 지원하는 거. 그래서 오히려 현장 강습이 많았고. 그렇죠.

면담자 최도은 씨가 대표였나요?

손동혁 네네.

면담자 그 단체는 사무실이?

손동혁 있었죠. 주안의 공단 쪽에 지하에. 그렇죠. 꽤 넓었어요.

면답자 멤버들은 어떤가요? 기억나시면 성함도 다 얘기해 주
 시면 좋은데

손동혁 6명 정도였던 것 같은데 김영택, 고명원, 이소라, 그다
 음에 최종남, 최도은, 손동혁, 한 둘 정도가 기억이 안
 나.

면답자 노래패 강습, 노래 강습을 다 하셨나요?

손동혁 그렇죠. 노래선언 시작이 좀 불운했어요. 불운했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멤버 중에 한 명이 사노맹 수배
 자랑 얼굴이 닮아서 잘못 찾아왔는데 와보니 뭐가 있
 는 뭐 그런 시기였어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랬고
 당시에 인천민중문화운동연합이 운동 방향과 관련해
 서 이견들을 겪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한 세력은 좀 더 합
 법적인 영역으로 가자는 거였고, 한 세력은 여전히 반
 합적 활동이 중요하더라는 논쟁이었기 때문에 그런 속
 에서 노래선언을 만들고 했던 이쪽은 후자 쪽에 가까
 왔어요.

면답자 단체는 몇 년까지 있었나요?

손동혁 하! 그것도 애매하지. 자연스럽게 흩어져서. 한 94년?

면답자 오래 가지 못했네요. 그러면 뭐 다 같이 출근을 하고 그
 랐나요?

손동혁 그렇죠. 전업활동가 방식이었어요. 활동비는 거의 받
 은 기억이 없어서 어떻게 살았나 몰라. 공식적인 활동

비는 없었던 것 같아요. 강습을 가는데 ‘차비를 주소’
그러면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생계를 유지하도록 고정된 급여 같은 게 있었거나 이렇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활동에 필요한 비용들은 어떻게 했는데 대충 모여서 같이 밥 해 먹고 각자 알아서 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면답자 노래선언은 정치적 성향도 있었나요?

손동혁 그렇죠. 흔히 크게 나누는 걸로 하면 확실히 PD 계열이었고, 더 세분화해서 들어갔을 때는 각자 다 달라서

면답자 단체 성원들이 강습하거나 결합했던 노조 노래패는 뭐였어요?

손동혁 아! 거기가 주로 나중에 노래패 연합으로 모이는 데가 ‘금속노동자 노래패’랑 ‘철의 노동자’ 정도가 아남정공, 대우중공업, 영창악기, 신광기업, 신광기업은 ‘철의 노동자’는 아니지만 신광기업, 한화중공업, 대우자동차, 안병원

면답자 그럼 1인당 몇 팀씩 맡은 거예요?

손동혁 보통 2개? 많으면 3개 이 정도 치겠죠. 주말은 못하니까 주중에 보면 하루 걸러 한 번?

면답자 그러면 손동혁님은 어느 노래패를 맡으셨나요?

손동혁 제가 주로 금속을 맡았어요. 그래서 했던 데가 대우중공업, 영창악기, 아남정공, 한라중공업, 안병원도. 그러

다가 왜 이렇게 됐나 생각해 보니까 자연스럽게 흠어들었다 그랬잖아요. 각자의 이유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나머지를 제가 다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강습을 했던 기억이 나요. 94년 정도에는 거의 매일 했어요.

면담자 처음에 노래패 강습할 때 요청이 오나요? 아니면 먼저 가서 노조 활동가랑 같이 노래패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조직하는 것부터 시작했나요?

손동혁 처음에는 노동자를 조직하는 것부터 시작했던 시절이 선배들 시절이었을 거고 이쯤 돼서는 둘 다 섞여 있죠. 그냥 노래패를 만들자라고 하는 건 없던 시절이죠.

면담자 노래패별로 결합하게 됐던 상황이 기억이 나세요?

손동혁 대우중공업은 최도은 선배가 하다가 어느 날 나를 데려와서 소개시킨 다음에 바뀌었어요. 제가 하게 됐어. 아남정공은 연락이 왔어요. 당시에 연락이 온다는 건 그 앞 과정을 노동조합 조직에서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인천노동운동협의회 인노협 이런 데에 관련 담당자들이 있어서 어느 어느 공장에서 뭘 하려고 하는데 노래 활동이나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도와줄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 필요들이 소통되는 공간이 당시에 인노협의 문화부장단 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노조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직

책들을 맡고 각 사업장의 부장들이 와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정보도 얻고 활동의 내용도 공유하고 하면서 우리도 그런 거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를 누가 도와줄 수 있지? 그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 그게 아남정공의 경우였던 것 같아요. 영창악기도 그런 식이었어요. 제가 저거 할 때만 해도 노조 조직들이 서 있어서 그때는 분화가 돼 있었어요.

면담자 강습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손동혁 1년의 프로그램이라는 게 얘기했듯이 당시에 노동운동의 흐름 속에서 특히 민주노조 운동이 가지고 있었던 목표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같이 가거든요. 지역 노조협의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전국 조직을 만든다. 결과적으로 전노협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었고, 그 다음 단계로 됐던 게 주로 연맹들을 만들고 그 이후에 산별로 가고 다시 그걸 묶는 전국 조직으로서의 민주노총, 이 흐름이 1987년에서 94년까지 벌어지는 일 이니까. 민주노총 설립이라는 게 그래봐야 87년 7·8·9 대투쟁에서 시작해서 94년에 민주노총이 만들어지잖아요. 굉장히 짧은 시기예요. 생각해 보면 한 7~8년 사이에 그런 조직 목표들을 가지고 운동이 짝 갔고, 공장 단위로 보면 공장 단위의 1년 질서가 임투가 있고, 단협이 있고 그걸로 상반기가 가잖아요. 그 과정에 노동

절이 있고 그 다음에 11월이 되면 전국노동자대회가 있잖아. 전국노동자대회라는 흐름이 전반적인 조직 질서들을 움직이는 힘이었다면 노동절과 두 개가 박혀 있는 거고, 각 지역과 현장에서는 임단투를 통해서 내실을 다져가고 또 조직을 유지해가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면 강습 일정이 딱 이거에 물려서 가요, 똑같이. 그러니까 어떤 노래를 음악적으로 어떻게 잘할 것이냐보다 문화패의 활동이 이것과 거의 일치돼서 가거든요.

면담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동혁 임단투를 시작하기 전에는 뭘 하나면 지역 노협 차원에서 같이 연대해서 임단투 문화학교를 열어요. 거기서 계속 문화를 확대하는 방식인 거죠. 노래로 참여할 사람, 풍물로 참여할 사람 새로운 노동자들을 발굴하기도 하고 기왕에 있는 문화패들이 조금 더 참여해서 서로 연대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게 하기도 하고 이런 작동을 하는 거죠. 그게 봄 되기 전에 시작돼요. 시작돼서 가다 보면 각 현장에서 다 임단투에 들어가. 그러면 이 문화패들이 노조 간부면 노조 간부 활동을 하고 그게 아니면 주로 현장 안에서 대의원 활동을 하기도 하고, 노조의 질서에 따른 활동을 하기도 하고 문선대로서의 내부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임단협 과정이 가는 거죠.

그리고 노동절이 되면 전국에서 모여서 문선대 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당시에 노동절 행사라는 게 그냥 행사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과제를 걸고 하잖아요. 그 과제를 이슈화시키면서 그때부터 노동절 후 투쟁이 짝 가요. 이 과제들이 쭉 가다 보면 현장에서 충돌들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갈등과 충돌들이 당연히 벌어지고 여름 휴가 쯤에 문화 쪽에서는 인천에서는 지역 차원에서 캠프를 다 같이 갖어요. 몇 백 명씩. 꼭 문화패만 가는 건 아니에요. 노동조합 간부들부터 해서 노동조합 간부들 가족, 노동자들 문화패도 당연히 캠프를 가요.

그리고 나면 이제 하반기 투쟁 준비하는 거야. 11월까



인천노동자문화일꾼체육대회

지 그럼 9월쯤에까지 4~5주 정도 소위 일상 활동 이러면서 루틴하게 2시간 안에 노래도 한 곡 배우고 돌아가는 얘기도 공유하고 이러다 보면 10월쯤 되면 전국노동자대회 준비에 들어가요. 당시 인천에서 92년 93년 이쯤부터 보통 전국노동자대회 노래 문선대가 100명쯤 서면 50명이 인천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았어요. 노동자대회 전야제가 합법적으로 열리던 시절이 아니니까 준비도 꽤 해야 되고 문화패들의 활동이 전야제에서 훨씬 오랫동안 펼쳐지고 그 다음날 본대회에서 문선 활동을 하잖아요. 이러면 1년이 가는 거죠. 문화패 자체에 어떤 스케줄이 있냐라기보다 민주노조 활동과 물려서 1년에 전체 활동해야 되는 시기가 정리가 되어 있고 맞춰져 있는 거죠.

그리고 문화패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노래패들 중심의 이벤트를 만든다고 만들었던 것들이 전국노동자신문 쪽에서 했던 노동자가요제나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면 인천의 노동자 노래패들이 가급적 다 가요. 노래의 즐거움이라기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 여간 당시에는 어떤 공간만 열리면 우리의 역할을 한다. 그게 되게 섰던 것 같아요.

면답자 개별 활동을 할 때는 노조와 가까운 공간에서 연습을 하거나 준비를 하거나 그러셨던 건가요?

손동혁 보통 노동조합 사무실이죠. 공장에서 못 들어오게 하던 시절이니까 전부. 그래서 노동조합 공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투쟁이 됐고 바깥에서 강사 들여보내기가 투쟁이 되고 그렇다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벗어나 다른 공간들까지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고 보통 노동조합 사무실이죠. 아니면 대우자동차 정도가 노동조합 사무실 외에 연습 공간을 따로 두거나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사실 노조 입장에서도 노조가 관리하는 별도의 공간을 노조 사무실 외에 만드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노동조합 노래패의 연습 과정

면담자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기타 들고 가서 퇴근한 7시부터 9시 정도?

손동혁 그렇지. 최대한 빨리 하자! 그러면 6시 반. 2시간 정도 강습하고 나와서 뒤풀이하고.

면담자 강습은 주로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손동혁 처음에 만나면 뭐가 됐든 신곡을 하나 배워요. 그거를 배우고 하는 데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노래패를 담당하는 회장이거나 노동조합 간부가 와서 현장 돌아가는 상황 공유, 지역 돌아가는 상

항 공유, 주로 강사가 지역과 타 사업장에 대한 상황들을 공유하고 그런 정도가 기본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면답자 노래는 주로 어떤 노래를?

손동혁 주로 투쟁가? 주로 노동자의 이야기를 담은 곡, 그리고 투쟁가 중심. NL이다 PD다가 아니고 주로 노동자의 이야기를 담은 가사가 첫 번째, 그다음에 투쟁가가 선했던 것은 꼭 투쟁을 해야 된다고 있지만 요즘 말로 하면 떼창하기 좋은 거 다 같이 부르는 게 중요하니까 우선되니까요. 이런 것들이었던 거지.

면답자 정파적인 영향을 별로 안 받으셨던 거예요.

손동혁 아! 오히려 그런 건 빼요. 괜한 갈등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노동조합은 대중조직이잖아요. 노동조합이 정치조직이 아니잖아요. 덩어리로서의 지향은 있지만 그런 식으로 엄밀하지 않다고 .그래서 조합활동을 같이 하는 노래패가 선명하게 어떤 걸을 세밀하게 내세우면 내세우는 선택이라는 게 민주노조 활동 전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개인의 취향들은 있었지.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 하자.

면답자 그럼 강습은 몇 년까지 하셨어요?

손동혁 대우중공업을 한 10년 한 것 같은데. 제가 강습을 그만두게 된 계기가 대우자동차 정리하고 투쟁 때문이에

요. 2000년인가 대우자동차 정리하고 투쟁이 벌어졌을 때 대우자동차에 들어가 있었거든. 그 다음해부터는 강습을 하러 다닐 조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99년 말, 2000년.

노래선언 이후 활동

면담자 단체가 해산한 이후에는 그냥 개인으로 활동하신 거예요.

손동혁 강습을 안 했어요. 노래선언 다음엔 단체를 만들었어요.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그 전에 노래선언이 그런 식으로 흩어지고 나서 혼자 있는데 제안을 받아서 했던 일이 ‘문화예술생산자연합’이라고 그 활동을 했어요. 95년으로 기억해요. 그리고 나서 97년에 단체를 만든 게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단체예요.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은 노동 문화기획 교육단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밝히고 4명이었는데 넷이서 다 전업 활동을 했죠. 그때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어요.

면담자 얼마를요?

손동혁 20만 원

면담자 그 네 분은 누구셨어요?

손동혁 저랑 김영택이랑 황승미 그리고 최문선 넷이었죠. 그

래서 그게 2001년까지 갔으니까, 제가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 대표 하면서 당시에 김대중 정부 때 대우자동차 정리하고 소식을 듣고, 현장에서 요청을 받아서, 그때 지하에 있었는데 가면서 ‘안녕, 다시 돌아오기는 어려울 거다.’ 이라고 갔으니까. 그러면서 여기서의 활동은 그렇게 정리가 된 거죠.

면답자 그러면 강습이 잘 된 곳, 오래된 곳이 이제 대우중공업?

손동혁 대우중공업이 제일 오래됐죠.

면답자 짧게 하고 말았던 데는요?

손동혁 아니 대부분 짧게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아남정공 이런 데는 회사가 없어져서, 한라중공업은 회사가 목포로 이사를 가서. 지금 삼호중공업이 돼 있으니까. 삼호중공업은 목포까지도 2년간 A/S를 했으니까 한 달에 두 번씩 가서. 그런 식의 것들이 많았죠. 그때가 공장도 이전하고 이러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노래패가 없어져서 강습이 멈춘다거나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 94년 민주노총 그때부터였나, 그 직전인가부터 이제 대우중공업이 오래 됐으니까 노래패가 따로 자기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대우중공업 노래패를 중심으로 처음 시작했던 게 ‘정기 공연을 하자!’ 별도로 대우중공업 쪽 노래패가 정기공

연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같이 콘티를 짜고 노래를 선곡하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별도로 공간을 구하고 티켓을 팔고 준비를 해서 그때부터 공연을 시작했죠, 노뚝다리.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강습하던 다른 사업장들도 그런 걸 시도해봤지만 잘 안 돼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력이. 단독 노래패로는 노뚝다리 정도가 인천에서는 정기공연을 했고, 연합 노래패 철의 노동자로 모여서는 같이 공연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다른 노래패 각각들이 정기 공연을 따로따로 만들지 못하는 거지.

면담자 그럼 다른 데는 하나도 한 데가 없어요? 정기공연을?

손동혁 없죠. 그런 식으로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를 자기들이 했던 건 노래패로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위한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보자. 전 과정을. 그거였던 거니까 생각해 보면 또 노동자 노래패도 준비된 무대에 올라가는 거거든. 전국적으로는 정기공연을 하는 노래패가 대우중공업 빼면은 아마 현대자동차 노래패가 있을 거예요. 현대중공업.

노동자 노래패 활동에 대한 평가

면담자 잘 된 곳과 잘 안 된 곳의 차이는 뭔가요? 노조의 인원 수나 힘의 차이였던 건가요?

손동혁 대공장과 작은 공장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단 순하게 얘기하면 아는 사람 숫자가 달라 그러니까 티켓 팔아서 해야 되는데. (웃음) 대공장은 일단 아는 사람 숫자가 다르고 거기서부터 오는 경험치가 달라. 예를 들어 그래도 공연을 하려고 그러면 그 당시에 공연을 하는데 전체 비용은 이 정도 들 것 같고 이런 게 이런 게 필요한 것 같다. 이런 걸 할 때 작은 공장의 노동자들의 경우는 이게 엄두가 안 나. 이렇게 설명을 해도 경험해 본 일 중에 너무 큰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공장 같은 경우는 공장 시스템 자체가 크니까 ‘해보지 뭐’ 이런 문화가 있는 거야. ‘그 정도 사이즈면 좀 힘들겠지만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어떤 걸 결정하는 데 미치는 영향들이 있어요.

면담자 그럼 강습할 때 노동자들의 경향은 어땠어요?

손동혁 천차만별이지.

면담자 몇 가지로 패턴화 시킨다면?

손동혁 예를 들어 대우중공업 노래패 노뚝다리가 활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멈춘 이유가 있어요. 활동 가장 열

심히 활동하던 사람이 암으로 죽고 이러면서 중심력이 급속도로 망가지면서 그러니까 노뚝다리 안에도 그런 정도인데 다른 사업장들도 다 마찬가지죠. 노조가 민주노조가 만들어지는 관계에서의 관계와 결합의 정도에 따라서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중에 노래를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노래를 더 좋아하는 사람은 나머지 활동 싫고 (웃음) 근데 그러다 보면 누구는 더 고생하는 것 같고 누구는 더 하는 것 같고 누구는 덜 하는 것 같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훨씬 노래패 활동이 안 좋으니까 강사가 중간에서 조율을 하려고 자꾸 하죠. 지금도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 공장 크기와 무관하게 노래패는 하나일까? 하다못해 어떤 정치 성향이라도 들어오면 2개가 돼야 되는데 참 희한한 일이에요. 아직도 해결을 못했어, 그 의문을.

면담자 활동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셨어요?

손동혁 많이 변하죠.

면담자 어떤 식으로요?

손동혁 가정생활이 바뀌고요. 제가 경험한 노뚝다리의 경우는 나중에 부인들이 같이 수련회 갔어요. 그런 데가 없어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 하면 가장 열심히 하던 형인데 뒤풀이 다 끝나고 2차까지 끝나고 가는데 한 잔

더 하자는 거야. 강사의 감으로 뭔가 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30대 중반이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다가 이렇게 노래 활동도 하고 하면서 민주노조 운동도 하고 하는데 자기는 활동을 더 하고 싶은데 더 이상 내 부인과 살면서는 안 될 것 같다. 너무 힘들다. 그게 그래서 어쩔 건데요? 그랬더니 이혼을 하려고 한다. 애도 있고 그랬는데 자기는 결심이 섰는데 그래도 강사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서 보자고 한 거다.

제가 30대 초반이었거든요. 연애도 안 해봤는데 일단 그 자리를 얼버무려서 모면했어요. 그리고 그다음 주 강습을 못 갔어요. 가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다음 강습에 갔는데 진짜 열 받았던 게 이혼 안 하기로 마음을 바꿨다는 거야. 2주간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이혼을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노래패 활동을 하면서 노조 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나는 생각을 했다. 그다음에 제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맨날 공장 일하고 공장 끝나고 밤늦게 술 먹고 들어가니까 설명한 적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형수들하고 만나서 노는 시간을 공식적으로 만들자. 처음엔 두 달에 한 번 만나서 같이 화투도 치고 술도 조금씩 먹고 이러면서 수련회까지 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형수들은 애

들 어리니까 애들도 데리고 오고 그래서 가족이라는 공연을 같이 만들었어요. 회원들의 가족들도 출연하고 이런 과정들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노래패 활동을 하면 굉장히 충격을 받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 노동자들이. 예를 들면 전국 노동자대회 전야제, 그런 거 있잖아요. 2만 명의 사람이 모여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은 대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무대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굉장히 큰 임팩트들을 받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이게 어찌 보면 노래패들이니까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이렇게 조금은 높은 데서 보면서 거기서 오는 어떤 감동들, 그런 게 노래 활동 안에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학생 때처럼 책으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면답자 노동조합 노래패가 어떤 역할과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역 문화 차원에서, 문화 운동 차원에서, 노동자 문화 차원에서.

손동혁 한국사회에서 민주노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문화패 활동들은 앞에 한 얘기로 다 가름하면 될 것 같아요. 주요한 활동가들이었고 그 안에서 가장 열심히 투쟁하는 노동자들이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짚고 가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노동자 문화패 출신들이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는데 위

원장을 하거나 그런 욕망들이 가진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현장에서 활동가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는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인천에서는 그게 대표자들과 문화패들의 갈등으로까지 가요. 이 안에서도 다시. 노래패들이 문화패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향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지역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인천 안에서는 노동자 풍물패도 그렇고 노동자 노래패도 그렇고 현장성을 되게 중시했던 것 같아요. 강사도 문화패들도 오히려 계속 현장에서 현장의 노동자들과 떨어지지 않고 그 안에서 조금은 헌신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훨씬 더 강했다고 생각을 해요. 각 노래패가 자신의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 안에서 문화적으로 지역 문화 차원에서의 것이라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건 자기들의 일상을 자기들의 노래로 채우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 노래로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했고 그런 노력들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 시기를 그렇게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왔다는 건 그래서 처음에는 노래들이 투쟁가 중심이고 노동자의 이야기인데 투쟁가 중심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공연을 하거나 이런 데로 가면 다 개인 곡들을 선택하게 되고 그 개인 곡 안에서는 조금 더 각각의 노동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더 선택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함께하려고 했던 거죠.

더 많은 노동자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니까 더 힘 있
게 들리고 좋지 이것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어디까지
갔냐면 서로들을 챙기는 일정한 공동체로서 움직여 갔
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꾸 자기들을 확장하려고 노
력했던 것들 자신들의 일상들을 자신들의 노래로 자신
들의 이야기가 있는 노래로 채워가려고 했던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면답자 인문연이나 민예총 이런 단위에서는 노동자들 노래운
동을 어떤 식으로?

손동혁 민예총은 그런 걸 한 적이 없어. 인천민예총이 94년도
에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늦게 만들어졌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데 특정 시점에서 전략적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
니까 인문연의 활동들이 이전과 같지 않고 이러면서
좀 더 대중적인 조직으로 문화예술 조직으로서 민예총
여기를 중심에 두고 좀 더 확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
역으로 그러니까 인천민예총이라는 곳에서는 노동 쪽
은 포함할 필요가 없는 거죠. 좀 더 시민 그리고 지역
의 진보적이긴 하나 이렇게 좀 더 자기 생활을 하는 예
술가들 이렇게. 그러다가 90년대 말에 인천민주노총이

노동문화예술위원회로 따로 하나가 만들어져요. 노동문화예술위원회는 주로 미술하고 문학 중심이었죠. 노래보다 왜냐하면 거긴 다 전문가들이었으니까.

면답자 인천의 노동자 노래패나 노동문화운동 특히 인천의 노동자 노래패 활동이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손동혁 제일 크게는 문화패 중심이었다. 전문단체 중심이 아니라 인천과 울산을 비교해 보면 뭐가 제일 다르냐 하면 노조 운동부터 그런데 울산은 큰 규모의 하나의 브랜드의 공장이 딱 중심에 있잖아요. 그러면 훨씬 큰 규모를 가지고서 활동들의 기반이 되어주기도 하고 선도하기도 하고 해주면서 주변을 이렇게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구조잖아요. 인천은 대우자동차나 대우중공업이 있었지만 중소기업 공장들이 많아서 중소기업의 공장들이 연대해야만 뭔가를 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었어서 오히려 인천의 노동운동 또는 노조 활동 그런 거에 훨씬 익숙해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대우자동차나 대우중공업 정도가 제일 큰 공장이었는데 도드라지게 뭘 하지 않죠. 그리고 대우가 처음에 대노련이라고 별도로 만드는 흐름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역으로 잘 안 섞였어요. 그때 초기에는.

인천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 되게 컸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노동문화단체보다 노동현장의 문화패들 중심으로 훨씬 더 많은 것들이 흘러갔죠. 그리고 인천의 특성인데 인천에 전문 문화패들이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여력이 없는데. ‘다 해야 돼!’ 하는데 있어서 대체제가 하나 있어요. 서울하고 가까워서 서울에 단체들이 있잖아. 서울에서 단체들도 인천까지 와서 뭘 하는데 정도는 큰 부담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면 하나는 대체제가 있고 하나는 대체할 게 없잖아요. 저는 그런 자연스러운 판단들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현장 중심성을 훨씬 더 강조했고 실제 그렇게 돌아갔고

면담자 그럼 본인에게 중요한 정체성은 노래 할 때는 노동문화 활동가였던 건가요?

손동혁 그렇죠.

면담자 전문 음악인 전문 예술인으로 활동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으셨던 거예요?

손동혁 그럴 능력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면담자 강습할 때 선곡이나 활동에 대해서 두 단체 활동할 때 단체 내부에서 논의를 했어요?

손동혁 보통 한 주를 할 때 같은 노래를 배우죠. 가르치죠. 보통은 같은 곡을 선곡을 해요. 왜냐하면 이 노래패들이 만나서 같이 노래를 불러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각 노래패들이 좋아하는 특별한 곡은 있어 분명히 기본적으로 여성 사업장, 남성 사업장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업종별로도 달라. ‘이 곡은 꼭 합시다.’ 정도의 곡들이 좀 있는 거지. 그 레파토리는 새로 생기는 노래패 필수 강습곡이 되는 거고 그런 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모이면 가장 많이 부르는 집회나 이런 과정에서 이런 노래는 필수로 배워야 필요할 거잖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거지.

면답자 인천 노동자 노래패 연합도 강습을 하신 거예요.

손동혁 그렇죠. 노동자 노래패 연합이 초반에 있었어. 그러다가 유아무야 됐어요. 그때 최도는 선배가 했어요. 그리고 철의 노동자가 생기고, 철의 노동자랑 같이 인천지역 노동자 노래패 연합이라는 게 또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철의 노동자는 금속이잖아! 예를 들어 신광기업이라는 공장에도 노래패가 있었는데 신광기업이라는 공장은 형광등 만드는 데예요. 인천이 금속 사업장이 많아서 금속 노래패 연합을 만들었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다른 곳은 여력이 안 돼서 못 만들잖아. 그러면 계속 혼자 별도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이걸 좀 열어서 ‘같이 갈 방법을 좀 찾자’ 그런 마음들이 있

있던 거죠. 그런 활동에 품을 열어준 게 대우중공업 노
 뚝다리였던 거예요. 노뚝다리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일정 시기부터는 다른 사업장이 ‘오후 2시부터 파업 출
 정식 한대.’ 그러면 언제부터인가 ‘연차네.’ 그냥 이런
 식이었어요. 그 연차를 안 쓰고 놔두고 있었어. 이 사람
 들이. 이 노래패가 그런 식의 모습들을 보여준 게 같이
 가기 위한 품을 여는 데 큰 힘이 된 거예요. 하나의 문
 화를 만드는 거죠. 대우자동차가 대공장인데 그런 분
 위기가 없었거든. 대신 대우자동차는 뭐라고 얘기했나
 면 군산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 지부들이 있으니까 우
 리는 지부 활동이 너무 바쁘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또 그랬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우자동차는 그런
 역할을 잘 못 했어요.

면담자 2002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투쟁하고 나서부터는 노
 조 노래패 강습은 누가 했어요?

손동혁 거의 끊겼죠. 왜냐하면 이미 아남정공이 유아무야되고
 한라중공업 이사 갔고 대우중공업 노뚝다리도 김기욱
 죽으면서 침체돼 버렸고, 영창악기도 없어졌고 이러
 니까 신광기업도 흐지부지되고 이러던 시절이에요. 그
 때가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현장 상황들이 굉장
 히 안 좋아질 때잖아요. 그런 게 영향이었을 거라고 봐
 요. 그리고 강사 집단들이 다시 재생산되거나 하지 않

고 97년, 98년 이 즈음에 전국 노동자 문화단체 대표자 회의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 노동세상부터 해가지고 구로의 희망새, 부산의 일터 하여간 전국에 노동조합 문화운동한다는 단체는 다 모였어요. 그 대표자 회의로 소위 NL PD 다 모일 수 있었던 힘이 뭐였냐 하면 이미 그 단계에서 더 이상 재생산되지 않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었어요. 불안감이 있었어. 그 이후에 새롭게 나타난 단체들을 찾기 어렵잖아요. 하강기와 같이 가고 있는 거죠. 새로운 단체들이 나타나거나 그래야 새로운 사람도 만들어지고 재생산되어지고 현장과 이어져 가잖아요. 제가 볼 때 그거는 민주노총 건설 이후에 민주노총이 보였던 여러 가지 모습들 그리고 사회적 변화 안에서 노동의 방식들이 변화하는 것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학생운동부터 시작해서 운동하는 활동가들의 재생산 방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다 물려서 쭉 떨어진 것 같아요.

면담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문화운동 활동가로 살았던 10여 년의 시간은 본인에게 어떤 시간이었나요?

손동혁 제가 지금까지 보는 정체성은 명확히 있는 것 같아요. 문화운동 그리고 거기서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 그래서 그 10년도, 그 10년에는 그

것을 필요로 누군가 했고 저는 할 수 있었고 그걸 하면서 다만 두 가지는 생각해요. 뭘 하든 내가 지나간 자리에 젖과 꿀은 안 흘러도 여기가 폐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황무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금 더 풀도 자라고 물도 좀 졸졸 흐르고 그건 하나의 태도겠죠. 또 하나는 새로운 것 좀 하자. 제가 노동자 노래패 강습을 하면서 그건 아마도 정기공연 이런 걸 만든다거나 하려고 했던 걸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아니면 가족들 같이 갑시다. 이 두 가지 정도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면담자 네,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귀영

아남정공 노래패 ‘소리샘’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구술 일시	2024년 9월 24일 화요일 19:00-20:40
구술 장소	부평 생활문화센터 2층 스튜디오
주요 이력	주요 경력 아남정공 노래패 소리샘 금속노동자노래패연합 철의 노동자 (이후 인천지역 노동자 노래패 철의 노동자)로 활동
핵심어	아남정공, 기타반, 노동조합, 백광애, 노래패, 소리샘, 딸들이 일어나라, 철의 노동자, 노동가요

*** 아남정공**

1982년 인천 북구에 설립되었던 반도체 생산 공장이, 92년 일본 니콘과 기술제류 맺은 뒤, 94년 인천 남동공단에 신공장을 건설하면서 아남정공으로 넘어와 생산활동을 계속하다가 아남인스트루먼트로 명칭이 변경된 후 2010년 폐업됨.

황귀영 녹취문

구술채록 시작과 신상 확인

면담자 면담자 모시고 구술 채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중음악의전가 서정민갑이고요. 황귀영 선생님 앞에 계신데 일단 신상에 대한 얘기 먼저 몇 가지 여쭙보도록 할게요. 언제 어디서 태어나셨는지요?

황귀영 그런 것도 해야 돼요? 경상북도 예천에서 태어났고요. 연도도 얘기해야 돼요? 73년도에 태어나서 거기서 초, 중, 고 졸업하고 인천으로 올라와서 아남정공에 입사했었고요. 아남정공에서 노조활동 문화활동 하면서 노래 활동을 시작했죠.

면담자 그러면 집안이 농사를 지으셨어요?

황귀영 네.

면담자 식구들이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황귀영 자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삼촌 이렇게 대가족으로 자랐었고요. 졸업하고서는 인천의 고모가 계셔서 올라와서 고모네 집에서 얹혀서 살았죠. 저는 1남 2녀 중에 장녀.

고등학교는 상고, 공고, 일반 인문계 중에 인문계라고 보는 게 맞겠죠? 여중, 여고.

면담자 청소년기에도 음악 좋아하셨어요?

황귀영 저희는 시골에 있고 이래서 다 마찬가지로 하겠지만 그때는 라디오 듣는 거 정도. TV 보는 거랑 라디오 듣는 거 정도가 다였고 그때가 카세트 테잎이 있었나? 있었겠지. 그 정도였어요. 듣는 거 정도 좋아하고 그랬죠.

면담자 음반을 사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청소년기에.

황귀영 시골에 있었을 때는 별로 없었어요. 올라와 사회 생활 하면서 CD나 테잎 들고 마이마이 같은 거 들고 다니고 할 때부터 좀 듣고 그 이후로 CD 나오면서 이렇게 듣고 그때는 테잎 듣는 것 자체도 되게 나중에 들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TV 있죠? 이렇게 대문 닫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시골이었어요. 군불, 가마솥에 불 때고 그런 환경이었어요.

면담자 어떤 음악 좋아하셨어요? 청소년기에는.

황귀영 특별히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라디오 듣고. 그때는 이문세 별밤, 이런 거 정도 방송반 활동을 잠깐 정도 했었고.

면담자 그래요? 음악 틀어주거나 그러지 않았나요?

황귀영 점심시간에 잠깐씩 하고 그런 거는 했죠. 카세트? 그때 뭘로 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 방송반 기계 갖다가 얘기해 주는 거 했던 것 같아요.

면답자 끼가 많은 학생이었나요?

황귀영 아니요. 내성적이었어. 그때 방송반이 지금처럼 활동이 많고 이러지는 않았었고요. 아침에 경음악 같은 거 클래식 같은 거 틀고 잠깐 방송 켜주고 그 정도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하는 거 정도랑 점심 때 음악 정도 틀어 놓는 거 정도. 그 정도만 했었고 지금처럼 동아리 활동이 크게 많이 있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입사와 노동조합 활동 시작

면답자 학교 졸업하고 바로 올라와서 바로 아남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황귀영 거의 그렇죠.

면답자 어떻게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황귀영 그때 당시에 고모가 인천에 계셨어 가지고 여기저기 일자리 나온 거에 소개로 해서 우연찮게 아남정공으로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때 고모 집이 청천동이었고요. 아남이 청천, 효성동이라고 그래야 되나?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됐죠. 입사 면접 보고 해서 들어갔었어요. 시험은 아니었고요. 하여튼 제출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력서라고 하기에는 그때는 그런 게 크게 많지 않았었으니까. 3월달인가? 4

월달 정도에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시골에 있었으니
까 대학교를 들어갈 저기는 안 됐었고. 어쨌든 돈을 벌
어야 되고 하니까. 시골에서는 딱히 일자리가 많지 않
으니까. 인천으로 해서 고모가 알아봐주셔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때 대입시험 보고했는데 성적이 안 돼서 떨
어졌어요.

면담자 언제까지 노동자로 사신 거예요?

황귀영 조합에 가입돼 있었던 거는 들어가서 한 1년인가? 지
나서인가? 한 1~2년 지나서 가입을 하고 공장이 폐쇄?
뭐라고 해야지? 폐업을 해서 마지막에 투쟁도 하다가
결국 폐업이 돼서 정리가 된 거죠.

면담자 그게 언제쯤이었는지 기억하세요?

황귀영 2000도일 텐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2000년대 초
반이긴 해요. 아남이 효성동에 있다가 97년? 98년? 정
도에 남동공단으로 이전을 했어요. 90년대 후반? 2000
년대 초반이라 그래야 되나? 주안으로 다시 이전을 했
었어요. 그러면서 공장이 작아지고 사무실이 평촌에
있었는데 평촌까지 가서 투쟁하고 하다가 결국은 거기
서 정리가 되고 사무실 정도만 진행, 이렇게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면담자 그러면 아남정공 말고 다른 회사를 다니지는 않으신
거예요?

황귀영 회사를 다니긴 했는데 짧게 짧게 다녔죠. 그때 이후로 현장을 들어가지 않았었고요. 학원을 다녀서 경리 회계 쪽을 배워가지고 작은 사무실 같은 데 몇 번 다니다가 2007년? 이때쯤 ‘신나는 문화학교’에 들어가서 다니다가 나중에 인천지부로 내려왔어요. 2010년? 11년? 이때쯤 인천으로 내려와서 인천에서 신나는 문화학교, 인천 자바르떼 하다가 몇 년도에 내가 그만뒀나? 2018년? 2019년? 이맘때쯤 그만뒀어요.

면답자 15년 정도 월급 받는 노동자 생활을 하시다가, 그다음부터는 문화활동가가 되신 거네요?

황귀영 문화활동가라고 하기에는 뭐. 어쨌든 그렇죠. 한 10년 자바르떼. 아남정공 10년? 11년? 정도 다녔고 그 사이에 조금씩 텀이 있었고 자바르떼 들어가서도 중간에 텀은 조금씩 있긴 했는데 그 이후에는 신나는 문화학교 자바르떼 다녔었죠.

면답자 회사 들어갔을 때 이미 노조가 있었던 상황인가요?

황귀영 네. 조합은 있었어요. 아남정공이 여성, 여성 노조라고 그래야 되나? 전체가 거의 여자, 현장이 다 여자들 뿐이 없었어요. 물론 중간에 남자 사무직하고, 경비 보고 사람들 빼고는 다 여자였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 또래들이 많았고 몇 년 있다가 젊은 친구들을 모집하기 힘들니까 나중에는 나이 있으신 분들을 모집을 했었고

그러면서 나이대들이 좀 올라갔었고요. 효성동에 있을 때는 거의 20대, 30대 많아야 20대 후반 정도였다가 남동공단으로 이전하고 이러면서 사람을 모집을 했을 때, 사람이 모집이 안 돼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경력 좀 넓혀서 받았었어요. 그래서 40대 기혼자분들도 오셔서 같이 일을 하고 그랬었죠.

면답자 몇 분 정도 됐어요? 노동자 숫자가?

황귀영 기억이 안 나는데. 최소 2~300은 됐을 걸요? 제가 갔을 때는 아남정공이었었고, 아남정공이었다가 나중에 아남인스트루먼트로 바뀌었었어요. 저희가 있을 때는 카리타스 시계도 하긴 했었는데. 시계 안에 들어가는 부품도 있었고, 반도체 안에 들어가는 칩 같은 것도 만들었었어요. 초창기 때는 시계나 PCB라고 전자제품 안에 들어가는 거를 만들었었고요. 이후에는 폴더폰 안에 PCB 제작하고 충전기 같은 것들도 만들고 시대가 바뀌면서 시계가 사양으로 가다 보니까 좀 더 바뀌었죠.

면답자 노조가 있었다고 했는데 노조가 민주노조였던 건가요?

황귀영 민주노조였죠? 아마 87년 88년 이때쯤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제가 없었을 때였어서 잘 모르겠고 백광애 동지가 조합 활동할 때 같이 했었던 걸 알아요. 거의 대부분 최소 반, 3분의 2 정도까지는 조합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남동공단으로 이전하면서 인원이 많이

면답자 나가기도 했고 이후에 기혼자분들 모집되고 이러면서
황귀영 많이 떨어졌었어요. 기혼자분들이 다들 가입을 안 하
 시고 이런 게 있어갖고. 기존에 있었던 팀이 있었고 이
 분들이 한두 명 들어왔던 게 아니라 왕창 들어오게 되
 니까 기혼하고 미혼하고 전에 있던 사람들이랑 좀 부
 딛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1~2년 정도는 그러다가 이
 후에는 어느 정도 많이들 가입을 했었어요. 최소한 3분
 의 2 정도는 가입했었던 것 같아요. 여성 사업장이었고
 조합원들도 꽤 있었어요.

면답자 어떻게 노조를 하게 되신 거예요?

황귀영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같이 일했던 언니가 있는데 사수
 라고 해야 되겠죠? 옆에 있던 언니가 조합원 간부였었
 어요. 강요나 이렇게 ‘해라! 해라!’ 이런 얘기는 특별히
 없었었는데 짝꿍이다 보니까 같이 다니고 그 언니네
 집도 제가 살던 데랑 멀지 않았었고 모르니까 제가 쫓
 아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언니가 홍보부장이었어요. 쫓
 아다니다 보니까 홍보부 보조? 비슷한 저기로 회의할
 때 가끔씩 나가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기타반을 모집했
 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기타 한번 배워보고 싶
 다. 고등학교 때부터 동경 이런 게 있잖아요. 기초반 해
 서 할 때 가입을 해서 들어갔었죠.

면답자 노조 활동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을 했던 기억이 혹시 있

으세요? 교육이라든지, MT라든지, 집회라든지, 황귀영 선생님이 꼬꼬마였을 때 경험했던 노조의 일상 사업? 활동들?

황귀영 글썄.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여성 사업장이어서 여성? 청솔의 집? 이런 교육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조합에서 진행하는 교육 같은 것들을 들었었죠. 내용이 지금은 기억 안 나서.

면담자 재밌으셨나 봐요?

황귀영 그냥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언니들 가고 어쨌든 이러니까. 제가 들어올 때 입사 동기들이 많았어요. 부서가 다 나눠진 한데 저희 부서에 3~4명이 같은 또래였어요. 그래서 같이 모이기도 하고 언니들이 ‘뭐 있으니까 가자.’ 그러면 특별한 일은 없으니까 같이 가서 거의 친분으로 가게 된 거죠.

면담자 ‘난 노조는 싫어.’ 이런 건 아니셨나 봐요?

황귀영 그런 건 별로 없었어요. 무서운 것도 사실은 있었죠. 근데 언니들도 있고 같이 하고 이러니까. 초창기 때는 싸우고 이런 때는 많지는 않았었어요. 임단투 시기 때 간부들이 출퇴근할 때, 투쟁할 때 정도 보고. 그래도 대부분이 가입 많이 하는……. 그전에 얘기는 무섭고 이런 건 있었지만 그 시기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연찮게 그렇게 하다가 기타반을 하고 한 몇

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 몇 개월 정도로 그냥 하고 끝나고 인천은 여름에 인노협에서 하계 휴양지가 있었어요. 그때 언니들하고 같이 놀고 그런 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노래패 하기 전에 노뚝다리 공연을 보러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노래패 모집하고 하면서 노래패에 들어갔었어요. 그때 노래패도 모집하고 풍물패도 모집하고 그랬었을 거예요.

기타반에서 시작한 노래패

면답자 노조에 가입했을 때, 회사에 막 들어갔을 때 다른 문화패는 없었나요?

황귀영 그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면답자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기타반을 노조에서 만든 거예요?

황귀영 처음엔 기타반을 시작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기타를 그때 샀던지 모르겠네.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때 기억은. 그때는 딱 하나밖에 모르겠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그거밖에 기억 안 나요. 그때 강사님은 남자분이었는데 이름은 지금 생각 안 나고. 4, 5명인가 6명 정도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면답자 왜 중단됐을까요? 기타 치고 이러면 재밌었을 것 같은

데.

황귀영 어려웠어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어려워요. 양손을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익숙지 않고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데 쉬운 게 아닌 것도 있고 그냥 한 곡 정도만 일단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길게 가려고 처음부터 만든 게 아니라 단기 3~4개월 정도로 해서 일단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이후에 연결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면담자 첫 단추는 잘 안 끼워졌는데도 노래패를 만들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황귀영 그때 문화부장님이 백광애 언니였고요. 그 언니가 문화부장 하면서 노래패. 같은 시기에 같이 모집을 해서 당시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좀 많았을 때였어요. 그 1~2년 사이에 확 들어오고 그 이후에 나중에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조합에서도 조합원 단위로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문화 쪽으로 단사별로 다 만들고 이런 게 붐이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노래패랑 풍물패랑 비슷하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면담자 노래패는 백광애 선생님이 리드를 하신 건가요?

황귀영 만들긴 했었고, 모집도 했고, 아마 한두 번은 나왔을 수 있는데 주로 광애 언니는 풍물 위주로 해서 풍물패 활

등을 같이 했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미숙 언니라고 있는데 그분이 간부였어요. 당시에 직함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노래패를 약간 관리? 들어오는 활동을 했었어요.

면답자 노래패 이름이 소리샘? 누가 정한 거예요?

황귀영 몰라요. 기억은 안 나요? 이름은 디따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다들…….

면답자 몇 명이나 모였어요. 처음엔?

황귀영 나중에 남은 사람들밖에 기억이 안 나서. 많을 때는 7명? 이 정도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6, 7명 정도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면답자 처음에 회사생활 시작할 때 들어왔던 또래분들이 많으셨어요?

황귀영 네 네. 주로 제 또래들 대부분이. 풍물패도 거의 그랬어요. 물론 그 위에 언니들도 있기는 했는데 언니들 말고는 주로 저희 또래들이었어요. 다 한두 살 차이 정도는 있는데.

면답자 혹시 그 분들 이름 기억이 나세요?

황귀영 노래패요? 천명화, 장명희, 윤숙, 정명순. 그리고 조미숙 언니 있었고. 그리고 저희보다 한 살 어린가? 나중에 들어왔나? 하여튼 그 친구 있는데 그 친구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최미경. 대충 그 정도?

면담자 나중에 들어왔던 기혼자 노동자분들은 없으셨나요?

황귀영 없었어요. 다 기존에 있었던. 저희 들어오기 전에 기존에 있었던 분들하고 저희 들어왔던 또래들 정도만 같이 했었어요.

면담자 기타반 하고 나서 노조 언니들하고 되게 친하게 지냈고, 노뚝다리 같은 데도 가보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애기가 나온 건가요? ‘너 이렇게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거 같으니까 같이 해볼래?’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던 건가요?

황귀영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노래패 모집을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조직을 들어왔겠죠? 근데 한 사람한테 ‘너 들어올래?’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또래 친구들이 저희 부서에 3~4명 있었는데 제 친구 또래들이 다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서 쪽에서 한 3명이 같이. 명화하고 명순이가 같은 부서에 같이 일을 했던 친구들이었거든요. 또래였고 그렇게 해서 같이 있었고 이제 다른 부서 쪽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부 언니들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하자.’ 이렇게 했겠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친구들이 ‘같이 하자.’ 해서 ‘야 너 할 거냐? 어떻게 하지? 할까?’ 이렇게 서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면답자 조미숙 선생님은 노래패 끝까지 계속 남아 계셨어요?

황귀영 계속 있긴 있었는데 중간에 계속 간부 활동을 하긴 했었는데 하다가 그만두신 건지 아니면 활동을 접은 건지는 기억이 안 나요. 노래패 활동을 시작하고 이러면서 중간에 제재가 들어왔었어요. 제재는 아니고 단사 내에서 노래패 활동을 하고 이러다가 지역에 집회가 있다가 보니까 ‘노래패 있으니까 한번 나와라.’ 얘기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지역에서 같이 문화부장단 회의를 하고 그 안에서 이 노래패에 있으니까 ‘같이 모여서 하자.’ 이렇게 돼서 하다가 인천지역에서는 노동문화 일꾼 수련회, 여름 휴가 때 모여서 노는 야유회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인천지역 문화선봉대? 문선대? 이런 게 조직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서 문화패들 만나게 되고 임단투 때 모여서 하다가 보니까 집회에서 보게 되고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으로 나와서 같이 하게 됐던 것 같고 임단투 때 워낙에 여기저기 파업을 많이 하고 이러니까 노래를 안 하더라도 지원을 가게 되거든요. 회사 퇴근하고 나면 가고 이러니까. 그러다가 노래패 하니까 노래를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가서 그냥 같이 붙어서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노뚝다리 형들을 만나게 되고 시작을 했던 것 같

아요.

노래패 활동을 시작해서 좀 지났을 때였는데 아무래도 단사에서 임단투 시기 때 보통 보면 단사에서 자체 파업을 하잖아요. 하고 나면 지역에서 모이잖아요. 총파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근데 노래패가 원래 단사에서 있으니까 단사에서 파업을 할 때 같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원래 보통은 다 조합원들하고 같이 움직이고 부평역이든 동인천역이든 집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집회를 하게 되면 어쨌든 문선을 서게 되잖아요. 노래패들이 빠져서 먼저 결합을 하게 되잖아요. 아니면 단사랑 같이 움직이더라도 조합원들하고 있는 게 아니라 따로 빠져서 문선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제재는 아니고 지역으로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노래패나 문화패 활동을 하면서 외부로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다. 단사에서 단도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쉽게 말해서. 이거는 잘 표현해 주세요.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면답자 노래패는 95년 정도 생겼다고 기억하시나요?

황귀영 94년이나 94년 하반기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95년도 때 인천 문화선봉대 활동을 했던 것 같거든요. 95년도에 인천 문화선봉대 같이 활동을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후에 철의 노동자를 만들게 된 거죠.

면답자 멤버들의 열의나 성향 같은 건 어땠어요?

황귀영 다들 되게 좋아했었고, 노래 배우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노래 잘하는 친구도 있고. 저는 사실 노래는 못했는데 그냥 배우고 이러는 걸 좋아했고. 같이 또래와 어울리니까, 사실은 ‘같이 또래로 어울린다.’ 이런 게 더 많았겠죠. 왜냐하면 인천에 올라왔을 때 여기에 친구들이 있었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노래패 하면서 교육 같은 것들도 있었고, 쪽 받고 같이 활동도 하고, 이러면서 거의 같이 뭉쳐 다녔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노래패 수업하고.

면답자 멤버들이 10명 안팎이라고 하셨는데 노래패 활동에 쏟는 에너지들이 높은 편이었던 건가요?

황귀영 높았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최소한 노래패 모임을 진행을 했었고 집회 있으면 그때 당시에는 거의 주 2, 3회는 집회를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특히 임단투 시기 때는 그렇게 다녔던 것 같고

면답자 있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모임을 하고 집회에 쫓아다니고 연대하러 다니고 이렇게 났다는 건 어쨌든 잘 굴러갔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굴러갔을까요?

황귀영 또래가 모이는 것도 있었고 집회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보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지역에서 동지들 만나면

서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모여서 같이 얘기하고 같은 직종은 아니지만 어쨌든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고, 얘기할 거리가 공통분모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어색하고, 아무래도 그랬는데 이후에는 점점 익숙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기도 하고, 그쪽에서 오기도 하고 이렇게 연대를 하니까. 성격들은 애들이 활발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관리자들과도 부딪히고 이러면 아무래도 노래패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더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 같았던 것 같아요.

면답자 노래패 멤버들은 활동가에 준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편이었던 건가요?

황귀영 처음에는 그런 저기는 아니었는데. 그렇죠. 하면서 지역에 나가서 지역 상황들도 보고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점점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민주노총 올라가서 전야제라든가, 메이데이 이런 행사도 올라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깨친다고 그래야 되나? 신경들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면답자 정치적 지향 같은 게 좀 있었나요?

황귀영 그런 건 저희 쪽에서는 별로 없었어요. 대공장에도 현장에 있어도 조직이 되게 여러 개가 있고 대의원들이 있어도 다 다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거의

대의원이 민주노총, 단사 어용은 없었고 어용 쪽에서 들어오거나 이런 저기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단사 내에서 결합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잘 됐던 걸로 기억해요.

면답자 99년, 97년, 98년 이럴 때는 보면 거의 매주 집회에 결합했더라고요. 노뚫다리 같은 경우는.

황귀영 그렇죠. 그때가 IMF 이럴 때라 저희도 서울 올라가고 계속 그랬었던 때였어요. 대부분 웬만하면 빠지지 않았던 거예요. 한두 명씩은 항상 이렇게 결합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는 워낙에 사측에서 억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때여서 가지고.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은 다른 사업장 지원 가고 그쪽에 파업하면 가고 무슨 투쟁이 있으면 또 가고. 끝나고 가기도 했었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휴가라든가 조퇴라든가 이런 걸 쓰기도 같이 가고. 임단투 때도 각자 사업장에서 하는 게 다르잖아요. 지역적으로 같이 총파업하는 게 아닐 경우에는 휴가나 반차 이런 걸 쓰고 조퇴를 하고 가서 노래패를 같이 결합해서 문선을 선다든가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많았죠.

면답자 판 데 연대하러 가면 아남정공의 노동자들이 보통 몇 명 정도가 움직이는 편이었나요?

황귀영 몇 명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조합에서 전체 파업을

해서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대부분이 같이 움직였어요.

노래패의 활동 방식

면담자 다시 노래패 얘기로 돌아와서 기타 반은 어디서 연습 하셨어요?

황귀영 여기 백운고가 있는데 신촌 있잖아요? 그 근처였는데 단체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하기로는 인노문 연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인천지역이 나 지리나 이런 걸 잘 모를 때였었던 때라. 근데 인노문 연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기타반 할 때는.

면담자 그럼 노래패는요?

황귀영 노래패는 단사에서 했었어요. 노조 사무실은 아니었고



노뚝다리 공연 찬조

요. 효성동은 기억이 잘 안 나고. 남동공단에서 할 때 지하공간에 노래방 공간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만들어 휴게실 겸 노래방 같은 지하공간이 있었어요. 거기 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생일자가 있으면 1시간 정도 시간 부서별로 한 달에 한 번씩 사용하는 공간이 있었어요. 식당 옆 지하공간에. 노래방 나오고 그럴 때쯤이었을 거예요. 아마 조합 사무실이 있었을 때는 조합 했었고 남동공단으로 이전했을 때는 거기서 연습을 했었어요.

면답자 언제, 몇 시쯤 모였어요?

황귀영 주에 1일 하긴 했는데 월요일날 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요일날 했을 수도 있는데 기억나는 건 월요일. 월요일 오후 저녁에 7시 정도. 퇴근하고 안에서 밥 먹고 강사님 오시고 해서 같이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1시간 반 2시간 정도 같이 수업하고 시간 되면 나가서 뒷풀이 하고.

면답자 강사는 손동혁 선생님? 아남정공 소리샘의 시작과 끝을 손동혁 씨와 함께하신 건가요?

황귀영 동혁이 형이 처음 시작해서 강습 시작했었고요. 중간에 몇 년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중간에 동혁이 형이 승미 언니를 보조강사 식으로 데리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같이 꾸준히 하다가 교체가 됐죠.

면답자 마지막에 회사가 문을 닫을 때쯤에 노래패 강사는 황
 승미 씨였던 건가요?

황귀영 네.

면답자 그러면 강습이 벌어졌다. 어떤 풍경이었나요? 묘사를
 하신다면.

황귀영 저 화면에 있는 것처럼 노래방 기기가 이렇게 있었고
 소파 같은 것들이 의자 같은 거 좀 있었고 둘러 앉아 악
 보 받아서 연습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동혁이형 있을
 때는 맞추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승미 언니랑 같이
 결합하기 시작하면서 승미 언니가 노래를 전공을 했잖
 아요. 그러다 보니까 벽에 붙어서 복식 호흡 시켜주고
 그런 거 연습하고 목 풀고 이런 거도 하고. 복식 호흡은
 어쨌든 승미 언니가 오면서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목
 풀다가 안 되면 ‘다들 벽에 붙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렇게 했던 걸로 기억해요.

면답자 하루에 한 번에 한 곡씩 배운 건가요?

황귀영 한 번일 때도 있고 익숙하지 않을 때는 몇 번씩 가기도
 하고. 그전에 불렀던 거 복습도 하고. 시기에 필요할 때
 신곡이나 아니면 문선을 선다 그러면 필요한 노래를
 배워서 연습하기도 하고. 만약에 메이데이 때 간다, 그
 전에 노래 기본적인 거 단투구나 딸들아 일어나라 이
 런 걸 배우다가 메이데이 때 올라가야 된다고 하면 인

터내셔널 이거를 기본으로 배워야 되잖아요. 모르니까
손에다가 쓰기도 하고 등 뒤에다가 가려서 쓰잖아요.
가사를 못 외우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죠.

면답자 손동혁 씨가 기타 치면서 노래를 하셨나요?

황귀영 네. 네. 저희는 거의 떼창 위주로 갔었고 이후에 승미
언니가 들어오면서 화음을 조금씩, 남성부가 있고 여
성부가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잖
아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못 올라가는 것
도 있고 낮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언니가 편곡
비슷하게 해서 저희가 부를 때는 여자로 필요하게 가
겠지만, 같이 불러야 될 때 필요하면 나눠서, 높은 데는
살짝 나누어 만들어서 남자 여자 같이 할 때는 나눠서
배우기도 하고 했죠.

면답자 노래는 강사님이 다 정해가지고 오신 건가요?

황귀영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기본 많이들 부르는 것들을 하
고 이후에는 배울 노래를 갖고 오기도 하고. 좀 지나서
는 들어본 거나 아니면 꽃다지 나오고 음반 나오고 이
러면서 우리가 배우고 싶은 노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면답자 제일 많이 부른 노래가 그 ‘딸들아 일어나라’?

황귀영 여성 사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딸들아 일어나라’를
많이 불렀죠. 동지가, 단투가, 딸들아 일어나라 이런 거

위주. 남자 사업장은 딸들아 일어나라 이런 거 안 부르
 잤어요? 근데 여성 사업장이다 보니까 유난히 많이 불
 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동지가, 단투가, 민중의 노
 래, 아니면 철의 노동자. 그리고 딸들아 일어나라 정도
 했었고. 이후에 활동하면서는 여러 가지 부르긴 했는
 데 동물의 왕국? 많이 안 하고 나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3~4명 정도가 있었을 때 우스
 개로 SES 나오고 핑클 나오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
 니까 세 명 모이면 저희는 우리 SES 다, 4명 있을 때 핑
 클이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때 많이 부르던 노래가
 동물의 왕국이었던어요.

면답자 그러면 단위 사업장에서는 공연, 노래를 부르는 건 파
 업 때나 언제 조합원들 앞에 섰나요?

황귀영 파업 때 정도거나 총회 할 때? 그리고 공연을 한 번인
 가? 두 번 정도 하긴 했었어요. 단독이었는데 같이 했
 는지 기억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작은 공연으로 노동
 이 아름다운 세상이 있었을 때, 지하 공간에서 작은 공
 연으로 했었어요.

면답자 그때 그럼 표를 팔았던 건가요?

황귀영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저희
 가…….

면답자 노조에서는 뭘 도와줬어요? 노래패에?

황귀영 어쨌든 조합에서 공간을 마련해 갖고 사측이랑 얘기해서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줬었고. 초창기 때는 강사비 지원을 해줬었고 일단은 그 정도? 그리고 조합 활동할 수 있게, 노래패 활동할 수 있게 최대한 어쨌든 해줬었죠.

노래패 활동 경험 소회

면답자 노래를 하면서 노동가요에 대해서 아니면 노조 활동에 대해서 생각이 변화하는 게 느껴지셨어요?

황귀영 노래를 배우다 보면 노래가 만들어졌던 시기라든가 많이 불렀던 시기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해방을 향한 진군’이라든가, ‘또 다시 앞으로’, ‘민주노총가’라고 그래야 하나? 그런 거 배우고 이럴 때 당시에 투쟁이 어땠다, 이런 것들을 듣기도 하고 이러면서 좀 더 알게 됐죠.

면답자 노래패 구성원으로서 다른 경험을 했다거나 다른 깨달음 다른 재미 이런 게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까? 이런 게 나를 좀 다르게 만들었다. 이런 게 좀 있었는지?

황귀영 그때 당시에는 되게 기억에 남고 그랬던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머릿속에 잘 안 남아서. 물론 노래를 잘하는 친구들이 한두 명 있기도 했고 그렇긴 했지만 같이

부를 때, 저희가 노래 부를 때는 합창이라기보다는 떼창 같은 느낌일 때 여러 명이 모여서 불렀을 때 여러 명이 불러서 하나로 딱 모아져서 시너지가 확 올라오는 떼창만이 가지고 있는 느낌? 그 감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같이 하기도 했고 화음도 하긴 했는데 화음 넣었을 때도 있긴 하지만 많이 모여서 한꺼번에 같이 떼창을 부를 때 심장을 벌렁벌렁하게 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럿이 모여서 하나로 모아가는 느낌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면답자 그런 경험들은 많을 텐데, 노래 들으면서 심장이 박동해서 깊어지거나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으세요? 할 때나 들을 때나 어느 쪽이든.

황귀영 모르겠어요. 노뚝다리 공연할 때 ‘하늘’이라는 노래를 들었을 때 창구 형이 불렀었는데 그 ‘하늘’이라는 노래 느낌이라든가 그 형이 가지고 있는 노래의 허스키함과 이런 게 노래에 묻어났을 때. 그리고 정말 노래를 잘 해서 잘하는 사람이 부르는 느낌하고 현장에 있던 본인의 목소리를 가지고 내 목소리를 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딱 들어왔을 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면답자 귀영 선생님이 ‘네가 노래에 있으니까 좋다라거나, 너

노래 이번에 되게 좋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으
세요?

황귀영 제가 꾸준히 하기는 했었는데 사실 노래를 잘 못 잡아가요. 혼자 부르면 처진다거나 되게 불안한 게 많아서 잘 못 잡아가요. 그래서 같이 부르면 쫓아가고 이런 게 좀 많아요. 그래서 노래 잘하는 친구들이 되게 부러웠었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같이 활동할 수 있게 같이 하기도 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면담자 처음에는 강사 선생님하고 같이 부르는 활동을 반복하는 쪽이었다가, 지역의 활동들이 많아지면서 문선대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이 많아지는 쪽으로 변화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황귀영 단사 저기로 하다가 중간에 같이 모여서 하고 지역에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전국 문화패 수련회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워낙 많았잖아요. 그래서 여름 휴가 때 무주라든가 하계 수련회 갈 때도 인천 같은 경우는 워낙 문화패들이 많아서 같이 많이 움직였어요. 같이 움직이는 일이 많았죠.

면담자 노래패 멤버들이 활동이 많아지고 투쟁 현장에 많이 다니는 변화를 잘 수용하셨다는 얘기신 거죠?

황귀영 중간에 힘들어하기도 했고, 그만두겠다 얘기도 나오고

사실은 그랬죠. 아무래도 집에 늦게 들어가기도 하고, 내 일정이 없어지는 것도 즐기거나 정말 좋아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이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하기도 했고 그러면 같이 가서 술 한 잔 하면서 같이 얘기도 하고. 이 친구가 좀 달래놓고 나면 또 다른 친구가 고민거리가 생기고 이럴 때도 있고. 서로 같이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소리를 듣고 나면 사실 기운이 빠지잖아요? 그리고 다른 단사 친구들이 있으니까 같이 모여서 ‘개가 너무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한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언니들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 언니들이 개들 한 번씩 만나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같이 단도리하고 같이 ‘가자, 가자, 가자, 잘 가세.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명씩 지칠 때 옆에서 같이 이렇게 해주고 이러면서 갔던 것 같아요.

면답자 노래패 활동하면서 어려웠던 거는 멤버들이 힘들어하는 거 말고는 별로 없었나요?

황귀영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냥 재밌고, 같이 있고, 투쟁 현장에 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너무 좋았고, 가슴 떨리고 벅차고 이런 느낌이 워낙에 강하기도 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공장에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되게 맞다? 당연하다? 처음

에는 몰랐다 가다가 보니까 점점 그렇게 됐던 것 같고
그러면서 노래패 식구들끼리 노래패 동지가 거의 식구
라는 개념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면답자 그럼 그때 회장이 누구셨어요? 회장이 조미숙 선생님?

황귀영 노래패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바
뀌어 가지고 돌아가면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적도 있었고. 처음에는 아마 미숙 언니가 대표를 했
었던 것 같고요. 나중에는 정명순이 했던 적도 있고. 제
가 했던 적도 있고. 숙이가 했었던 적이 있나? 미경이
가 했었던 것도 같고. 하여튼 돌아가면서 했었던 것 같
아요. 한 사람이 계속하지 않아서 한 사람이 몇 년 하다
가 이제 또 다 바꾸기도 하고 주로 1년, 2년 하면서 돌
아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면답자 연대 집회 같이 하는 거는 회장님한테 연락이 오고, 그
러면 거기에 맞춰서 미리 연습할 거 있으면 미리 연습
을 하고, 예를 들면 ‘인천대에서 집회가 열리니까 그 전
날 아니면 몇 시간 전에 모이자고 하더라.’ 그러면 같이
모여서 가든가 만나서 같이 연습하고 행사하고 뒤풀이
하고 헤어지는 이런 식이었던 건가요?

황귀영 네. 인천에서는 가을문화제 할 때, 처음에는 가을문화
제였었거든요. 그때 결합할 때는 단사별로 장기 노래
자랑 하는 식으로 했었으니까. 그때 처음에 저희가 만

들어지고 가을문화제가 인천대에서 있었던 걸로 기억
 해요. 그때 저희가 개량 한복을 맞춰가지고 개량 한복
 에 오바르크라고 해서 ‘소리샘’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입고 나가서 노래를 불렀던 거로 기억해요. 초창기 때.
 만들어지고 1년인가 2년 있었을 때 그렇게 진행을 했
 었던 것 같아요. 그때 ‘민들레 합창’ 아니면 ‘민들레처
 럼’ 그런 거였을 거예요. 아마.

면담자 그럼 다른 노래패들하고도 가깝게 지내셨어요?

황귀영 네. 다 또래이기도 하고 친했어요. 다들 어쨌든. 일 자
 체를 같은 공장에서. 대공장처럼 공장이 멀거나 이러
 지는 않으니까 점심 때 밥 먹으러 가거나 시간차가 있
 기는 하지만 얼굴 보려고 하면 거의 볼 수 있는 상태였
 었죠.

면담자 ‘인천노동자노래패연합’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니죠?



1994년 인천가을문화제

황귀영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에 문선대 활동을 같이 하고 96년 초반이나 후반이나 이때 인천지역 금속노동자노래패 철의 노동자를 만들었어요. 노뚝다리랑 한라중공업 이랑 저희가 같이 결합을 해서 시작을 했었던 거고요. 그전에 제가 하기 전에 인천노동자노래패연합 이런 걸로 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면답자 그럼 철의 노동자는 얼마나 자주 모였어요?

황귀영 노래패별로 총회가 다 있어요. 철의 노동자도 총회를 1년에 한 번씩은 해요.

면답자 철의 노동자는 상하반기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전에 모였던 건가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정기적으로 연습을 했던 건가요?

황귀영 한 달에.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연습을. 한 달에 한 번인지 모르겠는데 연습도 했었어요. 단사별로 하다가 나중에는 같이 연습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2000년대 초반쯤에 없어지고 그 이후에 영창도 중간에 없어지고 그러면서 모여서 연습을 한 달에 한 번 했던가? 이게 너무 한꺼번에 같이 일어났던 거라 하여튼 그러면서 같이 모여서 연습도 했었어요.

면답자 철의 노동자는 강사가 없었어요?

황귀영 동혁이 형, 승미 언니, 노뚝다리도 동혁이 형이 강습을 하다가 나중에 승미 언니랑 같이 결합을 했었고, 저희

도 동혁이 형이 하다가 승미 언니랑 같이 결합해서 우리는 여자 쪽이라서 어쨌든 했었고, 한라중공업도 동혁이 형이 강습을 했었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모여서 하기도 많이 했었어요.

면담자 혹시 세미나 같은 것도 하셨어요?

황귀영 네. 철의 노동자가 만들어지고. 철의 노동자 소모임이라고 해서 일단 놀자가 목적이긴 한데 모슬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철의 노동자는 아니었어요.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했던 것 같아요. 기행 소모임 같은 걸 진행했었고. 철의 노동자는 철공소라고 ‘철의 노동자 공부 소모임’이라고 우리끼리 그냥 만든 모임이에요. 그렇게 해서 당시에 공산당 선언이라든가, 그런 책들 있잖아요? 읽어보고 하는 정도로 진행을 했었죠. 왜냐면 그리고 철의 노동자 안에 이제 기획? 교육? 이렇게 하는 담당을 우리가 따로 뒀었나? 그때 시기에 신자유주의라든가 중요한 이슈 같은 게 있었을 때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토론까지는 아니고 교육을 받고 이런 것들을 진행했었죠. 총회를 갔을 경우, 총회를 가게 되면 기본 12시 1시까지 토론 쪽 진행하고, 교육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랬으니까.

면담자 철의 노동자 활동할 때는 민주노총 인천본부에서 도와주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황귀영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면답자 연습은 어디서 하셨어요?

황귀영 더늠하고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이 같이 있었으니까 그 공간에서 많이 했죠. 필요할 때는 노뚝다리 안에 조합 안에 들어가서 그 공간을 사용하고 아니면 한라중공업 노조 사무실을 쓴다든가 그랬던 것 같아요. 노동 세상 아니면 더늠 공간을 많이 썼죠.

면답자 꼭 하는 집회는 11월에 노동자대회? 여름에 캠프 같은?

황귀영 있을 때는 주로. 이후에는 별로 없었고 90년대 후반 이 때쯤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인천지역에서 인천지역 노동자 문화일꾼 야유회라든가, 여름 하계 수련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한두 번씩 모여서 인하대 운동장에서 야유회 같은 것도 했어요. 기억 남는 거는 다 모여서 같이 놀고 막걸리를 세숫대야에다가 막걸리 들이 붓고 거기다 빨대로 막걸리 빨리 마시기 이런 거 하면서 여러 가지 게임 같은 거 진행했었고 예전에 송도유원지 있었을 때 여름에 같이 모여서 놀고 같이 음식 해 갖고 먹고.

면답자 상반기에는 임단투 출정식 같은 거?

황귀영 그거는 그렇죠. 인천본부에서 진행하고 그리고 노동해방이라 그래야 되나? 노동자대회 전야제 때, 그때 인노협 사무실에서 풍물패, 노래패, 단사 있는 문화패들

이 다 모여가지고. 다 전체로 모여서 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시간 되는 대로 해서 파트별로 나눠서, 그때는 노래한다고 노래패만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풍물도 하고 늘 했던 사람들이 집체극이니까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깃발 들고 춤추는 사람도 있었고. 플랫카드 뒤집어쓰고 움직이는 팀들도 있었고 풍물 치기도 하고 노동 해방이라고 정확히 몇 년도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인천에서 연세대 쪽에 올라가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뒤에 언덕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밤이라 깜깜하고 보이지는 않는데, 라이터불만 보기에는 정말 신기한 경험도 있었고 그랬죠. 그게 많이 기억에 남기는 해요.

면답자 아남정공 노래패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많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존중받지 못한다든가 성희롱을 당한다든가 그런 경험들도 있으셨는지?



노들다리공연축하_아남공연

황귀영 아무래도 여성 사업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긴 한데 많이 챙겨줬어요. 대공장이 남성 사업장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많이 챙겨줬던 기억이 많이 남아요. 물론 개별로 술 먹는다가 얘기하게 될 때 너무 가부장적이거나, 약간 심하게 나올 때는 그냥 안 넘어가. 그냥 넘어가지 않았죠. 막말로 티격태격한다든가 큰 소리가 난다든가 그런 경우는 좀 있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많이들 챙겨줬어요.

면담자 노래패 활동을 통해서 뭘 배우셨어요? 노조 활동도 노조 활동이지만 노래패 활동을 하면서 이런 걸 좀 배운 것 같다. 느낀 것 같다. 나는 이렇게 좀 달라진 것 같다.

황귀영 글썄요. 잘 모르겠는데. 조합 활동하면서 보다는 노래패 활동하고 연대하고 이러면서 훨씬 더 많은 걸 보고 느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단사 내에서 조합 활동만 하는 것보다는 외부로 나가서 다른 상황을 겪고, 보고, 체험하고. 다른 데서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저런 일도 벌어지는 걸 직접 듣기도 하고 겪기도 하고 그 사업장에 내려가기도 하고 지원 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훨씬 더 세밀하게 접하게 됐던 것 같고 새로운 걸 많이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노래패 활동을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노래 공연도 하고 그 지역의 노래패 사람들도 만나고 활동 반경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넓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뭘 얘기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활동하면서 성격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내성적이었던데 훨씬 내 생각이라든가? 그때 처음에는 말도 잘 못하고 얘기도 못하고 그냥 듣기만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활동하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얘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함께 같이 만들어간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성취감 이런 것들을 훨씬 많이 느꼈었던 것 같고요. 여전히 아직도 나는 노동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면담자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뭐 좋아하세요?

황귀영 ‘노동자의 길’, ‘새’ 그리고 ‘이 길의 전부’, ‘세상을 바꾸자’ 이런 거. ‘바리케이트’, ‘메이데이’ 노래도 나왔을 때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잘 안 듣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참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면담자 인천의 노동자 노래패? 인천의 노동문화 운동은 다른 지역과는 어떤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황귀영 다른 지역에서 제가 활동한 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인천이 뭐라고 표현하기는 좀 힘든데 인천이 가지고 있었던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

나? 인천이 워낙에 문화패들이 많아서 같이 결합하고 모이고 활동 하는 거가 있어서 그런가? 다른 지역도 물론 연대를 하고 다 같이 하긴 했겠지만, 인천이 대공장도 있긴 했지만, 워낙 중소기업들이라든가 작은 공장들이 많아서 같이 연대하고 같이 결합하고 이런 끈끈함 같은 것들이 더 찼했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면담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한국의 문화운동 아니면 노동운동 이런 것 속에서 노동자 노래패 활동이 어떤 역할, 어떤 결과,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황귀영 제가 평가할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노래패 활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었고. 노래패나 풍물 문화가 선봉대, 문선대 이런 쪽으로 해서 앞에 나가서 많이 보여주기도 했고, 같이 가자고 선동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도 있고. 조합원들이 많이 알리고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노래패가 조합원들에게 노래라든가 전체적인 것들을 알려주는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노래패나 문화 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끼고, 겪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생각이 좀 더 깨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유지하는 분들도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자기 분야를 더 넓혀간다고 그래야 되나? 대의원으로 가기도

하고, 간부로 올라가기도 하고, 거기서 위원장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게 있는데 밀바탕에는 문화 활동이라든가 활동의 경험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던 것 같아요. 간부들이 노래패나 문화를 조직해서 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면서 조합으로 끌어들이고 활동 영역을 넓혀주는 건 좋은데, 그걸로만 보는 시선은 사실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어떤 얘기인지 아실까요?

면답자 활동가를 육성하는 방식으로만…….

황귀영 네, 네, 너무 그런 식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문화를 너무 약간 도구로, 향유할 수 있고 같이 모든 사람이 같이 이렇게 느낄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구로서 자꾸 사용하려고 했던, 배우고 활동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그런 데에 부딪히고 그런 걸 느끼면서 안 하기도 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었던 것 같아요.

면답자 네, 나중에 사진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상희

영창악기 노래패 ‘들풀’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면담 일시	2024년 9월 7일 토요일 16:00-17:30
면담 장소	부평문화재단 2층 회의실
주요 이력	영창악기 노래패 활동 인천지역 노동자문화패연합 철의 노동자 활동 지역 기타모임 활동 중 인천 사랑병원 근무
핵심어	영창악기노래패 ‘들풀’, 인천지역노동자연합노래패 ‘철의 노동자’ 민주노조, 숨구멍, 연대활동, 연합공연, 수련회, 인천노동자문화일꾼체육대회, 96·97총파업, 명동성당, 노동자대회 전야제

* 영창 악기 :

1971년, 한국 자체 브랜드로 시작한 피아노 및 기타 공장으로 인천 가좌동 소재.
98년 IMF 이후 위기를 대량감원과 구조조정으로 희생하고 현재에도 가동 중임.
한국 피아노는 인천에서 처음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음.

손상희 녹취문

들어가며, 최근 근황

면답자 2024년 9월 7일 오후 4시부터 '부평음악도시 음악일기 노동자노래패 구술사업'의 첫 번째 손상희 님하고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상희 안녕하세요.

면답자 응해줘서 고맙고 바쁘데 시간 내줘서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소개를 지금 뭐 하고 뭐 하는 분이죠? 어디 있어요?

손상희 지금 일하죠. 사랑병원 내시경실에서. 17년도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고. 그래서 9월에 취득하고 11월에 취업을 해서 여지껏 다니고 있어요.

면답자 지금 어디서 누구랑 살고 있어요?

손상희 가좌동에서 김웅기 씨, 남편과 고2 아들이랑 셋이 살고 있어요.

면답자 다 컸네. 하지만 지금이 제일 힘들 때네.

손상희 그렇죠. 애 픽업 다니느라고 피곤해 죽겠어요. 과외! 과외가 보통 고등학생들은 늦게 해서 허리가 흰다고.

면답자 사랑병원에서는 교대 근무?

손상희 아~아. 소화기내과 내시경. 이제 내시경실이라서 상근

직이에요. 상근직 낮 근무만.

면담자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근데.

손상희 그러니까 요즘 막 이것저것 둘러보고 있어요. 중장비
학원을 다녀볼까?

면담자 어울리는 것 같아요.

손상희 그렇죠? 중장비를 따서 쿠팡 물류센터로 들어갈까?

면담자 쿠팡은 안 돼.

손상희 농담. 시골 가서 땅을 파야 되나?

영창악기에 취업한 과정

면담자 고향은 어디예요?

손상희 고향? 태어난 데? 태어난 건 아버지가 당진분인데 일하
러 부산 가서 있다가 그때 제가 태어나고. 그리고 10살
에 여기 인천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부산 기억이 없
어요. 9살 마무리하고 올라온 것 같은데. 10살 겨울방
학인가? 아무튼 그때 봄방학이었나? 그때 올라왔던 것
같아요.

면담자 그럼 계속 그러고 나서 인천 살았던 거? 초중고를 다
여기서 나왔고?

손상희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인천 사람인 거죠. 부산은
전혀 기억이 없어요. 요즘 애들 뭐 10살 정도 되면 기

억한다지만 저는 뭔가 이벤트가 뭉 있는 거 빼놓고는,
엄마가 돌아가신 거? 뭐 그런 거. 그리고 길 잃어버려
서? 그런 이렇게 정말 이벤트 있는 그런 거 빼놓고는.
지리도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냥 인천이죠.

면담자 그러면 처음에 취업을 한 데가 영창악기였어요?

손상희 취업한 게 아니라. 이제 부광여고라고 고등학교에 진
학했는데. 한참 방황하던 시기? 이제 집에 엄마가 돌아
가셨고. 새어머니가 같이 있는데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겠어요? 공부를 안 하겠죠? 계속 나
돌고 아무튼 뭐 교회 다니고. 교회 옛날에 '연애당'이라
는 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남자애들 보면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반만 취업반
같은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 해에. 공부 안 하는 애들
'저 반으로 갈래?' 라고 이렇게 하면 계속 갔는데 거기
에 직업훈련원이라고 영창에서 그걸 낸 거예요. 그때.
그래서 조울반이랑, 도장반이랑, 페인트칠 도장. 그래
서 '아, 학교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구나.' 또 그리고 교
육비도 준다고 하니까 그때 교육비가 최저시급보다는
조금 낮게였던 것 같아. 그때 한 아마 최저시급이 한 달
치하면 40 정도 됐을 때 같은데. 30만 원의 교육비를
준다는 거예요. 어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큰 돈이잖아
요. 그래서 '공부도 안 하고 하니까 가야 되겠다.'하고

가서 직업훈련원이 6개월? 6개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6개월 과정이어서 그 과정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기도 되고, 내가 알아서 취업을 해도 되고,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냥 거기서 취업을 할래? 웃긴 건 조율반은 그 수업비가 27만 원이고 도장은 30만 원이었던 거야. 조금 더 많은 도장반을 간 거죠. 근데 그러고 난 뒤 취업을 했는데 도장반은 아가씨들이 거의 없어. 진짜 전체 한 전체 인원이 한 100명이 넘는 그 중에서도 아가씨 한 네다섯 명 되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아저씨들, 남자들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거기 그냥 취업을 했죠. 조율로 갔으면 여자애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면담자 일찍 취업했네.

손상희 그렇죠. 고3을 학교에서 지내지 않았죠. 시험 볼 때만 가서 보고 뭐 나오고.

면담자 그 영창이 다 피아노만 만들던, 여기는 다 피아노만 만들던 거죠?

손상희 피아노. 공장이 제가 입사할 때 3개였어요. 1공장, 2공장, 3공장인데. 1, 2공장은 피아노고. 3공장은 기타랑 전자피아노.

면담자 몇 년도야 그게?

손상희 92년도?

저는 2공장. 2공장에서. 그 2공장이 지금 영창악기 본

사가 있는 데예요.

면담자 영창이 지금도 여기에 있어?

손상희 그곳에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부지가 이만했으면. 이렇게 동이 있잖아요. (종이에 그림을 그리면서) 딱 정중앙에 한 동인가, 두 동만 뺄두고 다 분할 다 매각하고. 1공장도 매각하고 3공장도 다 매각하고. 그때 한번에 거의 다 나갔잖아요. 한 100몇 명 뺄두고 싹 다 나갔어.

면담자 몇 년도지? 정리한 게?

손상희 그걸 기억을 못해요. 제가 정리하기 전에 퇴사를 했거든요.

면담자 그래도 한 2000년대 초였나?

손상희 2000년대 초인 것 같아. 내가 그만둔 시기가. 저 딱 만 7년 다니고 그만뒀거든요. 딱 7년 다니고. 그리고 난 뒤에 조금 뒤였으니까 2000년대 초반인 것 같아요.

면담자 IMF영향, 그런 핑계. 이런 거 다 있었었지?

손상희 핑계죠. ‘앗싸!’한 거죠. ‘이때다!’하고

면담자 받아들였지.

손상희 이때다 하고 싹 다 이제 외부로 다 내보내고 그랬죠.

어린 시절의 상처

면담자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 어릴 때? 몇 살?

손상희 2학년?

면담자 그럼 서울, 여기 인천 오기 전에? 부산에서?

손상희 부산에서. 그러고 난 뒤에 1년을. 부산에서 그러니까 그 언니랑 언니들이랑 살았지. 아버지는 그 몇 년 전에 인천으로 올라왔고. 거기가 공장이 폐업하고. 아버지는 이제 직장 찾아서 인천으로 올라올 때, 오빠는 데리고 올라오고 한 1년 후에 우리 다 같이 올라간 거죠. 올라온 거죠.

면담자 몇 남매였는데?

손상희 사남매. 아들, 딸, 딸, 딸.

면담자 그럼 올라와서 그럼 아버지가 새 엄마랑 결혼하셨어?

손상희 아니 엄마 돌아가시기 전부터 있었어. 나중에 안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오랫동안 아프셨고.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나이가 30대니까 아버지도 혼자, 핑계긴 하겠지. 인천에 올라와서 하숙집에 있었는데 하숙집에 일하는 아줌마였대요. 그러니까 뭐 좋다고 붙어 있는데. 싫다고 거부하지 않은 거겠죠, 뭐.

면담자 그럼 올라왔을 때. 같이 그럼 두 분이 계셔서 다 같이 산 거예요?

손상희 그렇죠. 다 같이 같은 집에서.

면답자 되게 좀 힘들었겠네요.

손상희 난 내가 막내고 철이 없어서 별로 기억을 못해요. 나쁜 기억들은 있긴 한데, 그것도 요즘 새엄마들은 안 그러는데 옛날 새엄마들 진짜 못됐잖아? 우리 새엄마도 그랬거든. 모르지 뭐. 하여튼 근데 저는 그래도 언니 오빠들이 있어서 다 이제 그 막을 다 쳐주는 거지. 다. 그래서 철딱서니 없이 언니 오빠들한테 많이 힘들게 했지.

면답자 아이구. 마음고생 많이 했네.

손상희 지났으니까. 그래 나도 방황하지. 젊은 시절 맞아요. 그 당시에는 또 다 힘들었잖아요. 뭐 풀 데도 없고. 지금처럼 무슨 뭐 선생님이라고 그런 관심을 가져주기를 해. 선생님 자기 그거밖에 모르고 막 진짜 막 우리 그 당시에. 나 초등학교 3학년 때 딱 왔잖아요? 근데 그 선생 이름을 까먹을 수가 없어요.

면답자 너무 못 됐나?

손상희 여자 선생님인데 신○○야. ○○.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없어. 촌지를 갖고 오는 아이만 챙겨. 그 어린 나이에 또 그게 너무 잘 보여. 이게 딱딱 보여. 그러니까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애가 반장도 못 해. 공부 잘해도. 우리 때는 원래 공부 잘하면 반장을 시켜주잖아요? 그런데 반장 엄마가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니네 엄마

시간 없잖아.’ ‘너네 엄마 돈 없잖아.’ 대놓고 말 못하니까 ‘너네 엄마 학교에서 활동하는 거 다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니?’ 막 이러는 거. ‘그러니까 넌 반장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러면 아이들이 다 보고 ‘아, 재는 반장하면 안 되는구나.’ 선생님이 ‘너 반장하면 좋겠어.’ 이렇게 딱 하니까 애들이 투표를 하잖아요. ‘아 재를 뽑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애들 체벌을 되게 많이 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체벌 당할 일은 별로 없어. 하면 되니까. 그런데 암전히 있어도, 공부 못하고, 돈 없는 애들은 혼났는데 그때 그 선생만 이름이 아주 선명해. 나머지는 이름도 생각 안 나요. 좋았던 선생님 생각도 안 나. 되게 잘 해줬던 선생님도 있는데. 그 선생님 생각이 안 나요. 못 났던 그 신○○만 생각나네. 돌아가셨을 거야.

면답자 그런 게 막 쌓여서 반골기질이 형성된 거 아니었을까? 아이고 고생했네. 의지할 데도 없어.

손상희 맞아요. 그 시대는 뭐 핑계를 삼자면 그 시대는 뭐, 힘들었죠.

면답자 경제적으로도 어쨌든 막 여유 있고 그렇지도 못했을 거 아니야?

손상희 그렇죠. 그러니까 학기 초에 모든 아이들이 다 생각을 할 거야.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볼까?’라는 생각이 있잖

아요. 근데 국어든 뭐든 이런 것들은 하면 되는데. 수학을 딱 첫 단원에 딱 들어가서 딱 하려고 딱 해. 근데, 친구가 집합에서 끝난다는 거야. 집합이 1단원이잖아. 근데 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밑에 깔려 있는 게 없으니까 기초가 안 되니까 또 다시 좌절하는 거지. 그럼 뭐 공부,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할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학원을 보내달라고 했지. 그 시대에 학원 다니는 애들도 많지도 않았고. 학원이 아니라 학습지 같은 거 뭐 이런 거 해달라고 그러는데 못 해주더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제일 미안해하긴 하는데 그리고 저는 공부보다는 음악이나 미술 쪽으로 선생님들이 계속 들어왔었거든. ‘해 봐.’ 계속 이렇게. 그런데 철없이 아빠한테 가서 막 이야기해. 그때 그래서. 아빠가 안 된다고는 했지.

손상희 그런데 나중에 결혼할 적에 아무튼 그때 한 10장의 편지를 써서 주셨어요. 아버지가.

면답자 대단하시다.

손상희 그렇죠. 되게 감동스럽긴 했지. 그래서 내가 뭐 기억나는 게. ‘내가 후회되는 게 너희 엄마 살리지 못한 거.’ 그리고 뭐 하더니 ‘너 초등학교 3학년 때 미술 시키면 잘할 것 같다고 선생님한테까지 전화 왔었는데 내가 못 해준 거. 그 중학교 때 또 미술 쪽이었고, 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한테 직접 전화와서 성악시키라고 했는데 못 해준 거.’ 나도 모르는 기억나지 않는 그런 것들 이야기하셨죠.

면답자 그런 좋은 기억은 왜 다 잊었을까? 그래도 아버지가 기억하고 계셨네.

손상희 글썄요. 그랬겠죠. 근데 아버지도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면답자 그 당시에는 다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손상희 근데 우리 아버지는 진짜 잘못했어. 그러니까 새엄마가 우리랑 이야기만 하면 ‘너 네 자식한테 뭐 해줬어 몰래? 나 몰래 뭘 해줬냐?’ 이렇게 다툼을 하니까. 일을 해야 하는데 밤새 괴롭히는 거야. 그러면서 아빠가 그 때부터 당신이 살고자 우리들을 아예 이렇게 관심을 끄신 거죠. 그래야 자기가 편하니까. 이게 다 크고 한참 성인이 되고 뭐 하고. 그리고 새어머니가 집을 나가시고. 지금 우리 신랑 만났을 때는 없었어. 기억을 잘 못하는 게 내가 그 집에 사는 게 너무 답답하니까 계속 나가는 거야. 바깥에서 직장생활 할 때도 친구 집에서 자고. 그리고 여기 낙원아파트라고 여자 아파트 있잖아요?

면답자 기숙아파트 같은?

손상희 기숙아파트. 나는 조건이 안 되니까. 친한 언니 사는 데

서 옆에서 살고 하니까. 이제 오빠가 그때는 결혼을 했을 때인데. 어디더라 경기도권 쪽에 있어서 했는데. 오빠가 이제 인천으로 오게 된 거야. 올케언니랑. 그러니까 오빠네 집에 자주 가는 거야. 자주 가서 자고 하니까 한 방에 내 짐이 이렇게 점점점점 쌓여. ‘아가씨 그냥 아예 들어와.’ 이러더라고. 그래서 오빠랑 같이 살아서 좋아요. 지금도 좋지만 진짜 착해요. 정말 아이들도 너무 이쁘게 잘 키우고 성품이 진짜 너무 좋아.

면답자 그래서 마음은 되게 안쓰럽게 또 많이 챙겨줬네. 오빠가 또.

손상희 맞아요. 오빠도 들어오라고 해서 거기서 살다가, 결혼할 때까지 오빠랑 같이 있다가.

회사 생활과 노조, 노래패 활동

면답자 음악 좋아하고, 미술 재주도 있었고, 악기 만드는 게 재미있었어요? 영창악기. 도장 일이잖아.

손상희 재미졌어요? 도장 일인데 그거 완전히 무슨 재미가 있어. 뼈빠질 하는 건데. 내가 뿌리는 스프레이, 나는 할 수 있는데. 나 되게 잘할 수 있는데. 거기는 여자가 없어요. 다 남자예요. 스프레이 뿌리는 거.

면답자 그럼 뭐 했어? 어떤 일을 했어?

손상희 그랜드피아노, 도장을 제일 먼저 목공 쪽에서 다 하고 도장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하도 작업하고, 상도 작업을 해요. 그러면 하도 작업하고, 사포로 싹 밀고 상도를 해요. 그러면 그 상도한 거를 우리 부서에 오면 그 안에 바깥은 기계가 하고 안쪽예를 사람이 사포질을 하는 거죠.

면답자 밑에 먼저. 1차를 하는 거야?

손상희 그러니까 프라이머처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상도를 1차 뿌리고. 그 다음에 2차를 세 번인가를 뿌려요. 그리고 난 뒤에 완전히 건조하고 난 뒤에 안에를 구두 칼로 먼저 옆에 부서에서 짹 이렇게 긁어줘. 그러면 옆으로 오면 우리 부서만 딱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거 사포질하는 부서만. 딱 거기 다 아줌마 10명 정도였는데 미스가 3명 정도 3~4명 있었고, 다 아줌마. 둘씩 짹 지어서 그 하나를 닦아내는 거야.

면답자 그렇다면 노조 가입은 먼저 한 거야? 노래패를 먼저 가입한 거야?

손상희 그게 그러니까 내가 그걸 기억을 해내려고 며칠을. 기억이 전혀 나질 않지. 나뻐던 건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좋은 건 기억나지 않지. 입사하고 한 3년 정도 돼서였나? 그때, 그때가 몇 년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위원장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그때가 한국노총이었다가 민

주노총 가기 그쯤에. 그때 전체적으로 그때 거의 인천 대부분의 대공장들이 다 파업하고 그 시기인데. 그때가 몇 년도인지 몰라. 기억이 나지 않아.

면답자 96, 97 총파업(미디어법,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항의하는 전국노동자총파업투쟁) 때는 있었어?

손상희 그때였던가 보다. 제가 그 총파업할 때 있었어요. 총파업할 때 생긴 거예요. 제가 들어간 것 같아. 노래패가 우리가 그때 그래서.

면답자 원래 먼저 노래패가 있었어?

손상희 아니 없었어요. 없었어요. 만든 거야. 그 때 96, 97 가면서. 그게 96, 97이구나.

면답자 왜 왜 날치기 통과 왜, 맨날 명동성당 가고.

손상희 맞아요. 날치기법 해 갖고. 명동 가고. 그때 제가 치질 걸렸다고 했어요, 우스개 소리로.

면답자 맨날 추운 데서.

손상희 추운데 바닥에 앉고 손하고, 요즘처럼 지금 그렇게 좋은 패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발도 겹나 발꼬락 시렸고 노래패 하려니까 손가락이 추워 죽겠는데 마이크는 잡아야 되고. 그때 만들었어요.

면답자 근데 그러면 어쨌든 그 한 3년 동안 뭔가 이렇게 그래도 노조가 있는 건 알았을 거고? 노조 활동이나 이렇게 보면서 그러다가 96, 97 총파업을 갑자기 혼자 올라가

지 않았을 거 아니야?

손상희 누군가가 꼬인 거지.

면담자 그러니까. 누구요?

손상희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부서였나? 개가? 김청호인지, 박청호인지 김청호라고 있는데, 노래패에. 오늘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이 났잖아요. 생각을 해보는데 기억이 너무 안 나는 거예요. 누구였지? 내가 왜 했지? 생각하니까 딱 딱 생각이 났는데. 그 부서였던 것 같은데. 우리 같은 부서 애였는데 그때 같이 노조 활동하기 전에 우리끼리 막 동호회. 볼링 동호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했던 게 있는데. 그때 그 오빠가 먼저 대의원을 했을 걸? 대의원인지, 노조 활동을 노조 활동은 안 했던 것 같은데. 노조 활동을 하고 있었나? 그래서 이제 ‘노래패를 만든다. 너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놀고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그때 노래방이 한창 막 생길 때였잖아요.

면담자 같이 어울리던 사람?

손상희 같이 어울리던 사람이니까 그 부서 사람이라서. ‘너 노래 잘하잖아. 노래패 한번 해 봐’ 이러는 거야.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는데 ‘노래패가 뭐야? 합창단, 중창단 같은 거야?’ 그랬더니. 아이~ 그런 거래 소규모여서 중창단 같은 느낌이라. 아, 그래? 노래하는 거 워낙에 좋아

하니까 그리고 그 내가 잘하는 거 뽑내고 싶은 내가 약간의 이렇게 드러내는 성향도 있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딱 갔는데 거기서 그때가 첫 모임이야. 여자애 2명. 나랑 민소영이라는 애랑. 개가 어렸어. 나보다 어렸어. 아무튼 개랑, 나머지 한동훈 있고, 민병기 형 있고.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아. 몇 몇 있어.

면답자 대략 몇 명 정도가?

손상희 10명이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0명이다. 10명. 여기 빼고. (노래패 찍은 사진 보여줌) 청호 형 빼고. 3명이 울동을 다 같이 하긴 했는데 거기도 올라갔어요.

면답자 울동도 하고?

손상희 성걸이 형 있고.

면답자 성걸? 김성걸!

손상희 네 맞아요. 김성걸.

면답자 맞아 맞아. 이 양반 돌아가셨지.

손상희 몇 년 됐지. 몇 년 됐지 2~3년 됐죠.

면답자 맞아. 아이고.

손상희 성걸이 형이 결성한 거예요. 거의. 성걸이 형이 거의 다 이렇게. 이런 거 ‘다른 데 다 이제 문화패도 있고. 문화패 안에 노래패도 있고, 풍물패도 있고 뭐 다 있다. 하자’ 해갖고 만든 거죠. 그래서 첫 초대 회장이 김성걸인

지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성걸이형이 첫 민주노총(영창악기 민주노조를 잘못이야기함) 위원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동훈이.

면답자 민주노조 됐을 때.

손상희 노조 위원장이었어요. 맞아 성걸이형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동훈이 형이랑 몇 명. 아무튼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가서 첫 모임에 노조 사무실이 되게 좋아요. 위원장실이 있고, 좁은 데 소파 같은 거 있고. 거기 다 모였는데 동혁이 형이 첫 우리 강사였죠.

면답자 손동혁?

손상희 손동혁이. 그래서 딱 왔는데 기타 하나 딱 들고 오시고. 노래를 배우는데 그전에 이미 이렇게 파업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본 노래패 노래들이 들어보기는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노래를 처음 첫 노래가 기억이 안나.

면답자 그래도 어쨌든 이 96, 97 총파업하고 비슷한 시기여서.

손상희 맞아요. 그때 될 텐데.

면답자 어쨌든 뭔가 그전에 이 노래를 접할 기회가 있었던 거잖아? 이런저런 안에서 무슨 노조 만들면서 뭔가 어쨌든 집회를 한다할지.

손상희 아니 근데 거의 민주노총 올라가면서 거의 동시에 만 들어졌어요. 노래패 자체가. 그전에 있었던 그 노조원

사람들이 전혀 기억이 없거든요. 거의 막 같이 만들어 지면서…….

면답자 민주노총 만들어지면서.

손상희 민주노총 만들어지면서 같이 노래패 만들어지고, 풍물 패 만들어지고 했어요. 그때 같이 거의 같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면답자 그게 아마 96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올라왔겠지.

손상희 예. 96년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노래패에서 노래를 다 처음 배웠어요. 거의 다. 민주노총가는 좀 있다 배운 것 같고, 철의 노동자 배우고, 뭐 아무튼 이래저래 거의 그렇게 배웠죠.

면답자 기억 남는 노래 같은 거 있었어요? 그때 ‘뭐 이런 노래가 다 있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손상희 처음에 들었을 때…….

면답자 이런 무슨 가사가, 이 노래 가사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손상희 아니, 근데 나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아. 그냥 노래 되게 접해보지 않은 노래인데 되게 괜찮다.

면답자 시원 시원하고? 네가 반골 기질이 있었다니까. 어렸을 때부터 달랐네.

손상희 그리고 동혁이 형이 가르치는데, 강약이 있어야 된다

고. 첫 박 세 박에 뭐 뭐 이런 것까지 가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아무튼 되게 나쁜, 이상하다라는 그런 기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재미있었어요.

면담자 회사 다니면서 뭔가 부당하게 느껴갖고 무슨 노조, 노
조가 필요해 이런 저기도 없이…….

손상희 없었죠. 1도 생각이 없는 아이였어요.

면담자 근데 사람들하고 그래도…….

손상희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배워지는, 배웠던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보면 거부 반응부터 있는 사람들도 있는
데. 별로 거부 반응은 없었어요.

면담자 그래서 96, 97 총파업 때 첫날 서울까지, 명동까지 올
라왔을 거고. 그리고 인천 내려가서 술 퍼먹고.

손상희 동암역에서 항상 그 감자탕 그 골목에서…….

면담자 새벽까지 술을 폈을 거고. 그때는 어디서 살았었어?



전국금속노동자결의대회

손상희 그때 석남동. 본가가 석남동이에요.

면답자 집으로 왔다 갔다 할 때야? 그때는? 나와 있을 때는 아니고?

손상희 오빠네 집. 오빠네 집에서 왔다 갔다 할 때였죠.

지역 노래패들과의 연대

면답자 그러다가 이제 근데 보통 어쨌든 그래도 노래패가 그 다음에는 이제 96, 97엔 갔지만, 그 다음에 일상 활동이 있었을 거 아니야? 바로 자기네는 철의 노동자 지역으로 나왔나? 그 쯤 뒤여서?

손상희 얼마 안 되고 바로 그냥 들어갔어요. 저희 결성되고 난 뒤에 거의 그냥 철로 들어가고.

면답자 철의 노동자가, 철의 노동자도 비슷할 때 만들어졌어. 사실 그지? 96, 97 지나고.

손상희 그걸 몰라요. 저는.

면답자 어쨌든 근데 들어가서 있으니까 지역 연합으로 들어온 거지.

손상희 지역 연합 노래 들어갔고

면답자 원래 처음에 이제 금속 사업장들이었었는데…….

손상희 맞아요.

면답자 지역 노래패로 같이 바뀌었잖아.

손상희 네 맞아요. 대우중공업이랑, 아남 두 군데. 아남전기하고 아남정공이랑.

면담자 그리고 한라가 있었나? 한라(한라중공업) 내려가기 전에?

손상희 한라는 내려갔죠.

면담자 그럼 노뚝다리, 아남, 그렇게 해서 철의 노동자로 만들었다가, 지역연합노래패로 바뀌면서 아마 영창악기랑 다 지역에서 다 같이…….

손상희 영창이 금속이에요.

면담자 영창도 금속인가?

손상희 네 네 네.

면담자 아~ 그러면 처음부터 영창악기도 같이 했었네.

손상희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면담자 그때 좀 뭐 어떻게 활동했었던 거, 기억나는 거?

손상희 그때 노세(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거의 연습을 많이 했고요.

면담자 그때가 그게 동암에 있을 때죠? 노동세상, 그 지하에.

손상희 물난리 나고. 지상에서도 무릎만큼 물이 찼을 때였으니까요.

면담자 어떡해.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지하라지만 천장까지 물이 찬다는 게.

손상희 그 동네 일대가 다 그렇게 찼으니까요. 동암, 주안 지하

상가가 다 왔었으니까.

면답자 그게 2000년인가? 2002년인가?

손상희 그게 2000년인가? 2002년은 아니었던 거 같아요.

면답자 2000년이다. 2000년!

손상희 2000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면답자 철의 노동자가 되고 나서 다른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했을 텐데…….

손상희 그렇죠. 맞아요. 연대해서 파업하는 데 가가지고, 같이 연대 공연하고 이랬던 기억이 많지 않아요.

면답자 어떤 거, 어디 어디 갔었지?

손상희 그러니까 어디 어디 갔을까? 많이 가긴 했는데. 제가 중간에 잠깐 활동을 안 했어요.

면답자 왜, 활동을?

손상희 그때 그게 몇 년도인지 기억이 나지 않아. 공연 올린 게 있어요. 그때 귀영(황귀영) 언니가 알 텐데 그때 안병원 들어오고 난 뒤였을 텐데. 그 당시에 제가 안 할 때였거든요. 그 몇 개월. 한 반 년 정도인가. 회사 나오고 난 뒤였던 것 같아요. 영창 그만두고 난 뒤에 그냥 다른 재미난 거에 빠져서 친구들이랑 놀고 막 그러느라 활동을 안 했어요. 그때 영창은 나왔을 때니까.

면답자 왜 그만뒀어?

손상희 영창이 나오기 전부터 내가 노래패는 안 한 것 같아요.

전체가 없어졌어요. 거의 흐지부지됐던 건가? 그러니까 공장 자체가 막 사람들 거의 다 정리하고, 뭐하고 그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아무튼, 왜 이렇게 기억이 나지 않지?

면담자 그것도 어쨌든 그럼 영창악기를 그만둔 게 아까 99년 정도라고 했으니까 딱 그즈음인가 그러면 그때 노래패들이.

손상희 그리고는 그냥 철의 노동자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풀(영창악기 노래패 이름) 활동이 96, 97 그 때 빼놓고는 별로……. 들풀만 따로 활동한 게 거의 없어서 기억이 없는 같아요. 거의 그냥 철의 노동자로만 다녔던 것 같아요.

면담자 철의 노동자 수련회도 가고 막 그러지 않았어? 같이 합동으로.



동자문화일꾼 수련회

손상희 그렇죠.

면담자 연합공연도 하고.

손상희 그러니까 그 연합공연 때 내가 없었다는 거죠. 그때 연합공연한다고 하고 내가 잠수를 탄 거예요. 잠수 타고 몇 개월, 그 공연 거의 끝나고 그때 여기저기 많이 다녔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억이 없는 거예요.

면담자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

손상희 그때 그냥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술 먹고……. 연애는 안 했는데. 그랬어요. 수련회 갔던 거기 어디야? 대학생들 많이 가는 데.

면담자 강촌 아니 저기 대성리.

손상희 거기 대성리 간 적도 있고 을왕리도 갔고.

면담자 내가 을왕리도 같이, 나는 노뚝다리 형들, 노뚝다리 가족들하고 같이 갈 때, 을왕리도 같이 MT를 갔었어요. 나는 내가 왜 따라갔는지 모르겠어. 나도 가고 막 그랬었는데. 내가 워낙 인천에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가 갖고 막 형들이 닭백숙 끓여 줬나? 개고기를 끓여줬나?

손상희 그렇죠. 거의 닭백숙, 거의 개고기는 아니야. 닭백숙이겠지, 설마 개고기겠어?

면담자 가서 얻어먹고. 그런 것도 기억나고. 하여튼 나도 하여튼 맨날 뭐 여기저기 엉켜서 같이 다녔으니까. 그러니

까 나도 막 기억이 영키진 하더라고. 그때가 이때였어?

손상희 정말 기억력 없어.

면답자 근데 다 그래. 다 그렇더라고 다. 그리고 나서 6개월 쉬고 나서 다시…….

손상희 응. 다시 돌아왔을 때는 거의 정리된 느낌? 파업 이렇게 공장들 같은 곳에는 거의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면답자 그러면 와서 뭐 했어요? 영창악기 그만두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어쨌든 뭔가 일도 해야 되거나 뭐 그랬을 거 아니야?

손상희 백수로 살았죠. 그냥 일하기가 싫어서 그랬던 것 같아. 기억이 없어요. 그냥 철노(철의노동자) 모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때 모여서 그냥 노래 연습하고. 노뚝다리 공연할 때 뭐 같이 한 번씩 노래 불렀던 거 기억 있고.

면답자 그렇지. 그러면 주로 상희가 워낙 성량이 되게 좋았잖아. 소리통이 워낙 좋아서. 주로 상희가 불렀던 노래는 뭐였지?

손상희 불렀던 노래?

면답자 그냥 좋아했던 노래라거나.

손상희 좋아했던 노래.

면답자 주로 흥얼거리던가 아니면 어디 딱 사람들이 ‘노래 불러!’ 그러면 노동가요 무슨 노래 불렀어?

손상희 기억이 안 난다.

면답자 애들 뭐 술 먹고라도 막 이렇게 부르고 그러기는 했을 거 아니야?

손상희 술 먹고, 그냥 노동가요 책이 있잖아요. 그걸 다 불렀죠.

면답자 앞에서부터 끝까지?

손상희 그렇죠. 그냥 그렇게.

면답자 노래패들은 정말.

손상희 기타 하나 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한 번 스르르.

면답자 그러니까 책거리를 하더라고.

손상희 책거리 하듯이 그냥. 그래서 뭔가 하나에 딱 꽂혔던 노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불렀어. 배웠던 노래는 다 불렀고. 그래서 뭔가 기억에 남거나 막 이렇게 ‘딱 이 곡이다!’ 라고 했던 거는 크게.

면답자 그래도 노뚝다리 형들이 공연할 때, 많이 불렀던 노래는, 주로 불렀던 노래가, 주현(이주현)이 형이 좋아했다는 ‘영원한 노동자’ 그때 불렀던 거 생각나고 ‘하늘’…….

손상희 맞아요. 하늘. 그 노래 많이 불렀죠. 그 노래 진짜 많이 불렀죠.

면답자 그리고 이제 솔로로 치면 기욱(고 김기욱)이 형은 ‘고백’ 좋아했었으니까.

손상희 저도 이렇게 뭔가 하나가 ‘이게 좋아!’라고 불렀던 적은

없어요. 그냥 나이가 그래서 그 ‘♪나이 서른에 우리’
그거를 좀 많이 불렀지. 우리 서른. 내가 20대 초반에
마흔 먹은 아줌마가 정말 늙은 아줌마처럼 여겨졌거든
요.

면담자 40대는 상상이 안 갔어.

손상희 상상이 안 갔고. 그리고 그때 40대 아줌마들은 지금
60~70대 아줌마처럼 늙어 보였어. 자기 관리가 1도 없
을 때여서. 그런데 내가 50이 된 거야, 지금.

결혼 이후

손상희 2006년에 결혼을 했죠. 2006년 1월에 결혼하고 2007
년 9월에 아기를 낳고 아이를 키웠죠. 5살 때까지. 그
리고 저희 올케언니가 빨간펜 국장이에요. 그 서구청
있는 데. 저더러 나오라는 거예요. 같이 좀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5년 정도 하고.

면담자 그때는 이런 이쪽 사람들하고는.

손상희 거의 그냥 귀영(황귀영) 언니 정도 만나서 하는 거지.
이쪽 활동은 당연히. 이미 기욱(고 김기욱) 오빠 가고
난 뒤부터는 흐지부지 이렇게 구심점이 없어진 것처
럼. 이렇게 딱 잡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

고. 그리고 뭔가 거리가 없는 거지.

면담자 상처들이 또 되게 많았어. 사실. 그지?

손상희 맞아요.

면담자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부딪치고.

손상희 정말 이것저것 되게 막.

면담자 문화제. 문화패 애들도 계속 본부하고 안 좋은 일 되게 많았고. 무시당하고 막 밀어내고 그러면서 봉호(조봉호) 형은 인천본부에서 잘리고 농성하고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참 많이 상처들이 컸지.

손상희 그리고 다들 여기저기 그냥 어느 순간 묻히는 느낌? 이렇게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나도 안 하고 있었고. 어쨌건 결혼하기 전부터도 그러긴 했지만 거의 활동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간간히 다들 이렇게 '우리 다시 모여야지, 모여서 연습이라도 하자.' 막 이러는데 지금 우리 철노(철의 노동자) 이렇게 한 번씩 보이는데. 그 이야기는 그냥 수도 없이 하죠. '우리 한번 모여서 노래 연습도 좀 하고 하자.' 그랬더니 술 먹을 때만 잠깐 그 말 하면 끝이지 뭐.

면담자 한 달에 한 번씩은 모여서 술이나 먹는 거 아니야?

손상희 한 달에 한 번이 무슨 소리? 작년에 원래 그렇게 모이려고 했지만 안 돼서 그래도 두세 달에 한 번은 모이자고 했는데 날짜 잡기로 한 문주성(영창악기 노래패 구

성원)이…….

면담자 문주성!

손상희 문주성도 우리 노래패였죠.

면담자 그러니까. 영창이었지? 지금 뭐 해?

손상희 해표 다니잖아요. 해표 식용유. 거기 다니죠. 호운이랑.
개도 노래 배우고.

면담자 이 양반이 문화부장 아니었나? 문화부장.

손상희 네. 맞아요.

사진을 보며, 옛 기억을 떠올리다

면담자 동혁이가 양계장하던 숙이네 달걀 잔뜩 떼어다가 노동
자대회 전야제 때 달걀 프라이 팔았던 거 생각나.

손상희 내가 그때, 그때 탈나고 죽는 줄 알았던 거야.

면담자 왜 왜 왜?

손상희 밤새 너무 차가웠던 거야. 그래서 완전히 장이 뒤틀려
지고…….

면담자 진짜 아니 그러니까. 노동자대회 전야제 때 그래도 노
뚝다리 형들이 큰 철판 만들어줘서…….

손상희 맞아요.

면담자 계란 프라이 막.

손상희 그걸로 계란 프라이하고.

면담자 메추리알 프라이.
 손상희 메추리알은 누가 사갔고.
 면담자 몰라. 짜증나갔고.
 손상희 그거 하는 게 더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해.
 면담자 개코딱지 만한 그걸 하겠다고 부치고 대체 왜 했냐고.
 면담자 을왕리, 대성리 진짜 많이 갔었던 거 같애. 영동유스호
 스텔 거기도 갔었고, 덕유산도 가고 그랬어.
 손상희 덕유산도 갔었고. 덕유산 갔을 때는 내가 저기 있을 때
 있었어. 목포에 있을 때였어. 그래서 덕유산을 갔었어.
 면담자 이거는 가족들하고 다 같이 간…….
 손상희 가족들도 있고.
 면담자 이건 대학교 같은 데 어디.
 손상희 인하대예요. 문화일꾼 체육대회 이런 거였어요.



2000년노동자문화일꾼체육대회

면담자 나도 갔었어. 홀라후프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

손상희 내가 1등 했거든. 모자 벗기기.

면담자 난 홀라후프에서 2등인가 한 것 같은데. 이걸 몇 년도 지? 보통 사진에는 날짜가 다 있는데 이걸 없네.

손상희 내 말이! 나도 보면서 왜 날짜가 없나 했어요.

면담자 이거 기욱이(고 김기욱) 형이 사회 봤어. 그러면 기욱 형 돌아가시기 전이지. 그러니까 뭘 많이 했어. 체육대회도 하고 뭘가 계속 지역에서. 봄에는 임단투 기본적으로 다 했을 거고. 여름에 이렇게 수련회 가고. 가을이나 겨울쯤에 공연도 거의 매해 했잖아.

손상희 그렇지.

면담자 해마다 공연도 했었고. 그다음에 또 겨울에도 또 이렇게 수련회 같이 가고.

손상희 수련회를 꼭 겨울에 한 번 갔지, 우리.

면담자 여름에도 갔었고, 겨울에도 가고.

손상희 그러니까.

면담자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히 1년 일정이…….

손상희 이렇게 우리 단체복도 맞췄어요. 이때 롱패드가 없을 때였는데. 정말 하나도 따뜻하지 않는 솜. 지금 생각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따뜻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거는 따뜻하긴 했어요.

면담자 솜 조금 들어 있는 거.

손상희 철로 단체복이었어요.

면답자 같이 무슨 노래 불렀는지 생각나?

손상희 올 때 동지가나 뭐 그렇겠죠. 보통 그렇게 올라갈 때는 거의 뭐…….

면답자 동지가?

손상희 어, 동지가.

면답자 동지가 참 많이 불렀어.

손상희 저 동지가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을 못해.

면답자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

손상희 동지가를, 군이 찾자면 동지가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동지가랑 입을 위한 행진곡도 좋아했어. 아, 그리고 불나비를, 불나비를 회사에서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면답자 솔로로 한 적이 있어?

손상희 솔로로, 솔로로.

면답자 그치? 약간 그런 느낌을 내가 예전에 어렵קות이. 그러니까 오! 자유여~(노래의 클라이막스 부분)하면서 짹 짹 들었던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

손상희 그것도 반주가 없어서 무반주로.

면답자 아이, 진짜?

손상희 무반주로 혼자 부르라고 그래서.

면답자 아니 노래 소리통이 되게 좋아했고. 노래 잘하네. 그때

그 체육대회였나.

손상희 맞아요. 체육대회. 이거는 눈 감고 다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거였어. 그리고 난 뒤에 눈 딱 뜨니까 이렇게 찍은 거였어.

면담자 따라가면서 꼬이는 그런 거였구나?

손상희 그런 거였어.

면담자 맞아. 누구 리더 따라서 계속.

손상희 이 닭싸움도 내가 1등 했는데.

면담자 그때 기욱이 형이, 막 그때 아까 얘기했던 그 체육대회 때 기욱이 형이 사회 보면서 한 명, 한 명 다 소개해 주고…….

손상희 기욱 오빠 보고 싶다. 아마 기욱 오빠가 있었으면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후룩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누구 한 사람으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쫓아가는 거야. 이래 이래 이래 이렇게 하면, 정말 답 같은 걸 주듯이 ‘이렇게 해보는 게 좋지 않냐.’ 그러면 ‘그래.’하고 가서 하고. 그래서 어쨌건 한참 문제 있을 때도 노조랑 문제가 있든, 뭐 있든, 그거를 다 이렇게 지도도 해주고, 이래저래 많이 해주고, 그래서 오빠가 빨리 갔어.

면담자 맞아.

손상희 그것도 있겠지. 혼자 검진을 안 해서 그래. 검진을 했

어야 됐는데. 어쨌건 그분이, 오빠가 있었을 때 좋았지. 중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화르르 더 많이 확 무너진 것 같아.

면답자 그랬어. 그리고 어쨌든 기욱이 형이 워낙 큰 버팀목이었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하면 누군가가 그걸 챙겨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형들이 다 상처에 다 같이 주저앉은 거지, 뭐.

손상희 ‘에라 이!’ 했던 것도 있고. 같이 뭉쳐서 그 힘든 거 같이 해보자 할 때도 힘들었는데, 그 중심역할을 했던 사람이 딱 사라지니까, 다 이렇게 놓아버린 그런 느낌이었어요. 더 이상 재들이랑 싸우고 싶지도 않아. 내가 안 하고 말지.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해요.

손상희에게 노동자 노래패 활동은?

면답자 그랬네. 그럼에도 어쨌든 그렇게 돌아보면, 노래패 활동하고, 영창악기에서 노래패 활동하고, 철의 노동자 사람들 만나고 그랬던 시기가…….

손상희 행복했지. 뭔가 내가, 내가 내는 그 소리가 아니어도 같이 내는, 나 혼자만의 내는 게 아니라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좋았고요. 할 때 행복했죠. 우리 모이는 날이, 기억이 화요일인지 목요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기다려졌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았고. 노래를 새로운 노래를 접하는 것도 좋았고. 뭐 아는 노래 다시 불러도 좋고. 항상 모이면 힘든 것보다는 행복했던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노래패가 진짜 문선을 위한 노래로, 먼저 노래패로 먼저 발달했더라도 어쨌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도 있고 정말 노래가 주는 힐링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남들은 발라드 같은 걸 들으면서 힐링한다고 쳐도 나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민중 노동가요가 훨씬 더 마음이 더 많이 갔어요. 처음에는 신기하네, 좋다라고만 했지만 더 마음이 더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지금도 노래패는 아니고 기타 모임이 있었어요. 자바르떼에서 한 사업인데, 이쪽 문화패 활동이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때 귀영(황귀영) 언니가 나한테 해달라고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병원에서 3명을 데리고 갔지요. 나까지 4명! 그리고 동암초 엄마들이랑 해서 한 10명 정도가 했었거든요.

면담자 몇 년을 했어?

손상희 계속했죠. 횡수로는. 근데 코로나가 터진 거죠.

면담자 그럼 자기가 2017년에 병원을 갔으니까 한 18년? 19년?

손상희 18년도에. 18년도 여름에.

면답자 그럼 한 20년에 코로나 터졌지? 그럼 18, 19, 20년 이렇게?

손상희 어, 뭐. 계속 했죠. 그리고 몇 명 빠질 사람은 빠지고. 빠질 사람은 빠지고, 계속할 사람들하고 쪽 했는데. 그 거 하면서 코로나로 터지고 그래서 결국은 강사가 약간 부재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걸로 해서 딱 3명이 남은 거예요. 귀영언니, 나, 그리고 임미정이라고 동암초 그 무리 중에 저랑 동갑인 애랑 해서. 그런데 더늠에서 연습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타, 일반 노래 가지고 하는데 그 악보가 없으니까 귀영언니가 더늠 어디에 있는 악보를 갖고 왔는데 거기에 막 이런저런 게 있는 거예요. 동지기도 있고. 무슨 자료집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데 기타 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칠 수 있는 코드가 있고 그때 진짜 거의 뭐 20년 가까이 넘어서 그 곡들을 내가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미정이라는 애는 이런 노래를 1도 몰라. 귀영언니랑 나랑만 아는 거죠. 쉬는 시간에 우리 책거리 하듯이 그걸 다 부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기억이 나고.

우리 그때 이렇게 책 놓고 노래 부를 때 영택이(김영택, 인천에서 활동한 노래강사) 형이 꼭 있었는데, 기타 쳐 주고. 아무튼 그 책을 이렇게 넘기면서 그 프린터물 보

면서 귀영언니랑 노래 부르는데 그때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좋았죠. 일단 젊음도 좋았고. 그리고 그 시기에
막 같이 이 노래 부르면서 좋았던 기억들, 그리고 음 틀
릴 때 혼났던 기억들, 그런 것들. 그때 그래서 그게 너
무 좋았어. 무슨 자료집 안에 교육 자료집 안에 몇 곡이
수록되어 있는 거예요. 한 10곡 정도? 바위처럼도 있
고, 뭐 동지가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타 모임도 지금 잠깐 멈춘 지
좀 돼서. 한 달 좀 넘었나? 두 달 돼 가나?

면답자 어쨌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네? 잠깐 멈추긴 했어
도.

손상희 더워서 우리 쉬자고 하고 9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는데.
원래 이번 주 목요일날 모였어야 됐는데 다음 주 목요
일도 제가 회식이 있어서 못 하니까 우리 추석 지나고
만나자. 이렇게 됐어요.

면답자 쪽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그 노래패에 같이
활동했고 지역에서 사람 만났던 시절이 인생에 어떤
역할이었을까?

손상희 어떤 역할? 그냥 숨구멍 같은 거였죠. 어릴 때부터 약
간 힘들었던 과정도 있고 집에서 언니랑, 언니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건 또 다르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쨌
든 소통하면서 잘 지냈는데 언니들이 다 시집을 갔잖

아요. 그리고 나는 혼자 집에 있으면서 영창악기 다니고 하는데 뭔가 약간 결핍된 느낌이 있었어요. 결핍되고, 뭔가 기댔 데도 없고 뭔가땡 뚫린 것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그 노래패 모임 자체가 좀 이상해! 이런 느낌보다는 노래 부르면서 했던 것들이 좀 숨구멍 트이듯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 노래 불렀던 것이 나한테는 숨구멍이자 약간 기댔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리고 지금 모임은 하지 않고, 노래도 안 부르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하고 뭔 일 있으면 모이고요. 그런 거 보면 만난 거 자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싫으면 끝났을 때 끝이잖아요. 그런데 어쨌건 서로 안부 묻고 간간이 톡으로라도 만나지는 않더라도 안부 묻고 하는 거 보면 그때가 참 힘들었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계속 뭔가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끼리 노래하는 것도 좋았고, 만나는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면답자 그래 되게 되게 되게 어쨌든 상희뿐만 아니라 그 시기를 살았던 우리 동지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살았고, 진짜 그지? 박수쳐주고 싶어! 그 당시에…….

손상희 그 당시에.

면답자 아니 지금도.

손상희 지금.

면담자 그게 쌓이니까 지금 현재가 있는 거니까 진짜 박수쳐주고 싶어.

손상희 치얼~

면담자 아니 지난번에 왜 우리 그 구술 발표회(23년 노동문화 구술채록사업 출판기념회) 하는 날. 백승수가 받은 꽃다발에 거기에 보면 ‘당신이 쳐주는 그 북소리를 따라 자기가 이렇게 걸어올 수 있었다. 안내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써준 사람이 있었어. 너무너무 좋더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그 시절 잘 살아냈구나. 그래 힘들었지만 너무 너무 다들 잘 살아냈잖아. 그 글이 되게 감동적이었어. 자기도 지역에서 그리고 또 후배들한테 어쨌든 지금 세대는 바뀌어 가겠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해온 게, 다 자기네들이 해온 게 이만큼 또 온 거겠지. 지역에서 이렇게 쪽 활동해온 그야말로 그 시대를 살아낸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그리고 노동자들이 불렀던 노래. 노동자들의 노래가 노동자들을 어떻게 삶에 녹아들어 있는가? 그걸 노동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 시대 활동했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손상희 제가 잠시 피자집을 했는데 그때 한창 영석이 형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세상을 바꾸자’ 노래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활동 안 할 때, 활동 안 할 때 피자집에서 그 노래, ‘세상을 바꾸자’ 그 노래를 혼자 계속, 그 수록되어 있는 노래들을 들었어요. 그때 알바했던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이런 노래는 도대체 어디서 나시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랬더니 가사는 다 좋은데 뭔지 모르게 무섭다는 거예요. 노래가. 세상을 바꾸자 노래 처음 나왔을 때 정말 대박이긴 했지. 소름이, 소름이 짹 돋아. 그리고 또 그 울동패들 깃발, 깃발. 거기에 소름이 짹 돋고. 정말 칼군무가 거기서부터 나왔나 봐. 아주 그냥 케이팝 칼군무의 그 노래가 정말 너무 진짜 멋졌지.

면답자 그래서 노동자 문화, 노래든 울동이든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정점이…….

손상희 그때 완전 정점 찍을 때!

면답자 우리 96, 97 총파업 이후에 한참 이렇게 짹 나가다가 이제 2000년 들어온 거. 에휴, 그랬네. 그래도 어쨌든 잘 살아낸 우리를 위해서 파이팅 하고 아쉬운 점이나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남은 얘기 조금 하시고.

손상희 별로 기억나지 않아. 그리고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약간 진짜 할 때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뭔가에 탁 걸려서 나가면 그때 그만두고 몇 달 잠수 탄

것처럼 그렇게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최고 세계는 한 4개월 5개월 잠수 탔는데, 그 시기가 전체 전국 공연 다닐 때였어요. 그때 승미(황승미) 언니가 화가 많이 났지.

면담자 그때 원주 공연도 가고 뭐.

손상희 그때 이제 내 역할이라고 같이 다 같이 되어 있었던 게 있는데 연습 시작할 때 빠져서. 아무튼 그때 그거 미안했던 기억이 있네. 욕 먹었던 기억과.

면담자 근데 또 그게 있어서 다시 있을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도 어쨌든 숨구멍이, 얘기한 대로 숨구멍이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손상희 근데, 아쉬웠어요. 나중에는 그때 함께하지 못한 그게 최고 많이 아쉬웠어요. 끝날 때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간간이 그때 이야기 나오면 아쉽고. 내가 그때 왜 미쳐 있었지? 그때 미쳤다가 돌아올 때도 힘들었지. 잠깐 미쳤다가 돌아갈 때 민망해서 힘들었지. 근데 영원히 끝까지 아마 아쉬울 것 같아요. 그때 함께 하지 못했던 그게 되게 아쉬워요. 지금도.

면담자 그걸 또 다 나중에 또 이해할 걸. 힘들었던 시기라.

손상희 다 이해하고 잊었을 수도 있죠. 함께하지 못한 내가 아쉬워서 그런 거지. 미안하고 아쉽고 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쨌건 그때 치열하게 계속 운

동 열심히 연습하고 올리고 했으니까 내가 같이 하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그런 거죠.

면답자 그래 뭐 인생에 아쉬운 것도 있고 그래도 그것 말고 더 좋았던 그게 더 많으니까.

손상희 맞아요. 근데 지금 사진을 보면 내가 정말 저때 되게 행복했을 텐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면답자 그래도 어느 순간 또 행복했던 기억이 또 떠올라서. 더 좋았던 게 많았고. 칭찬해 줄 게 훨씬 많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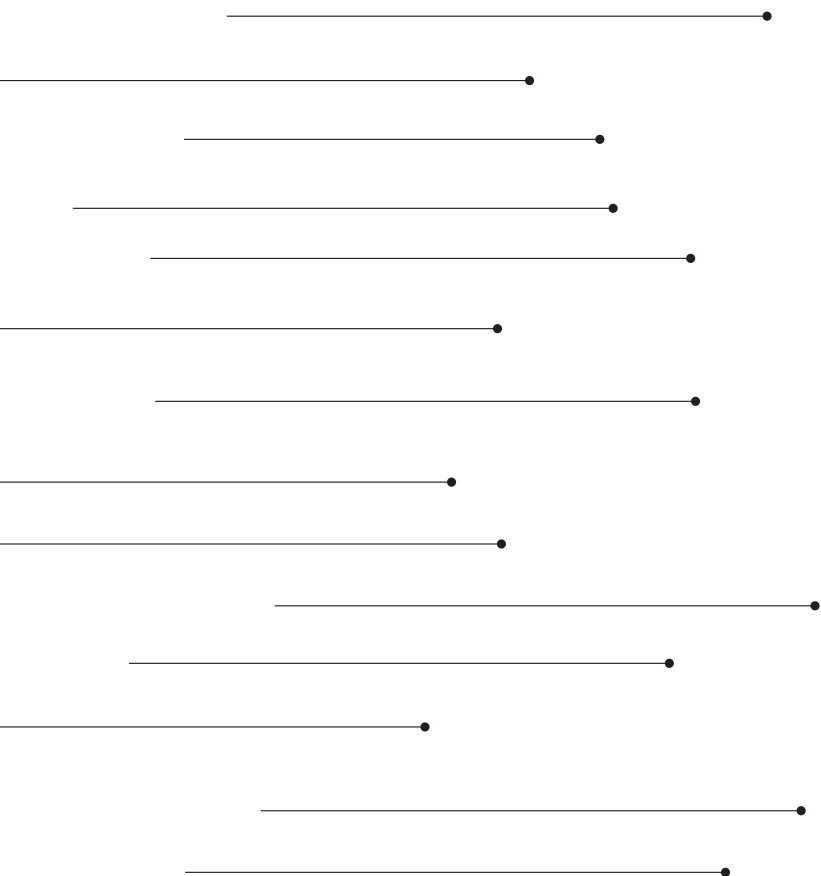
손상희 다 같이 힘들고 다 같이 행복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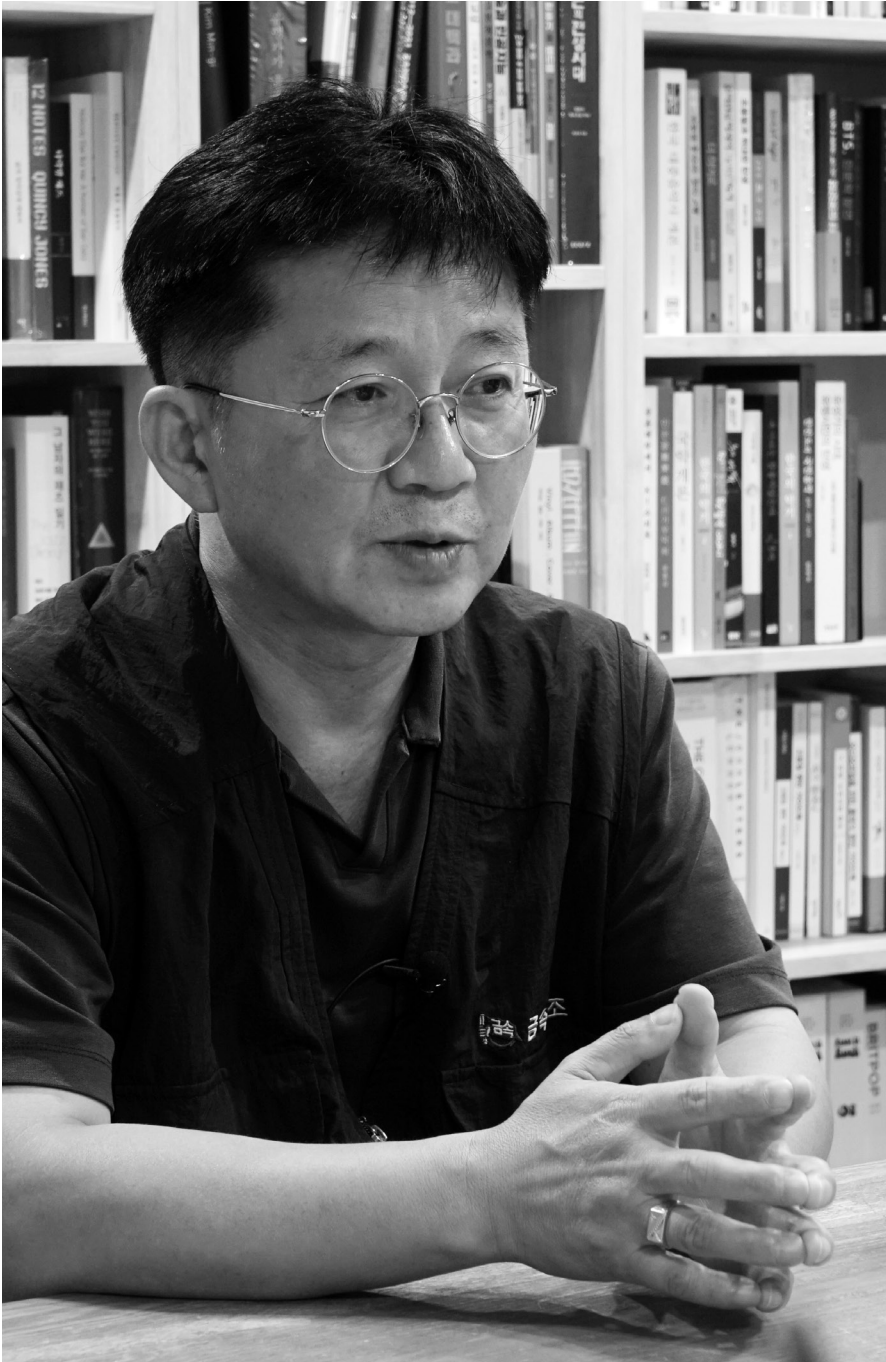
면답자 애썼다. 모두에게 ‘애썼다’고 진짜 다 있으면 진짜 나는 정말 얘기해 주고 싶어.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자, 파이팅, 앞으로도 파이팅. 그러면 여기까지 인터뷰를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손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인천지역 기타반 ‘반격’





면담 일시	2024년 9월 19일 목요일 17:00-18:30
면담 장소	부평생활문화센터 2층 스튜디오
주요 이력	2007년 5월 동광기연 입사 2016년 노동조합 가입 2017년 동광기연 전체직원 문자해고 이후 복직투쟁 중 노래패 결성 및 가입 기타패 [반격] 가입, 풍물패 버팀목 활동 시작 2018년 동광기연 복직 및 계열사 SH-CP로 고용승계 2024년 SH-CP에서 계열사 SH-BP로 고용승계
핵심어	혁노맹(혁명적노동자투쟁동맹), 군양심선언, 국가보안법, 집행유예, 문선대, 문화패, 노동조합, 비정규직, 탈환, 해방문, 반격, 투쟁가요, 노래패활동, 노래선언, 동광기연, 재영실업, 한국GM비정규직지회, 풍물패 버팀목

이한수 녹취문

들어가며

면담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9월 19일 17시.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노동가요 아카이브, 이한수 님의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반갑습니다.

면담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초창기에 활동했던 사람들도 만나고 그랬는데, 지금 활동을 안 하는 분들이라 현재 지역에서 노래패 활동을 하는 분이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초대를 했습니다.

대학생활과 학생운동

면담자 인천에 언제 왔어요?

이한수 저는 인천이 고향이에요. 인천이 고향이고, 고등학교까지 인천에서 다니고 대학을 대전에 있는 충남대학교로 가게 됐죠. 가서 충청도에서 한 10년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학교도 사실은 87, 88년. 제가 87학번인데 87, 88년도에 뭐 수업 거부도 있었고, 이철규 열사님 여러 가지 그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학생운동을 하

다 보니 사실은 전공도 제대로 신경 못 쓰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군대까지, 또 군대 같은 경우도 제가 전경으로 차출이 되면서 제가 논산에 있는 전경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고 거기서 생활하다가 그 대학 때 활동했던 것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고, 뭐 그러면서 천안에 있는 전경대로 전출을 갔고 그러다가 거기서 어찌어찌해서 그 당시에 양심선언이라는 걸 저랑 같은 소대 제 밑에 후임이랑 같이 했었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냥 10년? 10년이란 세월이 훌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천에 올라와서 뭐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게 됐고요. 제가 농대를 나왔는데 인천에서 농사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호탕하게 웃는다) 물론 찾으면 있기는 있지만 경험도 사실 없고, 어찌어찌 하다가 건축기사 자격증을 따게 돼서 건축 현장에 서 한 10년 정도 계속 지방에서만 생활하다 보니까 이 건 좀 아니다 싶고 부모님도 연세가 드시니까 걱정도 되고 해서 인천에 올라왔죠. 그때가 2005년, 6년 그때 거든요. 그러다가 일은 해야 되니까 당시에 벼룩시장이라는 정보지 그거를 보니까 뭐 재영실업(인력회사)이라는 곳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가 좀 크게 나서 그래서 ‘모르겠다! 안 되면 그냥 공장이나 들어가자!’는 생각으로 일단은 들어갔고 근데 가서 보니까 거기가

이제 동광기연이라는 업체에 사람을 대주는 그런 곳이
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동광기연에 이제 한 1년 정도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이제 2007년에 이제 동광기연
정직원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쪽쪽쪽쪽 생활하고
있습니다.

면답자 그러면 대학교를 간 게 이제 20살. 초중고를 다 인천에
서 나온 거예요?

이한수 예.

면답자 그림 형제는 어떻게?

이한수 3형제 중에 전 둘째예요.

면답자 남자만 셋?

이한수 예. 아들만 셋

면답자 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이한수 아버지는 원래 저쪽 연천, 전국 그쪽이 고향이신데,
6·25 때 피란을 오시면서 인천 쪽으로 오셨더라고요.
인천에 이모할머니가 계셨거든요. 신포동 쪽에 살고
계셔서 그쪽으로 오셔서 정착을 하신 거죠. 그러다가
학익동에 정착을 하셨고, 어머니를 만나 결혼하셨고,
이런 거 저런 거 하셨던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는 지금
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학익동에 ‘한국파이프’라고 ‘한
국강관’이라는 제철 회사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경비로
한 25년? 정년까지 다 마치셨으니까요.

면답자 한 직장에서? 한수님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나 봐요.

이한수 이제 스타트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멋쩍게 웃으며), 고2 고3 들어가면서 공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생각이 많다 보니 뒤에서 쫓아다니는 애들도 좀 친한 애들이 몇 명 있었고, 저 같은 평범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냥 친구들 만나고 뭐 같이 다니는 것? 그런 것들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제 86년도에 5·3이 있었잖아요? 제가 5월 4일인가 5일쯤에 주안을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그냥 매캐한 최루탄 냄새가!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부정적이었던 거죠.

면답자 아.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이한수 그렇죠. 학생들이나 뭐 시민들이 데모하고 집회하는 것들에 대해 워낙 또 언론이나 교육 자체에서도 부정적으로, 해선 안 된다는 교육을 받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도 웃긴 게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처음엔. 왜냐면 부모님도 걱정을 했지. ‘너 지방에 가고, 떨어져 있으면 또 이러저러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니 조심해라.’

면답자 운동권 근처에도 가지 마라!

이한수 근데 이제 동기 녀석 중에 그 서산이 고향인 녀석이 있었는데, 아주 개가 그냥 아주 그냥 그 전형적인 충청도 느릿느릿한 말투로 그냥 ‘한수야. 뭐하냐! 막걸리 한 잔 하자.’ 이러면서 이렇게 툭툭툭 건네줬던 것들이, 처음에는 이제 어떤 친구에 대한 어떤 우정 뭐 이런 생각이었던 거고, 그 녀석이 뭐 『철학에세이』 니 이런 책들을 한번 읽어보라고 주더라고. 그래서 ‘어? 이런 책도 있었어?’ 근데 읽어봐도 그냥 그때뿐인 거죠. 내가 이것을 한번 제대로 이해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주변에 몇몇 친구들이 또 있었거든. 개네들이랑 어떻게 지내다 보니까 ‘어! 야 이거 봐라! 이놈의 사회가 문제가 좀 있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이제 그냥 그쪽으로 휩 빠진 거죠. 저도.

면답자 친구들이 무슨 서클 활동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학회? 서클?

이한수 그 친구들이 개별적으로 각자의 취미가 있어서 하는 서클들은 있었는데, 사회과학 서클은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선배가 있었고, 특히 서산 그 친구 같은 경우가 사촌형님의 영향을 받아서 고등학교 때 일찍 그런 데 관심을 좀 갖게 됐더라고. 그래서 그 녀석 영향으로 저 포함해서 한 네다섯 명 되는 친구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빨간 물이 들게 됐죠.

면답자 아니 근데 그래도 그 당시에는 서클을 들거나 어떤 조직에 들어가지 않으면 무슨 체계적인 세미나를 받든, 아니면 어디 시위를 나갈 때 택(가두투쟁을 가는 장소와 도망가는 길 등에 대한 정보)을 받는다고 이런 루트(통로)가 없었을 텐데?

이한수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 1학년 여름 여름방학? 그 시점으로 해서 이 녀석이 선배를 모셔왔고, 그러면서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좀 고민하고 논의를 해보자’, ‘우리끼리 한계가 있으니 선배의 도움을 받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래서 ‘그러자!’ 그 선배가 86학번 선배, 1년 선배인데 같이 합숙도 하고 MT도 갔다 오고 했죠. 그렇지만 선배도 사실 이만저만해서 ‘내가 이런 이렇게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라고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오픈한 적은 없었던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선배고 우리는 저 선배가 얘기를 하면 ‘그래요?’하고 움직이는 정도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1학년 때는. 그러다가 1학년 말에 그리고 2학년 초에 들어서면서 선배가 자기가 뭐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함께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학습을 통해 교육받은 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 내 머릿속엔 일단은 딱 정립

이 되어 있으니까요. 올바른 어떤 삶에 대해서 고민을
나 혼자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주변의 사람들과 그
리고 또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
어서 그 선배랑 같이 움직이게 됐어요. 나중에 조직 사
건이 터지면서 무슨 조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면답자 아니 근데 굉장히 예의 있다. 뭐 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며칠날 어디로 나와!’ 그럼 ‘네? 왜요?’ 그러면 ‘와봐!
와봐! 와봐!’ 그럼 가는데, 무조건 그냥 가입하게 만들
고 너는 이제부터 세미나를 매주 나와야 되고 되게 강
압적인 느낌도 나는 일방적인 거였는데 거기는 그래도
‘같이 할래?’하고 물어보고 계속 기다려준 되게 좋은 선
배네요?

이한수 네. 글썄요. 근데 그 개인적 성향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크게 웃으며), 운동적 측면에서는 맺고 끊는
게 좀 있었던 선배였던 것 같아요.

면답자 조심스러워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조직에 있어서.

이한수 그렇죠.

군입대와 양심선언

면담자 근데 그러면 조직 사건은 어떻게?

이한수 제 동기들은 보통 1학년 마치고 군대 가는 애도 있었고, 또 2학년 마치고 가는 애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3학년까지 있었거든요. 89년도까지. 그러다가 군대 간 애들이 뭐냐? 그 저기 달려가(경찰에게 잡혀갔다는 운동권 속어) 가지고 조사를 받고 막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죠.

면담자 군대 안에서?

이한수 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게 예전에 ‘혁명사건’이라고 ‘혁명적 노동자 투쟁 동맹’인가? 그러니까 이제 사노맹 이후에 아마 그게 터졌을 거예요. 그게. 근데 알고 보니 사실 그 전부터 그 관련된 어떤 뭐 단위들? 뭐 학생? 학생회나 노동 쪽이나 아니면 뭐 이런 사회단체? 이런 쪽으로도 아마 계속 접근을 했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구속시키고 그랬던 거지.

면담자 개별적으로 다? 군대에 간 애들까지도? 몇 년도예요? 이게?

이한수 제가 90년 10월 4일 날 입대를 했는데 90년 9월 달인가? 그때 신문에 뽕뽕 터진 거죠. 뽕! 뽕! 내용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그때서야 저도 알았던 거예요. ‘아. 우

리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 이런 이런 거였어?’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1년 선배 같은 경우가 중앙위원인가? 그런 직책으로 있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물론 1년 2년 3년 사이에 내부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사람들도 좀 변화가 있었겠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동기들은 다 가고 저만 남은 상태다 보니까 제가 농대 쪽 책임자는 아니었지만, 고학번이다 보니, 그러면서 또 그때 89년 이철규 열사인가? 뭐 하여간 (광주) 조선대. 그때 전국적으로 대학생들 동맹휴업 벌어지고 막 이러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앞에 나서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관련해서 F를 안 맞은 사람들이 없었으니까요.

면답자 아니 근데 그러면 그 선배는 86학번이면 90년에 이미 이렇게 조직 사건 터질 정도면 이 혁명적 노동자 투쟁 동맹? 학생인데 이런 조직이 학내 조직이었던 거예요?

이한수 아뇨. 제가 보니까 학내 조직으로는 그러니까 ‘민학투련’이라고 해서 ‘민족민주학생투쟁연맹’인가? 그게 약자일 거야. 민학투련은 학생 조직이었고, 그 상급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이 ‘혁노맹’이라는 조직명칭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86선배는 87년? 제가 알기로는 87년? 88년 그 중간에 휴학계를 내고 학교를 벗어난 거죠. 그러면서 아마 선배는 중앙으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고.

면담자 그 선배 이름 뭐 이런 건 여기 지금 한 번도 언급 안 했는데, 얘기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이한수 글썄요. 굳이. 왜냐면 지금은 완전히 다르게. 워낙 그 양반도 개인적으로 그게 본인한테 좀 크게 좀 다가왔던 것 같아.

면담자 그렇지. 사실 엄청 상처지. 이런 과거나 이런 그리고 나서 계속 뭔가 그런 우여곡절을 안 겪었을 리가 없으니까.

이한수 사실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면담자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10월 달에 군대를 간 거는 징집(강제징집의 약어)이 아니고 본인이 간 거야?

이한수 그렇죠. 영장이 사전에 나왔고, 그러니까 전혀 예상 못했던 거죠. 그런 조직 사건이라는 게 터질 줄도 몰랐고, 물론 좀 불안은 했지만. 그래서 강제 징집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어쨌든 가보자!’라고 이제 제 스스로 결정을 한 거고.

면담자 근데 영장은 학교 다니면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휴학했었나?

이한수 그렇죠. 제가 89년까지 다니고, 그 다음 해에 휴학계 내고, 기다리면서 알바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왔다 갔다 하던 상황이었던 거죠.

면답자 그러다 영장 나와서 10월 달에 갈 때 애초에 거기서 전경대로 배치가 된 거예요? 자대 배치를?

이한수 그러니까 제가 간 훈련소가 충북 괴산에 있는 39사인가? 그때만 해도 거기가 훈련병들의 90프로는 전경이나 아니면 교도대 이쪽으로 가고 나머지 한 10프로의 인원만 현역으로 가는 그런 체계라고, 훈련소 안에서도 조교가 얘기하더라고요. ‘마지막 날 이게 갈릴 때 나는 왜 일로 가냐고 그런 생각 하지 말아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다.’

면답자 전경으로 가는 건 진짜 아이러니했겠다. 아, 진짜! 근데 그러고 나서 조직 사건에 연루가 돼서 양심선언을 하게 된 거는 가서 다시 조사를 받은 거예요? 군대에서? 잡혀가셨고?

이한수 그러니까 제가 11월 달 훈련소에 교육 받고, 11월 말인가 12월 초인가 그때 아마 논산에 있는 전경대 자대 배치 받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전경대가 지방에 있는 전경대들이 1년에 몇 개월씩 서울로 파견을 나갔다가 왔어요.

면답자 집회, 큰 시위 있으면?

이한수 예. 근데 이제 저희 제가 있던 부대가 그 다음 1월부터 2개월인가 3개월 서울로 파견을 나가는 스케줄이 잡혀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를 처음에는 일반 소대로 배

치를 했다가 한 보름인가 한 달도 안 됐을 때 행정반으로 발령을 내더라고요. 저야 뭐 아냐?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서 부대는 1월에 서울로 파견 나가고, 일반 소대원들은 우리 행정반하고 경찰관 한 명, 직원분이랑 해서 네 명인가? 일단 부대를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경찰관 직원이 저한테 ‘너 뭐 며칠 있다가 서울 올라가야 될 것 같다.’라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왜요?’라고 물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하고 어쨌든 올라갔어요. 갔더니 우리 저기 전경대 대장이 따로 부르더라고요. 중대장실로. 갔더니 대전, 그 당시에는 경찰청이 아니라 경찰국이었나? 뭐 그랬던 시기라 하여간 뭐 대공과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러 올라왔대요. 그러면서 일단은 같이 내려가서 조사 잘 받고, 그리고 부대에 복귀하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면담자 보안사가 아니고, 대공과에서?

이한수 대공과에서. (웃으며)그래서 어쨌든 뭐 대전으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차 타고 내려와서 경찰국 지하 조사받는 곳으로 갔어요. 갔더니 아예 그러더라고요. 이전에 다 조사받았던 것들을 그냥, 이 사람들은 다 귀찮은 거예요. 어차피 너는 못 벗어나니, 개별적으로 조서 꾸민 것을 딱 던져주면서 읽어보고 판단을 하래. 그래서 그

걸 전체는 다 못 읽었지만, 몇몇 저희 동기 녀석들이랑 그 87학번, 사람들을 보니까 88학번까지는 안 불(자백)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면답자 이미 거기에 대충 언급이 돼서?

이한수 그래서 참 지금도 88학번 후배들한테 되게 미안한데 어쩔 수 있나요? 그렇다고 그 밑에 이제 89나 90까지 가면 너무나 큰 거시기니까 그래서 저도 그냥 표도 읽어보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어차피 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정리하는 식으로…….

면답자 안 맞았어요?

이한수 아. 저는 안 맞았어요.

면답자 비명 들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한수 대신에 옆방에서는 비명 들리고 그것도 보니까 여자였어. 나중에 재판받을 때 보니까 이제 87학번 동기 여자 애하고 86학번 여선배 둘이었더라고. 그 두 사람은 짝 짝한 사람들이라. 저는 그냥 좀 유한 편이라.

면답자 그래서 그럼 뭐 어디 영창(군 감옥)을 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한수 아니 그래서 일단은 구속이 됐죠. 대전교도소 거기 유치장에 있었고, 거기서 한 몇 개월? 얼마 있었나? 거기서 재판까지 받아서 하여간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집

행유예 나와서 ‘그 정도면 이게 의가사 제대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경 같은 경우는 2년 이상의 실형을 받지 않으면 다시 재복무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해? 일단 다시 군대 가야지. 집에서 얼마 정도 쉬고 다시 자대에 복귀를 했죠. 복귀를 했더니 한 2~3주 있다가 이제 천안에 있는 전경대로 전출을 보낸 거고요.

면담자 그게 몇 년도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재판을 받는 기간이 한 몇 개월은 되잖아? 그냥 항소하고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이한수 네. 항소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항소를 안 했고, 그냥 이제 그 집행유예지만 어쨌든 그 1년 6개월이라는 걸 통해 군대를 정리를 해보자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렵פות하게는 아마 그때 변호했었던 민변 변호사도 ‘항소를 하더라도 승산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심에서 그냥 그렇게 정리를 했던 거고.

면담자 죄목이 뭐야? 정확하게. 죄가 그 항목이 국가보안법? 집시?

이한수 그쵸. 집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랑 국보(국가보안법)까지 있었던 거죠.

면담자 국보(국가보안법 위반자)도 2년 실형을 받아야지 의가

사제대가 되는구나?

이한수 (물 한 모금 마시며) 네. 전경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면답자 아이고 고생했네. 아니 군대에서 고생하면 정말 무서웠겠다. 이게 사회에 있다가 그러면 뭔가 이렇게 약간 지지하는 뭔가가 이렇게 있는데 군대는 되게 사실 그 자체도 되게 뭐지? 통제를 받는 조직인데다가 이 안에서 국보로 잡혀가면, 또 재판을 받고 그러면 이건 진짜 막 조마조마했겠어. 엄청 무섭고. 어휴.

이한수 아니 근데 막상 이렇게 됐을 때는 ‘아휴. 그냥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 집행유예지만 어쨌든 형이 나왔고, 이제 제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그럼 뭐 당연히 재복무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냥 덤덤해지더라고요. 대신에 전출(다른 부대로 보냄)을 보낼 줄은 몰랐지. 사실 전출을 가서 초반에는 좀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그 행정반에 있는 고참들은 알 거란 말이예요. 근데 일반 소대 고참들은 내가 뭐 때문에 왔는지를 몰라. 한 고참이 아주 저를 무지하게 괴롭혔거든. 그 고참은 ‘너 전에 있던 부대에서 후임들 폭행하고 그런 거 아니냐?’고 사고치고 온 걸로 판단을 하더라고. 근데 사실 제가 이만저만 이렇게 되었습니까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 소대는 행정반이 있고 1, 2, 3소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소대 하나

가 더 있는 거야. 뭐냐 하면 이 그 부대에서는 돼지, 토끼, 닭, 오리 가축들을 키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가축을 키우기 위한 사람도 필요하고, 여기도 전경 부대니까 헌병처럼 입구에서 근무를 서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 그런 인원들까지 해서 따로 소대를 만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경찰들이 ‘그냥 너는 그냥 부대에만 처박혀 있어!’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면담자 그렇지. 사상범이니까 바깥으로 돌아다니면 안 돼. 원래는 정확히는.

이한수 그러다 후임들 몇 명이 들어오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심심하잖아요?

면담자 조금 자기가 마음이 편해졌구나?

이한수 응. 조금. 적응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든 거지. 이 부대에도 대부분 대학 다니다 온 친구도 있을 거고, 나름의 어떤 생각하는 바가 일반적인 것과 틀린(다른)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조그마한 학습 모임이나 하나 만들어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면담자 와! 겁 없다. 집행유예 기간이었을 텐데. 대박! 그래서 소모임을 만들었어요? 학습 모임?

이한수 (물 한 모금 마시며) 소모임을 만들려고, 고참들 위주 보다는 제 후임들 위주로 해서 의견들을 이렇게 타진

하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이제 휴가를 나오게 됐네? 휴가를 나오고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소대에 있던 친구가 청주대에 다니던 89학번인데, 이 친구는 자주민족통일에 아주 열정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랑 학습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해서 뭔가 책자나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으면 한번 준비해 보자고 하고 헤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복귀 날 천안역에서 만났는데, 이 녀석이 그 해 11월 연대에서 전국연합이 창립대회를. 창립대회인가? 창립총회인가?

면답자 몇 년도에?

이한수 그게 91년 92년도인가? 91년도인가? 헛갈린다.

면답자 그랬나? 하여튼 그건 내가 찾아보면 돼. [1991년 12월 1일] 거길 갔다가?

이한수 그래도 이 녀석은 이제…….

면답자 군인이 거길 갔어? 군인이?

이한수 (웃으며) 사실 저는 제가 그 양심선언을 의식적으로 제가 계획했던 건 아니고 이 녀석이 자기는 거기 가서 양심선언을 하겠대. 근데 순간적으로 ‘그럼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1시간 정도 고민하다가 ‘그러면 같이 가자!’ 그 당시에는 20대 중반이잖아.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판단할 때 이렇게 마음을 정리했으면 거기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

각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그 녀석이랑 같이 부대 안 돌아가고 서울로 올라간 거죠. 곧바로 연대 총학생회 그쪽으로 가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만저만의 전경들 인데 이만저만 하려고 한다는 의사를 표시를 했고, 그 때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었나? 그래서 같이 생활하면서 도망자 생활을 좀 하게 됐던 거죠.

면답자 그럼 주로 어디 있었어? 그 한 달 동안은? 학생회실 뭐 이런 데?

이한수 그렇죠. 처음에 연대 학생회실에 있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세종대, 건국대, 대학별로 학생회실, 총학 그쪽으로 해서 계속 피신 생활을 했고. 도망 생활을 하다가 저는 좀 일찍 잡혔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한번 친구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천에 있는 친구들을 좀 보려고 내려왔다가…….

면답자 수배 떨어졌었겠구나. 당연히.

이한수 그렇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에 경찰들 와서 다 뒤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많이 놀라셨지요.

면답자 엄청 놀라셨겠네요.

이한수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친구 만나다가 쉽게 얘기하면 불심검문에 걸린 거예요. 참 멍청한 거죠. 그때 친구들이 저까지 해서 5명인가 만났는데, 한 녀석이 그 당시에 훈련소 조교로 있었거든. 근데 친구 중에 한 녀석은

그 당시에 이제 ROTC로 해 가지고 소위인가 중위인가 임관해서 군생활하고 있는 친구도 있었고. 어떻게 얘기하다가 이 녀석을 한번 보자,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야 근데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나는 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녀석이 ‘자기가 그래도 장교니까 커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동생 주민번호라도 그걸 암기하고 있어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불안 불안했지만 아유, 근데 그게 오산이었던 거지. 어쨌든 이게 면회까지 다 했어요. 나오는 길에 거의 마지막 검문소라고 해야 될 곳에 보니까는 전경이야. 그 친구가. 제가 동생 거 주민번호랑 주소랑 했더니 갑자기 손을 보자는 거야. 그래서 손을 보여줬더니 그 지문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교육을 하는지 모르지만, 쉽게 얘기하면 1번부터 몇 번까지 정해놓고 이러한 형태들은 1번 이러한 형태는 2번 그러니까 다 그렇게 지정을 해놨대.

면담자 개는 그런 걸 어떻게 알았데?

이한수 그러니까 이제 개네들은 교육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아마 5개 중에 한 개라도 좀 ‘어? 정보가 뜬 거랑 뭐가 안 맞는데?’ 이러면 이제 ‘잠깐 들어오세요.’ 하면서 정밀 검사를 하는 거지. 바로 그런 케이스로 잡힌 거죠. 안 되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도 뭐가

크게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지만, 양심선 언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사람들을 알게 되고, 군 문제에 관련해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을 접하니까 문제의식이 있긴 했는데 워낙 초반에 그렇게 붙잡히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었고, 그래서 천안교도소로 와서 거기서 재판받고 1심에서 형 떨어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집행 유예기간이었잖아. 그래서 실형이 떨어진 거지. 그래서 항소를 했고. 그래서 안양교도소 갔다가 거기서도 기각되는 바람에 대법원까지 갈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상고 포기하고 형이 확정되면서 김해교도소로 갔죠. 거기 가서 말 그대로 정치범들 따로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전교조 활동하셨던 이부영 선생님이라 지금 국회의원하고 있는 진성준 의원 그리고 86, 87, 88 그 또래 학번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서 1년 6개월 실형 살고 부대에 갔더니 그래도 재복무를 해야 된대. 그래서 또 재복무를 했어.

면답자 와, 지겨워! 정말.

이한수 그래서 저도 이게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제가 90년 10월 4일 날 입대를 해서 94년 11월 5일 날 제가 전역증을 받았거든요.

면답자 20대, 참 고생하고.

이한수 아니 근데 제일 뭐한 거는 사실 부모님이죠. 특히 우리

어머니 그냥 아휴. 저 때문에. 우리 노인네들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들의 삶 자체도 그랬고. 그런데 저 때문에 진짜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고 또 그 속에서 나름의 어머니 같은 연배의 투쟁하시는 분들을 또 민가협이나…….

면답자 이런 것들, 그래 안 갈 수가 없어. 자식이 감옥에 있으면 그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민가협으로 가야 만 나니까. 그렇잖아요? 탄 데 누가 이런 걸 상담해주고 누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 근데 여길 가면 다 비슷한 처지의 엄마 아빠들이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지. 뭐 엄마 엄청 고생하셨네.

이한수 그러니까 지금도 가끔가다 얘기하는 게. 너 때문에 진짜 대전교도소, 천안, 안양, 김해 그러니까 전국 팔방, 다는 아니더라도 노인네가 굳이 가야 될 이유는 없거든. 특히 교도소를.

면답자 본인도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했겠어. 아이고 애썼습니다.

대학생활의 또 다른 측면

면답자 근데 그 당시 노래를 부르거나 노래패 활동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 대학에서는?

이한수 학교 다닐 때는 노래패 활동은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
충남대는 그게 없었던 것 같고요. 대신에 민요연구회
나 탈춤반이나 이런 동아리들은 많이 있었거든요.

면답자 그래도 어쨌든. 그때 그 당시에 노동가요를 집회 가면
많이 부르고 그러니까

이한수 제가 농대다 보니까 4H연구회라는 서클이 있거든요

면답자 각 대학마다 다 있잖아.

이한수 예. 근데 거기 노래 책자가 있더라고. 보니까 농민가부
터 시작해가지고, 새야 새야 파랑새야, 이런 약간 운동
적 느낌의 노래들을 수록해 놓은 책들이 있어서. 아는
노래들은 아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농대다 보니까
농민가는 기본적으로 알 수밖에 없거든. 맨날 부르니
까.

면답자 농민들이 부르지 않는 농민가.

이한수 노래는 듣는 건 좋아했고. 그러다가 87년 88년도인가?
그때, 아까 86선배 얘기했지만, 86 선배가 또 한 명이
더 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그러는 거지. 88년도 가
을쯤에 농대 축제를 하는데 ‘이번 농대 축제 때 우리
마당극을 하자!’ 그래서 ‘응? 마당극?’ 그랬더니 자기
가 이제 대본을 써오겠대. 그러면서 써온 거 가지고 서
로 간에 논의를 해서 수정할 것 수정하고는 했지만, 어
쨌든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노래도 집어넣고, 당

시 전두환 노태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것들을 끝 무렵에 얘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그것도 한 40분? 한 4~50분 했던 것 같은데.

면답자 이 양반 되게 능력 있으신 분이네? 40분짜리 대본을.

이한수 어쨌든 그걸 하면서 풍물을 제가 했던 말이에요. 4H연 구회에서. 같은 동기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탈반 넘어 가서 배워서 어쨌든 그해 가을 축제 때 마당극도 하고, 여는 행사로 풍물 잠깐 하고 그런 활동들을 했었죠. 그리고 그때는 그런 문화패에 대한 어떤 그 고민들이 그렇게 깊지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유명무실해졌겠지만, ‘학회라는 거를 각 과별로 만들어보자!’라는 분위기가 있어 가지고, 88년도에 저희가 과 교수들이랑 이제, 투쟁 아닌 투쟁을 해서 학회를 결성을 하게 되죠. 물론 그게 몇 년 못 갔겠지만.

면답자 어쨌든 그게 기본 단위로 꽤 오래 갔긴 갔죠. 90년대 .

이한수 아휴. 지방대는 조금 열악해서. 어쨌든 그렇게 좀 집중을 했던 것 같고, 또 다른 선배를 통해서 MT도 가고 학습하면서 그 선배가 그 노래 테이프 ‘공장에 불빛’부터 해서…….

면답자 아. ‘공장의 불빛’을 그때 들었어요?

이한수 예. 그 선배가 2박 3일 뭐 이렇게 합숙을 하게 되면 꼭

가져오더라고. 가져와서 그거 들으면서 ‘이런 노래도 있구나.’ 저는 노래는 좋아하니까. 근데 다른 애들은 별로더라고요.

제대 이후 결국 인천으로 돌아오다

면담자 그럼 다시 인천으로 와서

이한수 인천으로 와서는, 제가 97년도에 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죠. 이제 그 해 98년도인가? 그 해 가을쯤에 이제 서울에 있는 조그마한 건설회사에 어찌어찌 현장 기사로 취직을 하게 되고 한 1년 정도 다녔는데, IMF 시기라. 사장이 의도적인 고의부도를 낸 거예요. 저는 퇴직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러면서 아는 분들 통해 계속 지방으로만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의 20대 후반 30대는 그냥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면담자 그게 왜 집중하는 게 없는 거야? 먹고 사는 데 집중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이한수 아니 그렇다고 돈을 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 진짜 아까운 시간을 보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인천에 올라와서 ‘동광기연’이라는 데를 애초 들어갈 생각이 또 있었던 게 아닌데, 내가

면허시험장을 가려면 학익동에서 3번 버스를 타면 됐거든요. 그 3번 버스가 그 동광기연 앞을 지나가요. 보면 뭐냐, 한문으로 ‘동녘 동(東)’ ‘빛 광((光)’ ‘동광기연’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저 회사는 뭐하는 회사길래 저런 상호를 갖고 있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었거든. 근데 알고 보니 자동차 쪽이었던 거고. 거기 들어가서 1년 동안 비정규직 생활을 하다 보니 노동조합이 있는 거야. 노동조합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더라고요. 당시가 아마 조합원이 한 150, 160명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비정규직이나 일용직들이 거의 200명, 300명이 일을 했던 말이야. 그러니 제가 봤을 때는 그 조합에서 움직이는 게 너무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면답자 정규직 중심으로?

이한수 예. 그때 기분 나빴던 게 조합에서 뭐 체육대회인가 야 유회인가를 간대. 근데 비정규직들은 다 출근시켜서 일을 시키는 거야.

면답자 자기네들은 체육대회하고?

이한수 물론 그거는 이제 조합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회사의 문제이긴 한데, 솔직히 우리들이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거잖아요.

면답자 총알받이 시켜놓고 자기들은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것도 방관하는 것도 웃긴 거지.

이한수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게 싫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정규직이 됐네. 제가 있던 데는 물류 쪽이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한 1년 정도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추천을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줬단 말이야. 저까지 포함해서 8명인가? 정규직이 됐어요. 그러면서도 황당했던 게, 그 근로계약서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다는 못 읽어봤는데 대충 훑어봤단 말이야. 근데 이제 4번인가 5번에 ‘노동조합은 가입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모르지만 저는 그거 봤거든. ‘아니? 씨. 이걸 또 뭐야?’ 조합은 조합대로 문제지만 어떻게 노동조합을? 그렇다고 사인 안 할 수는 없잖아? 일단 사인은 했고. 그러다 보니 뭔가 조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거죠.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고. 제가 봤을 때는 조직화하려는 모습들이 많이 미약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쪽 온 거죠. 2007년, 8년. 그러다가 2015년, 16년 그 상황이 저희 조합원들이 익산으로 1년간 파견을 갔다가 올라왔거든요. 그 시점에 조합에서도 조직화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말이에요. 왜냐하면 익산 내려갔을 때 거기는 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것이었고 거기는 쌍용자동차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들도 좀

더 세를 확장시키고, 또 일감 자체도 넓혀 보자는 생각을 그 당시 지회장이 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웃긴 건 뭐냐 하면 1년 하고 올라온 거야. 1년만 하고 올라왔는데 그다음 1월에 회사에 불이 났어요.

면답자 2008년에? 아니 2016년에?

이한수 예. 2016년 1월에. 그러니까 그 불이 이게 합선에 의한 건지, 뭔지. 나중에 소방에서도 발표한 결과로는 원인 불명. 허! 거기에 대해서도 뭐 이 말 저 말이 많은데. 어쨌든 불이 났고 그러면서 공장을 또 매각을 했었던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물류, 그 비조합원들 내에서 고민을 했던 거지.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일단 우선적이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조합을 가입하자!’ 우리도 우리 혼자 풀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함께, 그리고 힘을 좀 받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조합을 가입했죠. 16년도에. 그러다 17년 접어들면서 문자 해고로 전체 직원들 다 정리하고 당하고, (목소리가 커지며) 그러는 와중에 예전 지회장을 했었던 그 형님이 ‘문화패를 우리 만들자! 투쟁하고 있는 동안에 조합원들이 그냥 멍하니 농성장에 있기도 뭐하고 그러니 문화패 활동이라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노래패가 만들어지게

된 거거든요.

면담자 그 이름이 뭐예요?

이한수 노래패가 이제 ‘해방을 여는 문’ 줄여서 해방문.

면담자 그럼 몇 명 정도가 있었어요?

이한수 초창기에는 그래도 한 열두 명 정도 됐었죠.

면담자 농성장에서 프로그램 진행하고, 같이하고?

이한수 같이 하고. 대신 강습은 인천본부 와서 서미영(노래선언의 노래강사) 동지가 저희 강사. 노래선언의 서미영 동지가 강사로 오셔서 강습을 하셨고, 지금까지 하고 있죠.

면담자 그러면 지금 뭐 지금은 몇 명 정도 있어요?

이한수 지금은 2명이요.

면담자 2명? 다 잘린 거예요? 회사를 그만둔 거? 아니면 노래패를 그만둔 거?

이한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7년도 투쟁하는 동안은 어쨌든 우리가 복직을 하자는 의지들이 강하다 보니까 물론 처음에 열한두 명이어서 중간에 몇 명 나가고 또 몇 명 또 들어오고 인원 변동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여성들이 좀 많았던 말이에요. 여성 조합원들이. 여성 조합원들이 많이 좀 노래패 활동을 했는데, 저희가 18년도에 복직을 하면서 복직을 하니까 관심도가 일단 집안일 그리고 본인들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을

하고 싶어 하고 여행도 가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관심사들이 크게 변하다 보니까 노래에 대해서 소원해
지고 부담을 갖는 거죠.

면답자 투쟁 시기에 만들어진 문화패들이 대부분 문선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쟁이 끝나면 그 역할이 더 이상
꼭 필요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간부들이나 그런 사람
들이 좀 있기는 하겠죠. 근데 한수 동지는 어떻게 생각
했어요?

이한수 저는 기본적으로 노래 부르는 게 좋았어요. 사실 저는
노래 부르는 게 좋았고 물론 제가 노래를 잘한다 못한
다 이거는 뭐.

면답자 근데 목소리가 일단 좋잖아.

이한수 모르겠슈. 저는…….

면답자 목소리가 울림이 되게 좋아요. 되게 매끄러운 소리지.

이한수 저는 노래패 활동은 사실 하는 데까지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작년 초에 이제 정리를 했거든요. 좀 개
인적인 이유로. 지금 저희만 아니라 한국GM에도 노래
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 노래패를 위해서
연합으로 활동들을 많이 해요. 제가 또 기타패랑 풍물
패도 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풍물에 집중을 하고, 반
격(기타반 이름)은 반격대로 뭐 제가 시간을 내서 연습
도 하고, 또 반격은 반격 나름대로 또 어떤 분위기가 있

어서, 그러니까 좀 상당히 유하죠. 그리고 물론 창곤이 형(김창곤, 대우자동차 노래패 출신의 활동가, 전 인천본부 위원장)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창곤이 형이 들어오면서 또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긴 했지만, 그 변했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창곤이 형님은 ‘뭔가 정리를 해가면서 하자!’ 쉽게 얘기하면 반격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정리가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반격은 이런 거야!’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패의 모습을 갖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고 하니까.

노래패의 역할에 대한 고민

면담자 그러면 주로 이제 뭐 어쨌든 노래패 안에서 자기 역할은 주로 어떤 거였어요? 하게 되면? 일단 뭐 노래는 같이 했을 거고, 약간 뭐 조직 챙기고 이런 것도 되게 잘 했을 것 같은데 사람 챙기고?

이한수 글썄요.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노래패가 됐든 풍물패가 됐든 뭔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이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집중하려고 했고. 또 그네들이 고민거리들도 다 개별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고, 또 다 틀릴 수밖에 없고. 물론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뒤풀이하면서 또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풀어갔으면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평가는 잘 모르겠어요.

면답자 노래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하면 주로 어떤 노래들을 불렀어요? 이 시기에는? 2015년, 16년, 17년 이렇게 주로 부른 노래가 어떤 노래죠?

이한수 15년, 16년도면은 비철가(비정규직철폐연대가). 왜냐하면 워낙 한국GM 비정규직지회동지들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비정규직 투쟁이 많았죠. 그러니까 당시 집행부들도 비정규직 철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집중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면답자 근데 이런 건 이제 주로 문선 활동과 투쟁 시기에는 나가서 그렇게 부르는데, 모여서 연습하거나 같이 뭔가



2023년11월인천노동문화제_반격공연

일상을 나눌 때는 주로 부르는 노래가 다 이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니야? 주로 투쟁가였나? 그래도?

이한수 투쟁가였어요.

면답자 아. 다시 또 투쟁가 중심으로.

이한수 그러니까 제가 서미영 동지한테 한 17년, 18년도인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때 17, 18년도 저희도 투쟁하는 기간이었고 물론 복직을 했지만, 18년도엔. 너무 말 그대로 투쟁가만 부르는 것도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정서적인,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잔잔한 노래들을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이상하게 강습 때 노래들을 보면 선언(노래선언)쪽에서 또 관여된 노래들, 투쟁가, 현장 상황은 전국적으로 계속 투쟁하는 곳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 지원하고 뭐 하는 측면으로 흘러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면답자 그럼 연대 투쟁들을 많이 다녔어요?

이한수 연대 투쟁은 다녔었죠.

면답자 그 노래패로? 노래패로 이제 노래 문선 활동을 가면서 연대 사업을 가면서 주로 다 투쟁가만 많이 부르고 그랬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둘 거 아니야. 투쟁이 없을 때는 굳이 노래패가 필요하냐고 일상 활동으로의 자기 노래 문화를 자기의 삶으로 뭔가 즐길 수 있는 문화로 가져가지 못한 거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

특히 여성 동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한수 그렇죠.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솔직히 지금 민주노총 조합원들 다 물어봐봐요. 지금 노래패 활동 그나마 열심히 하고 있는 동지들 빼고는 근데 ‘왜 우리는 트로트를 부르면 안 되고, 뭘 안 되고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물론 저도 그 거기에 무조건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이제 틀에 박힌 모습들이라는 거지. 그리고 지금 노래패 지금 활동하는 동지들 보면 ‘투쟁은 투쟁이야! 왜 우리가 어? 이런 노래를 불러야 돼? 이걸 아니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면답자 투쟁 시기에 투쟁가만 부르고 살지 않는데. 옛날에 그 파업하는 데 가보면 낚시도 하고, 다 일상이 있는데, 어떻게 투쟁가만 맨날 부르고서 살지? 그건 원칙주의자가 아니고 편견인 거죠.

이한수 예. 그렇죠.

면답자 노동가요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거지. 본인이 알고 있는 게 투쟁가요밖에 없는. 투쟁가요가 노동가요라고 생각하는. 근데 왜 다시 그렇게 됐을까 너무 슬프다.

이한수 하아~(한숨을 쉬며) 글썄요. 왜 그렇게 됐는지.

면답자 근데 그러면 한수 동지는 그래서 그런 욕구들이 또 있으니까 반격 같은 걸 같이 하는 거예요?



2022년4월세월호8주기_반격

이한수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반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반격이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다양한 어떤 그 흐름이라는 것. 또 이제 반격 같은 경우에는 기타라는 악기를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기술적인 것들 때문에 사실은 뭐 코드, 주법 이런 거. 대중가요들을 치다 보면 주법이나 스킬들이 많이 좀 늘거든요.

면담자 반격에서 주로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이한수 (한참 생각을 하다가) 글썄요. 그러니까 투쟁가 위주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대중가요 중에서도 어떤 기술적으로 뭐 좀 이렇게 도움 될 수 있는 노래들을 고민해서 ‘이런 거 합시다. 이런 노래 합시다!’라고 제안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들 동의를 하게 되면

그 노래를 배우는 거고. 지금 상황은 솔직히 얘기하면 뭐 대중가요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전에 불렀던 노래들 ‘술아술아 푸르른 술아’나 뭐 뭐죠? ‘잠들지 않는 남도’ 같은 노래들 좋아해요.

면답자 좀 서정적인 거?

이한수 네. 서정적 노래들. 대신에 개별적으로 문선대 활동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5·1절이나 11월 노동자대회 같은 경우는 그때는 말 그대로 문선대로서의 어떤 투쟁가를 연습을 하고. 평상시에는 ‘다양한 걸 하자.’ 너무 한쪽으로만 틀에 박히지 말고 가족들 앞에서도 같이 놀 수 있는 노래, 쉽게 말해 김광석 씨의 노래들이 보면 사실 대중적으로도 인기가 있고 또 나름 또 가사적인 내용도 물론 깊이 생각을 해야겠지만 좀 그런 류의 노래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면답자 반격은 강사가 누구예요?

이한수 그러니까 따로 없고요. 지금 반격은 그 손병걸 시인이 라고 눈이 안 보이시는 형님 계세요. 그 형님이 이제 강사 역할을 하시지. 따로 강사를 둔 건 아니고.

면답자 이제 이분이 마스터 같은 역할을 하시는, 리더, 마스터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한수 그렇죠.

면답자 한수 동지는 계속 뭔가 이렇게 노래패 활동을 시작한

이후로 계속 노래패 활동을 하고 싶은 거네? 노래를 계속 부르네?

이한수 솔직히 저는 그러니까 지금 뭐 저 뭐냐 해방을 여는 문은 해방문은 나왔지만, 그 노래로 그 말 그대로 그냥 좋게 포장하면, 문화와 관련된 활동들은 할 수 있는 데까지 꾸준하게 하고 싶어요.

면답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노래 부르면 어때?

이한수 글썄요. 좀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자기 만족이라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노래라는 게 가사 속에 좀 있잖아요. 물론 노래 선곡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매 시기마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 상황이라는 건.

면답자 노래가 이 노래패 활동이 뭘까? 한수 동지한테는 뭐였었고 지금은 어떤 의미예요?

이한수 (잠시 생각하더니) 제가 노래패 활동한 지는 7년 8년이거밖에 안 되는 건데…….

면답자 그것도 꽤 되는 거지. 사실 7~8년 꾸준히.

이한수 아니 저보다 오래 하신 분들도 많으셔서. 근데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가 정리하고 당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투쟁을 위한 그런 측면 속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실제 또 거기에 대해서 저뿐만 아

나라 조합원들도 가사는 모르지만 그래도 웅얼웅얼하고 따라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봤다는 거죠. 투쟁하는 동안에는. 근데 복직하고 나서는 저도 좀 변했겠지만, 조합원들을 보더라도. 집회는 참석은 해. 하는데, 예전과 같은 그런 어떤 웅얼웅얼하거나 뭐 뭔가 좀 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고, 근데 그거를 못했다 잘했다 이런 평가를 하는 건 아닌 그건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그네들 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은 회사를 관두지 않는 이상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지는 않거든. 저는 이제 그런 모습 때문에 ‘저희 회사 지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소한 이틀 속에서는 가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근데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게 지금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투쟁적 측면과 또 지금에 와서 어찌 보면 일상적인 생활과의 어떤 그 연계? 연대? 뭐 이런 측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저 혼자만으로는 사실은 좀 어렵잖아요. 제가 뭐 아는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쉽게 노래를 선곡을 하고 싶어도 제가 아는 노래는 거의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도움이 현재로서는 반격이나 풍물은 별개로

치더라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좀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은 해요.

면답자 노래 안에서 노래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한수씨가 긍정하는 고갯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는 거고 노래가 갖고 설명은 잘 안 되지만 노래가 갖고 있는 어떤 힘, 나는 그런 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노래를 불렀을 때 뭔가 이렇게 몽클했던, 투쟁을 같이 하면서 투쟁가를 부르면 정말 짜릿하잖아요? 정말 투쟁 때는 투쟁가를 부르면 정말 짜릿하지 않아? 나는 너무 짜릿해서 울컥하고 막 그러잖아. 근데 그런 것처럼 근데 그 투쟁가가 투쟁할 때는 울컥하지만 일상에서도 분명히 그런 울림을 줄 수 있는 노래가 있을 텐데, 그런 노래를 노래패 안에서 다양하게 담아내면 굳이 여기도 찾아가고 저기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한 노래패 안에서 다양한 일상과 삶의 궤적들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노래 선곡과 이런 거를 좀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창곤이형이 일단 좀 많이 알 거고.

이한수 네. 그렇죠. 창곤이 형님도 많이 아시더라고요.

면답자 한수 동지가 조금 애쓰면 될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딱 리드하고 이런 거를 안 하려고 약간 그러고 있어요? 노래패 안에서?

이한수 좀 부담스러워요. 제 성격의 문제, 성향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제안을 할 때는 제안을 하지만 구체
적인, 세부적인 부분 들어가면 어휴 딱 막혀버리니까,
아 괜히 나서는 듯한 모습들?

면답자 그런 게 부담되는구나?

이한수 네.

면답자 그래. 누구나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이한수 그렇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반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까 얘기했지만 창곤이 형
님이나 조혜영 누님이나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몇몇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떨까 저런 건 어떨까 제안
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안하시는 걸 통해
서 서로 간에 얘기를 해서 동의가 되면 그걸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면답자 아니? 재밌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멤버들
이 좀 갖춰지면. 조금 더 목소리를 내도 괜찮을 것 같
고. 왜냐하면 얘기한 것처럼 혜영 씨나 창곤이 형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잘 또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한수 그렇죠. 저보다 더 잘 아셔.

면답자 모든 것의 중심에 어쨌든 약간의 혼자는 힘들지만 약
간 이렇게 핵심이 이렇게 한 두세 명 꾸려지면 그 자체
가 또 힘이 되는 거가 있잖아요?

이한수 그렇죠. 그렇죠.

면답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반격이 그런 방향으로 잘 나갈 때
방관하지 말고, 혜영 동지나 창곤이 형하고 같이 의기
투합하면 가겠네. 창곤이 형도 모르는 사람 아니니까.
같이 열심히 한번 해봐요. 나는 응원할게요. 잘할 수 있
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뭐예요? 노동가요 중에서?

이한수 (천장을 쳐다보며 한참 생각을 하다가) 글썄요. 이게
그때그때 바뀌었는데, 요 근래에 들어서는 제목이 그
게 진혼가인가 진혼곡인가?

면답자 (노래를 흥얼거리며) ‘포연이~~’ 진혼곡? 이거?

이한수 예, 그 전에는 뭐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나 (노래를
흥얼거리며) ‘외로운 대지의 깃발~’

면답자 잠들지 않는 남도?

이한수 아! 예. 저는 그렇게 좀 잔잔한 노래를 좋아해서. 지금
반격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노래를 한번
하자라고 그러면 다들 호응하셔요. 근데 문제는 노래
패야! 노래패에서는 왜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건지?
뭐냐 하면 지금 활동을 안 한다고 하지만 사실 언젠가
는 다시 돌아갈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두 명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양반이 내후년에 정년퇴직이란 말이
야. 그러다 보면 물론 고민할 때가 오겠지만, 그게 투
쟁가가 됐든 뭐 노동가요? 대중가요가 됐든 노래는 부

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부른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문선대로서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단위와 그렇지 않은 단위의 어떤 차이점, 사실은 거기까지는 예전에 얘기는 들었는데 미처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도 가슴에 좀 걸리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솔직히 저도 해방문이라는 단위랑 또 지금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두 사람을 가지고 해방문 공연을 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본인들이 느낀 단 말이에요.

면답자 지금 현역으로 정말 활동을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숙제와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를 과거로만 잘했다라고 다독겨려지지 않더라고. 왜냐하면 끊임없이 지금 나를 다시 만들어가야 되니까. 한수 동지는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숙제를 같이 얘기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강조하며) 애쓰십시오. 나는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해. 너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 같이 풀어갑시다. 긴 시간 수고하셨고 말씀해주셔서 고맙고요.

이한수 네. 아니 괜히 죄송한 느낌밖에 안 드는데요.

면답자 왜? 왜요? 하여튼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고마워요.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도시부평 기록사업

음악일기 : 희망의 노래

발행일 | 2024. 11

발행인 | 이찬영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발행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십정동) 부평아트센터

TEL.032-500-2000 FAX.032.506.9021

발간번호 | 2024-11

제작 | 모씨네 사회적협동조합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의 저작권은

부평구문화재단 및 작가와 해당 저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복제, 변형, 송신을 금합니다.

